



2020 한반도 희년 세계교회 기도운동

Jubilee Peace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 발 간 사 |

2018년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싱가포르선언 등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지만, 2년이 지나고 있는 현재 남북관계는 단절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끊임없이 열강들의 패권경쟁으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정치, 군사적 대립으로 한반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무기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습니다.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며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반도가 분단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희년으로 선포하고, 전 세계교회와 함께 “한국전쟁종식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3월 1일 (3.1절)부터 8월 15일 (8.15 광복절)까지를 집중 기도기간으로 정하고 70개의 평화기도문, 메시지, 신앙 간증 등을 통하여 이 기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한반도 희년 세계교회 기도운동’의 결과물을 발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북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함께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평화를 염원하는 북녘의 동포들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도운동에 기도문과 간증,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평화를 열망하며 동참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책이 나오기 까지 수고해주신 WCC Marianne Ejdersten Communication 담당국장님과 김진양 목사님, 교회협 신승민 국장과 노혜민 부장, 최규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번역으로 수고해주신 미국장로교 선교동역자 Kurt Esslinger 목사님과 이해영 선교사님, 신하은 양과 보기 좋게 편집해주신 제이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이 흥 정

| Preface |

In 2018 several historic events occurred such as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Pyongyang Declaration, and the Singapore Statement, which stirred our hearts within our breast, but after two years now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cut off and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has failed to progress.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plagued by fierce competition among the powers for hegemony. This political and military confrontation threatens the lives and safety of the Korean people. Citizens are increasingly calling for an end-of-war declaration and a peace agreement.

We will never achieve peace with weapons of war. Peace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peaceful means.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202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CK) declared a jubilee year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pledged to pray in unison together with the churches in the world for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the settl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Church and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ave designated March 1st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o August 15 (8.15, Liberation Day) as an intensive prayer period and have conducted this prayer campaign through 70 peace prayers, messages, and testimonies of faith.

We send our thanks to everyone who sent in prayers, testimonies, and messages, and to those who participated in this prayer movement with a desire for peace. Also, we would like to thank Marianne Ejdersten, the Director of Communications for the WCC, Rev. Kim Jin-yang, Rev. Shin Seung-min, Rev. Roh Hye-min, and Rev. Choi Kyu-hee of the NCKK for working tirelessly until the release of this book. We would also like to thank those who worked so hard on translation, such as, Rev. Kurt Esslinger, and Lee, Hye-young, mission co-workers from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s well as Shin Ha-eun and Jay for the beautiful editing, and we hope that God's overflowing peace will be with you all.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Rev. Lee, Hong Jung, General Secretary

목 차 CONTENTS

발간사	3
Preface	5
호소문	10
Background	12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Praye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월 1주	16
First Week of March	20
3월 2주	25
Second Week of March	31
3월 3주	40
Third Week of March	43
3월 4주	47
Fourth Week of March	51
3월 5주	55
Fifth Week of March	66
4월 1주	78
First Week of April	85
4월 2주	94
Second Week of April	101

목 차 CONTENTS

4월 3주	108
Third Week of April	114
4월 4주	120
Fourth Week of April	125
5월 1주	131
First Week of May	134
5월 2주	138
Second Week of May	146
5월 3주	155
Third Week of May	160
5월 4주	165
Fourth Week of May	170
6월 1주	175
First Week of June	181
6월 2주	188
Second Week of June	194
6월 3주	200
Third Week of June	216
6월 4주	233
Fourth Week of June	237
6월 5주	241
Fifth Week of June	245

목 차 CONTENTS

7월 1주	249
First Week of July	256
7월 2주	264
Second Week of July	272
7월 3주	280
Third Week of July	286
7월 4주	292
Fourth Week of July	303
8월 1주	315
First Week of August	318
8월 2주	322
Second Week of August	331

부록

Appendix

한국전쟁 70주년 에큐메니칼 평화 메시지	342
Joint Ecumenical Peace Message	346
on the occas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 호 소 문 |

올해로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6백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1천만 명 이상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으며, 나라 전체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70년 동안의 분단은 한반도 민중들에게 고통스러운 한이 되었으며, 아직도 우리는 휴전 상태에서 또 다른 전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70년! 너무 오랜 기간 우리는 고통과 증오 속에 살았습니다. 이제 전쟁을 끝장내고 평화와 상생, 통일의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가장 절박하고 중요한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교회협은 지난 68회 정기총회에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할 것”(시 34:14)을 다짐하고, 2020년을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실현하는 “희년의 해”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다짐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세계교회협의회 (WCC)와 미국 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NCCCUSA),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서울과 제네바, 워싱턴 DC에서 “2020 한반도 희년 평화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희년운동을 기도로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분단과 냉전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엎고, 용서와 화해와 일치의 열매를 맺게 하는 평화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분단과 냉전의 갈등이 해소되고, 이 땅에 다시 생명의 풍성함이 회복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2020년 3월 1일에서 8월 15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전 세계의 교회들은 이 땅에서 분단의 고통을 온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또한 분단을 넘어 이미 화해와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소망의 이야기도 함께 들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지역교회공동체에 몸담은 5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국의 언어로 “전쟁 없는 세상”에 대한 평화의 소망을 가지고, 한반도의 전쟁종식과 평화협정체결, 그리고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세계 기도운동에 교회와 가정, 직장과 각 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참여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자주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한을 풀고 평화로 하나 되는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한반도에 해함도 상함도 없는 주님의 평화 (사 65:25)가 이루어지도록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년 2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일동

| Background |

Jubilee Peace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Global Prayer Campaign)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More than six million people died and more than seven million people have been separated from their families. The whole country had been totally devastated during the three years of the Korean War (1950-1953). The seventy-years division following the war has become a painful heartbreak for the peopl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are still living in fear of another war. 70 years! We have lived in pain and hatred for a long time. We sincerely aspire to end the Korean War, opening a new era of peace, reunification, and coexistence as the most pressing and important commitment for our whole nation.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pledged to “Seek Peace and Pursue It” (Psalm 34:14) at the 68th General Assembly on the 11th of November 2019, and proclaimed the year of 2020 as the “Year of Jubilee,” hoping to end the Korean War and establishing a permanent peace regime i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live up to our commitment,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CK), together with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NCCCUA), and all people of good will be launching the “Jubilee Peace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Global Prayer Campaign) in Seoul, Geneva, and Washington.

First, we are going to start the jubilee peace movement with prayer, because we are Christians who live by the power of prayer. Prayer is also a breath of peace that breaks down our hearts, which have dried up due to the division and the Cold War. Prayer brings forth fruits of reconciliation and unity in us. We firmly believe that our earnest prayer will end the division and the Cold War and that the abundance of life will be restored to the earth.

During the period from the 1st of March to the 15th of August, 2020, churches around the world will hear the heart-breaking stories of those who have gone through the suffering of division. We will also hear about people who have already lived a life of reconciliation and peace beyond division. 500 million Christians around the world will pray earnestly for an end to the Korean War, a peace treaty, a peace regime in Korea, and a world without wars in their own language.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We ask you to participate in this global prayer campaign in your church, your home, your work, and in all the places of your life. Let us pray earnestly for the peace and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s one unity without foreign intervention! Let us pray earnestly for those who suffer from division to live in unity with one another! Let us pray that no one shall hurt or destroy each other on the Korean Peninsula!

6 February 2020
Executive Committee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Praye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월 1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Olav Fykse Tveit) 목사
세계교회협의회(WCC) 총무

생명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반도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모든 이들을 위해,
청년과 노인,
여성과 남성,
힘 있는 이들과 힘 없는 이들,
강한 믿음을 가진 이들과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
평화를 갈망하며 목마른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를 위해,
새로운 연대와 우정을 선물로 줄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마음의 평화와 땅의 평화를 위해,
그래서 남과 북이 그리고 한반도주민들이
영원한 하나님나라의 정의, 소망, 기쁨의 징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

로즈마리 워너(Rosemarie Wenner) 주교
세계감리교협의회(WMC) 제네바 총무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한반도의 북동쪽 끝 옹기부터 남쪽 제주도 서귀포까지 한반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그들의 고통과 자유와 주권을 향한 갈망을 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1950년 시작된 한국 전쟁, 그때부터 결코 끝나지 않았던 그 전쟁 이후의 그들의 여정을 아십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연대하여 서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핵무기와 온갖 종류의 군사적 행동으로 인한 위협이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한반도 주민들의 자기결정권과 미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한반도의 북동쪽 끝 옹기부터 남쪽 제주도 서귀포까지 한반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분단과 모든 불의로 인한 상처들을 아십니다. 가족들이 나누어져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두려워하는 쓴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연대하여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분단이 종식되기를, 서로를 다시 알아가며 서로 형제, 자매로 인식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님,

우리는 한반도의 북동쪽 끝 울기부터 남쪽 제주도 서귀포까지 한반도에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풍성한 생명과 회복된 관계를 갈망하는 그들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군대의 주둔과 천연자원의 착취로 인한 세상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연대하여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영혼의 치유뿐 아니라 자연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또한 어머니인 대지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삼위의 하나님, 긍휼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

“이산가족을 위하여”


윤보환 감독
기독교대한감리회(KMC) 감독회장 직무대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주님,
우리 민족의 사상과 이념의 분단으로 인하여 6.25전쟁이 일어나고 남과 북이 분단되고 가족들이 헤어진 이산의 슬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70년이 되는 올해 그 슬픔으로 통곡하는 가족들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상과 이념의 분단으로 단절된 민족의 땅이 서로 오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이 나누어 분단된 한반도가 자유로운 왕래를 하고 그리고 슬픔의 이산의 가족들이 희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과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시고 이제 증오의 사슬에서 놓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엮여져서 이 민족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으로 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ARCH
Week 1

Prayer for Peace 1

Rev. Dr Olav Fykse Tveit
General Secretar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God of life, God of peace, God of justice!
Together we pray for the people of Korea,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for young and old,
for women and men,
for the powerful and the powerless,
for those who have a strong faith and those who have lost hope,
for all who thirst and long for peace,

for a just peace,
for a sustainable, lasting peace
that can bring the gifts of renewed kinship and friendship,
for a peace in the mind and peace in the land
so that the peninsula and the people of Korea can be a sign
of the justice, hope and joy of your eternal reign.
God in your mercy!

Prayer for Peace 2

Bishop Rosemarie Wenner
World Methodist Council, Geneva Secretary

God of life,

We bring before you the people in Korea, from Unggi in the Northeast to Seogwipo on Jeju Island in the South. You know them by name. You know of their suffering over centuries, their longing for freedom and for self-determination. You know their journey since 1950 when the war began – a war that did not end since then.

We stand in solidarity with your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pray for peace and justice, for an end of the threats of nuclear weapons and all kinds of military actions,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for the people in Korea and for a future of hope.

Jesus, redeemer of the world,

We bring before you the people in Korea, from Unggi in the Northeast to Seogwipo on Jeju Island in the South. You know them by name. You know of their hurts because of all the injustices and divisions they have been facing. Families divided, not knowing of one another's joys and pains. Prejudices are bearing bitter fruits of fear of the others.

We stand in solidarity with your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ay for an end of this division, for ways to get to know one another and to recognize the brother, the sister, for reconciliation and for healing.

Holy Spirit, source of new beginnings

We bring before you the people in Korea, from Unggi in the Northeast to Seogwipo on Jeju Island in the South. You know them by name in their longing for life in abundance and in restored relationships. And you know of the suffering of the earth because of the military presence and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We stand in solidarity with your peop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pray for healing, not only of the souls, but also of the nature and for new ways of living in harmony with one another and with mother earth.

Triune God, God of mercy, justice and peace, hear our prayer.

Prayer for Peace 3

“Division and Suffering of Separated Families”

Bishop Youn Bo-Hwan
Acting President Bishop, the Korean Methodist Church
Moderator, NCKK

Lord,

We have lived up to now with the sorrows of division and separated families because of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due to the division of ideologies.

Loving God,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we, the churches of Korea, call out for your mercy on the divided families. We pray that we may walk the path of reunification, breaking the chains of division.

Gracious God,

We ask you to make one this divided country and unify the divided families from North and South Korea that yearn to be together. Make us reconcile with one another on the way to peaceful reconciliation!

Merciful God,

Hear our long-cherished desire of the entire Korean nation to put an end to the history of disgraceful division and now set us free from the chains of hatred. May we be united with the full of hope of New Heaven and Earth!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makes two into one.
Amen!



3월 2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 “남과 북이 사이좋게 잘 살면 좋겠어요”

최현웅 어린이
강월초등학교

하나님,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배우는데
남과 북의 친구들이 사이좋게 지낼 날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요즘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가뭄이 심하대요.
어려울 때 바로바로 도와주면 좋을텐데
그럴 수 없나봐요.

하나님, 왜 도와주는 것을 다른 나라에게 허락받아야 하나요?
남과 북이 힘들고 배고플 때 언제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남과 북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다 같이 잘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께욱 들어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실 거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5

“어느 무지렁이의 기도”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분단과 전쟁과 냉전의 상처를 간직한 채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땅의 무지렁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꿈 같이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공동의 평화를 설계하는
‘희망제작소’가 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모든 대립과 갈등의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서로를 향해 용서를 선언하므로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를 향해 어깨동무하게 하옵소서

힘을 사랑하는 주변 강대국들이 전쟁의 연습을 멈추고
한반도를 향한 탐욕과 경쟁의 마음을 비우므로
평화공존에 이르는 길을 함께 열어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의 일곱 세대들에게
분단의 갈등과 고통을 대물림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마음 속에
DMZ에서 펼쳐질 세계생태평화축제와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의 비전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구원과 해방의 하나님,
분단과 냉전의 질곡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세상을 꿈꾸는
이 땅의 무지렁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드리는 기도 속에
분단과 냉전으로 상처 입은 민족을 향한
사랑과 용서, 치유와 화해, 평화와 상생의 갈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끝이 아니었듯이
분단이 하나님이 이끄는 우리 민족 역사의 끝이 아님을 믿게 하옵소서

제국의 압제 아래 고통 당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내려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분단의 굴레를 벗기시고 온전한 구원과 해방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남과 북, 그리고 온 세계가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경작하며
분단과 냉전을 넘어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이루는
판문점 평화프로세스의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간증 1

이산가족의 아픔

- 향린교회 조현정 목사 설교 중에서

우리 국민 가운데 4분지 일이 이산가족입니다. 이 말은 아직도 남북의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함께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라났던 형제나 자매를 원수라고 부르도록 강요받는 비정상 사회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남북분단으로 인한 아픔의 사연들을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유00집사님 가정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남북화해운동에 앞장서시는 것은 바로 집사님이 어렸을 때 겪은 비극적인 한 사건 때문입니다. 몇 년 전 한 잡지에 집사님의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일제시대 집사님의 부모는 조선 땅에서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원자폭탄이 투여된 나가사키에서 살았는데, 폭탄이 떨어질 때 산에 굴을 파고 숨어 있어 다행히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그레 집사님은 나가사키에서 태어나 광복을 맞이해 귀국선을 타고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둘째 누이는 남편의 고향인 남쪽 당진에서 살게 되고 나머지 가족은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게 되어 북쪽 평양 사동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13살이었습니다.

집사님의 회고입니다.

“언제나처럼 대동강 옆 개천에서 동무들과 미역도 감고 놓고 있는데, 군복에 총을 메고 우리 쪽으로 군인들이 오는 거야. 국군 간호장교 대위인 여군 한 명이 앞서고 남자 호위병 서넛이 카빈총을 들고 뒤따르고 무서웠지.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어머니 집이 어디냐고 물어 보는거야. 자세히 보니 당진에 살던 둘째 누이야. 어이구 이 녀석 많이 컸네. 그러면서 께안더라고, 반가웠지. 그리고 집에 함께 들어가는데 동네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려왔지.

그때 셋째 누이가 둘째 누이 들어오는 걸 봤대. 당시 인민군 간호장교 소좌였던 셋째 누이는 인민군과 함께 후퇴하지 못하고 집에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누이는 군의관 장교인 사귀는 남자의 영향으로 인민군 간호장교가 되었고 둘째 누이는 어릴 때부터 나이팅게일을 존경해 국군 간호장교가 되었던 것이다. 우리 엄마가 빨리 숨어라 해서 인민군 누이는 치마저고리를 입은 채로 장롱과 벽 사이 좁은 틈에 숨었지. 혹시라도 장롱 속이 보이지 않게 넷째 누이가 가로막고 있었지. 어머니 아버지는 딸이 오니까 반가우면서도 한편 불안한 거야. 서로 반가워하고 인사하고 있는 와중에 숨어 있던 인민군 누이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온 거야. 국군 누이를 핏줄보다 적으로 생각했나봐. 죽여 버리겠다고 외치면서 권총을 들고 국군 누이를 향해 겨눴어. 국군 누이는 멍하니 서 있고 뒤에 서 있던 호위병들이 인민군 누이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

나는 누나들 다릴 붙잡고 영영 울었지. 금방 누구라도 죽을 것 같았으니까. 자식들은 울면서 바짓가랑이 잡고 말리고, 어머니는 왜들 그러냐고 통곡을 하면서 절대 방아쇠 당기지 마라. 니들 중 한명이라도 죽는 거 원치 않는다. 당장 총을 내려놓아라 말리셨는데, 그게 어머니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었어. 동네 사람들 몇몇은 방에 들어와 있고 문 밖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방 안 상황이 험악했지. 이게 딱 우리 민족의 아픔이고 현실이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국군 누이가 호위병에게 총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그럴 수 없다고 머뭇거리자 단호하게 재차 외쳤다.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어’ 그제서야 호위병들이 총을 내려놓았고 인민군 누이도 총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모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군 누이에게 말했다. ‘오늘 이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작은애를 도망하게 하자. 동네사람들도 다 못 본 거다.’ 국군 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인민군 누이는 치마저고리 차림 그대로 뒷간으로 난 쪽문을 박차고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것이 가족이 본 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지.”

그리고 1.4후퇴가 시작했고 국군 누이가 중공군이 몰려오니 내려가자고 했고 그때 같이 갔으면 안전하고 빠르게 피난할 수 있었지만 부모님들은 인민군 셋째 누이를 두고 갈 수가 없어 계속 버티고 버티다가 늦게 피난길에 올랐고 이때부터 이산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전까지 부지런했던 아버님은 그때부터 허구한 날 술만 마셨고 어느 날 셋째 누이를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메리야스 보파리 장사를 하시다 길에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또한 셋째 누이를 한번 보고 죽으면 원이 없겠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께서는 이런 비극적인 가족사를 안고 있지만, 처음부터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것은 아닙니다. 집사님은 자신이 변화된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1989년 임수경이 텔레비전에 나오던 때야. 한참 통일바람이 불던 때였잖아. 그때 일하던 중에 우연히 TV를 보는데 임수경이가 ‘우리는 하나다’라고 부르짖고 어릴 때 뛰어놀던 대동강, 모란봉, 평양 시가지가 나오는데 셋째 누이 생각이 나면서 충격을 받았지. 그래서 연세대학교 집회에 한 번 가본거야. 거기서 문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열사들 이름을 하나씩 부를 때,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 난 그 전까지 데모하는 학생을 보면 폭도들이라고 했거든. 그날 정말 통곡을 했지. 김도향의 노래 있잖아.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딱 그런 놈이었어.”

MARCH
Week 2

Prayer for Peace 4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live well together”

Choi Hyun-Woong

Seoul Gangwol Elementary School, Seoul, South Korea

Gracious God,
In school, we learn that
we should get along well with our friends.
When will the day come wh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friends will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Merciful Lord,
We are told by adults that the drought is severe in North Korea.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help whenever they need help,
but we cannot help.

Almighty God,
Why do we need to get permission from some other country
when we want to help each other?
Please help South Korea and North Korea be the kind of good
friends that, whenever it is difficult for either of us or whenever
we are hungry, we can help each other.

I pray that we Koreans in the South and the North learn to live
well together in harmony.

Lord, help us now! In Jesus' name, we pray.

Prayer for Peace 5

“Prayer of an Earthworm”

Rev. Dr. Lee Hong-Jung
General Secretary of NCKK

* The word 'earthworm' is used in this poem as a collective image or metaphor of minjung, a deep resentment-ridden people.

God of life and peace,
For those storing up the wounds of division and war,
Standing on the brink of despair,
Please listen to their prayers, the prayers of the earthworms.

As if in a dream, the inter-Korean and North Korea-US summits
that have come,
For laying the groundwork of the common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Let them become the “Factory of Hope.”

May South and North lay down all confrontation and
the spears and shields of conflict!
Declaring to each other a proclamation of forgiveness, and
May the healed and reconciled Korean peninsula stand
shoulder-to-shoulder!

May the surrounding superpower nations, who love their power,
cease the practice of war!
And empty themselves of their greed and competi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Let us open the path together toward peaceful coexistence.

For the future seven generations that will live on this earth,
May the foolishness of the suffering and the conflict of division,
No longer continue to be repeated!

In the hearts of the children and youth of this land,
May we hold a world ecological peace festival in the DMZ!
And may the vision of a North East Asian Common House be
overflowing!

God of salvation and liberation,
Hear the prayers of the earthworms of this land,
Who live with the shackles of division and cold war,
Who dream of the peaceful world that God desires.

In the prayers of the churches of this land,
For the people of the nation wounded by division and cold war,
May love and forgiveness, healing and reconciliation,
peaceful co-existence overflow!

As Jesus' death on the cross
Was not the end of God's history of salvation.
Let us believe that division will not be the end of God leading
our nation's history.

Hearing the cries of the Hebrew slaves suffering
under the oppression of the empire,
O God, who came down to lead the history of the Exodus,
Please remove the yoke of division and give us
the grace of complete salvation and liberation.

So that South, North and the world may cultivate
a spring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eyond the division and the Cold War,
to realize the history of salvation and liberation,
Please stand alongside us at the new starting line.



Story of Faith 1

Pain of the Separated Family

- From a sermon of Rev. Cho Hun-Jung (Hyanglin Church)

About one quarter of Koreans have been separated from families since the Korean War. This means that many people of two Koreas still live in an abnormal society where they are forced to treat their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as enemies. Many families have some stories of the pains caused by the division, but today I want to talk about Mr. Yoo. Even though he is eighty-year-old, he is at the forefront of the inter-Korean reconciliation movement. A tragic incident of his childhood has led him to the path of reunification. A few years ago, indeed, his story was published in a magazin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Mr. Yoo's parents crossed over to Japan because they can hardly make ends meet in Chosun (Korea). They lived in Nagasaki, Japan where the U.S. detonated the atomic bombs along with Hiroshima, Japan, but fortunately, they burrowed and hid in a mountain when the bombs fell so they did not harm.

He was born in Nagasaki, and he came to Chosun (Korea) on a return ship after Korea gained its independence after 36 years of

occupation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One of his sisters lived in Dangjin, South Korea, with her husband, and the rest of our family lived in Sadong, Pyongyang, North Korea where his father worked in a coalmine company. Then the Korean War broke out. At that time, he was just 13 years old.

He recalls the tragic incident that happened in his family,

As always, when I was playing with my friends in a stream by the Daedong River, a group of soldiers carrying a gun approached us. A female captain of the Army Nursing Officer of South Korea followed by male guards came to us. We were very scared. She asked us where my mother's home is in the town. Looking closely, I recognised that she is one of my sisters who has lived in Dangjin, South Korea. She said to me by hugging me: "You have grown so much." I was very happy to see her. So we walked to home together, and neighbours in the town also came to our place as they were curious to see what will happen. Then one of sisters saw that my sister who was the Army Nursing Officer of South Korea stepped in the front yard of our home. At the time, she is the head of the nursing officer of North Korea. She was hiding herself in our place without retreating with the army of North Korea.

My sister who is the head of the nursing officer of North Korea became a military nurse officer under the influence of a man who was a medical officer whereas my another sister who is the captain of the Army Nursing Officer of South Korea actually became a nurse in honour of Nightingale from her early age.

My sister who is the head of the nursing officer of North Korea hid herself in a narrow gap between the dresser and the wall. My younger sister was blocking my sister who is the head of the nursing officer of North Korea. My parents were so happy to see my sister,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very anxious. While they were greeted each other, my sister who is the head of the nursing officer of North Korea had a lump in her throat and jumped out of the closet. She regarded her sister, who the captain of the Army Nursing Officer of South Korea, as an enemy not a family member, grabbing her pistol and aimed at her sister. A guard standing behind my sister who is the captain of the Army Nursing Officer of South Korea also aimed the gun at the other sister.

I grabbed both sisters' legs and cried loudly. Anyone seemed to die soon. We were crying together, and my mother also cried and restrained the two sisters from pulling the triggers, saying that she doesn't want any one of my two sisters die. We tried to break up the fight, insisting to put down the guns right now. Some people were in the room and some people looked inside the door. A tense atmosphere reigned in the room. This is the pain and reality of our nation.

I don' know how long it continued in this strange condition. My sister who the captain of the Army Nursing Officer of South Korea ordered the guard to put down the gun. But he hesitated that he could not do it. My sister once again called out to put down the gun. Then, the guard put down the gun, and my sister who is the head of the nursing officer of North Korea also dropped the gun. My parents said to my sister who the captain of the Army Nursing

Officer of South Korea: “Let us consider nothing happen today, and let her run away! Let us also consider this scene has not seen by anyone of our neighbours!” My sister who the captain of the Army Nursing Officer of South Korea nodded her head, and my sister who is the head of the nursing officer of North Korea kicked a small door backward and disappeared. That was the last look of my sister.

During the 1.4 retreat, my sister who the captain of the Army Nursing Officer of South Korea asked my parents to evacuated to South Korea as the Chinese forces crossed the Yalu and entered the war. If we evacuated together at that time, we could evacuate safely and quickly, but our parents couldn't leave my sister in North Korea, so we continued to hold on to the evacuation route and then eventually became a separated family. My family evacuated to Busan, but my father, who had been a good man until then, drank every day and died, leaving one wish that he could die after seeing my sister the head of the nursing officer of North Korea. My mother died on the street while selling underwear in the market. Before she died, she also used to say that if she died after seeing my sister, then she would have no resentment.

His family story is such a tragic history, but he was not interested in the activities of reunification until a moment of personal transformation. He described his experience of transformation in the following way:

It was 1989 when Lim Soon-Kyung was on the TV when the atmosphere of unification raised up. While I was doing something,

I accidentally watched the TV and was shocked by hearing her saying, “We are one country” and by seeing some nostalgic place my hometown, Daedonggang, Moranbong, and Pyongyang, where I wa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and then my sister left in North Korea came to mind. I went to a rally held at the Yonsei University. There, when Pastor Moon Ik-Whan came in front and called the names of the activities one by one, and I repented at that very moment. I used to label and explicitly define those students as riots. But I was so touched and moved deeply. Do you know Kim Do-Hwang’s song, “I Lived Like a Fool”? This song exactly describes my life before I experienced the transformation.

3월 3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6

에릭 와인가드너(Erich Weingartner)
캐나다루터교회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명령한 대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평화협상보다
전쟁을 도모하는 데 익숙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의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음을 고백합니다

70년의 전쟁 후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가능하다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의와 평화를 증진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노력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린 가슴과 마음으로 의심과 증오를 극복하도록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되신 주님,
화해의 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반도에, 그리고 곤경에 처한 모든 세상에도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7

“남북의 화해를 위하여”

암브로시오스-아리스토텔리스 조그라포스
(Metropolitan Ambrose-Aristotle Zographos) 대주교
정교회 한국대교구장

자비로우신 주님,
남과 북이 전쟁의 재앙이 시작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당신의 뜻과 상반된 분단을 경험하고 있음을
회개와 참회의 정신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한반도 전쟁 종식을 바라는 죄 많은 종들의 소리를 들으사
분단된 이 땅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평화와 화합만이
나라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적대감은 인류뿐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뜻과 상반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강대국의 마음을 감화하사 그들로 하여금 갈등을 종식시키고
그 어떤 지정학적 이익보다 한반도의 이익과 평화를 고려하게 하소서.

주님,
평화의 주님이 지혜와 빛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와
선익과 화합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에 통일된 한반도를 넘겨주어
그들이 전쟁의 두려움 없이
사랑과 평화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도우미자 능력이신 주님,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지금부터 영원토록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Prayer for Peace 6

Erich Weingartner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Canada

God of love,
We confess
that we have been unable to love our enemies,
as you have commanded.

We confess
that we have been more efficient in waging war than
in negotiating peace.

We confess
that we have lost our trust in your guidance
as the Lord of history.

Grant us faith
that peace is possible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after 70 years of war.

Grant us hope
that our feeble efforts to promote peace with justice
will bear abundant fruit.

Grant us love
that encourages us to overcome suspicion and hatred
with open hearts and minds.

Prince of Peace,
help us to discover the truth in ourselves so that
we can become agents of reconciliation;
pour your mercy upon Korea,
and likewise on the rest of this troubled world.
Amen.



Prayer for Peace 7

“To End th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etropolitan Ambrose–Aristotle Zographos
of the Korean Orthodox Church

Most merciful Lord, we confess to You, in a spirit of repentance and contrition, that even though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atastrophic for our Country civil war, we are still experiencing the drama of the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mething which is against your Holy Will.

Lord, we ask you to forgive us and listen to the voices of your sinful servants praying for the end of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our hearts and our countries may be once again united.

Lord, help us to fully acknowledge that only peace and harmony can safeguard the progress of a nation. Hostility is contrary to the very nature of the human being and Your holy will.

Lord, illumine the minds and hearts of the powerful of this world, so that they may assist in bringing an end to this conflict and considering the interests of the Korean Nation above all other geopolitical interests.

Lord, we beseech you, the Lord of Peace, grant us your wisdom and light so that we may all work together for peace, goodwill and harmony among us.

Lord, make us worthy of handing over to the next generations a united Korean Peninsula, so that we may all live without the fear and agony of war, but with love, peace and security.

Because, Lord, you are our help and our power, and to you we ascribe glory, together with the Father and the Holy Spirit, now and ever and to the ages of ages, Amen.



3월 4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8

육순중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PROK) 총회장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끄소서. 우리 민족은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천년동안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일제 감정기가 끝나면서, 외세에 의해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나뉘었을 뿐만 아니라, 냉전시대의 대리전 같은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은 남과 북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여전히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70년 넘는 분단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크고 작은 평화의 몸짓이 있었습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의 기본원칙을 합의하였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6월에는 평양에서 감격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6.15 공동선언’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 남북정상에 의한 ‘10.4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의 화해분위기에 힘입어 남과 북의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던 평화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하였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평화의 출구를 찾는 듯 했으나 여전히 한반도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그동안의 모든 남북공동선언의 기초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주인인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우리의 생각이고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분단이 외세에 의한 것이었듯이, 우리의 통일을 향한 길에도 외세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목격합니다. UN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시도가 간섭을 당하고, 남북 철도연결사업,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비군사적 비무장지대의 출입도 통제당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자국의 이익에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당사자인 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남과 북이 어떤 외세의 간섭에도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평화와 통일을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분단극복을 위한 평화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분단의 상처를 인해 여전히 갈등하는 남남갈등의 깊은 골을 메우는 평화의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평화와 통일의 길로 이끄소서.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9

“북의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기도”

한영수 회장
한국YWCA연합회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
온전히 나를 내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나눔과 베품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한반도에 발을 딛고 함께 살아가지만
체제의 벽에 가로막혀
서로의 아픔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를 붙잡히 여겨주소서.

경제 제재와 자연 재해라는 이중고 속에서
누구보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의 어린이와 여성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북녘과 남녘의 어린이들이 맘껏 어깨동무하고
여성들이 기쁨으로 손에 손잡으며
생명평화세상을 힘있게 열어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0

“청소년들이 평화와 통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세요”

강슬기
연수여자고등학교

하나님,
저희를 남과 북이 나누어진 한반도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의 평화를 일구어가는 일꾼으로 부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 저희 청소년들이 학업과 성장에 열심을 다하면서도
틈틈이 나라와 이 땅의 평화를 걱정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눈을 뜨게 하셔서
크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의 참 평화와 통일을 위해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가올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시대의 미래일꾼으로 자랄 수 있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yer for Peace 8

Rev. Youg Soon-Jong

Moderator, 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Republic of Korea

Gracious God,

Lead us to peace and reunification! Our nation was once one country over thousand years during the Koryo and Joseon dynasties. However, foreign forces divided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end of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Our nation is not just divided into two; but it went to war as if it displayed the pattern of the Cold War. The Korean War has deeply damaged both the North and the South, and we are not able to make progress towards peace and reunification because of the deep wounds.

Lord, heal our deep wounds!

God of peace,

In the course of more than 70 years of division, there has been some efforts in the peace process. In 1972, we established the three principles of reunification, 1) independence, 2) peace, and 3) nation-wide unity in the 7.4 South and North Korea Joint Statement. In December 1991, we also signed the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June 2000, the historic inter-Korean summit was held in Pyongyang, and the “6.15 Joint Declaration” was made. In 2007, the “10.4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was adopted. Eventually, due to the atmosphere of reconciliation after the 2018 Pyongchang Olympics,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adopted the 4.27 Panmunjom Declaration. Nevertheless, the path of peace that we expected was more difficult than we thought.
Lord, have mercy on us!

God of salvation,

The foundation of all the South-North joint declarations has been the principle of national independence, which determines our own destiny. We still confess that we are the masters of this land and we have to work together for our self-reunification. Sadly, we see foreign forces on our path to reunification, just as the foreign powers divided our division. Within the framework of UN sanctions, the attempts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to break through the inter-Korean relations, including the inter-Korean railroad projects and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have been interfered by the foreign forces. God! Guide the neighbouring powers to seek the interests of the Korean people above their own interests instead! Above all, May the South and the North take courageous steps toward peace and reunification with deep trust and patience in each other in spite of any foreign interference. May the churches of Korea carry the cross of peace, becoming a bridge of peace that fills the deep gaps of the South-South conflict because of the wounds of division!
Lord, lead us to peace and reunification! Amen!

Prayer for Peace 9

“Prayer for Women and Children in North Korea”

Ms. Han Young-Soo
President, Korea YWCA

God of life,
We give you thanks for your love that you have given yourself on the cross. May the love of Christ overflow our lives!

Have mercy on us who are blocked by the walls of division and unable to care for each other's pain.

God of mercy,
In the midst of economic sanctions and natural disasters, may you comfort the children and women who are doubly burdened. May our hearts and hands reach them!

God of peace,
May the North and South Korean children walk shoulder to shoulder and women to join hands with joy. Help us to open up a world of life and pea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came to us with perfect love, we pray.
Amen!

Prayer for Peace 10

“Prayer of Young People for Being God’s Instruments of Justice and Peace”

Ms. Kang Seul-Gi
Insu Girls’ High School, Incheon, South Korea

God of peace,
We confess that you have sent us to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North and the South were divided,
to become a peacemaker.

God of justice,
Even though we are students who are faithful to study,
help us to contribute to the peace process.
Open our eyes to see the greater things in the Kingdom of God!
Help us to devote ourselves to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God of mercy,
Pour out your wisdom and power so that our young people may
take the lead in the coming era of reunification! Help us grow as
your people who build the Kingdom of God on earth.
May the young people be instruments of your heavenly peace!
We pray in Jesus’ name, Amen!

3월 5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1

텔메소스의 욥 대주교(Archbishop Job of Telmessos)
정교회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 놓는다. 너희에게 나의 평화를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가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히 당신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주님의 평화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특히 현재 분쟁 중이거나 전쟁 중인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라들 사이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웃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을 갈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모든 분쟁을 없애고 불화에 대한 모든 유혹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시민 당국에 지혜를 허락하시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소서. 위협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난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존경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당신은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 영혼의 구주이시며, 우리는 주님에게,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와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우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 지금 그리고 영원히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2

이진권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새봄교회

살롬의 하나님!

저희에게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70년 전 한반도에서 형제자매를 서로 죽이고 싸우는 전쟁의 비극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증오와 불신, 폭력의 악령이 지금까지도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증오가 아닌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폭력의 악령이 아닌 평화의 영이 저희 심령가운데서 샘솟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 마음이 깨끗해지고, 저희보다 앞서서 갈라진 남북한을 하나로 연결하시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공동체로 이끄시는 주님의 살롬의 경륜을 보게 하시고, 그 초대에 응답하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은 세상의 폭력과 죄악을 없애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비폭력 평화의 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세계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혜롭고 담대하게 평화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소서. 불의하고 폭력적인 분단체제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를, 정의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체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를 말하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분단의 갈릴리 땅에서 새로운 평화의 씨앗을 심게 하소서.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시여!

70년 동안 너무도 다르게 살아온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계의 정의로운 평화와 화해, 일치를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민족과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소서.

이 일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에 더욱 깨어 있게 하시고, 열려 있게 하소서.

증언 1

제주4·3에 대한 이해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들어가며

70년 전 제주도민의 전체 인구의 약 10%인 3만 정도가 희생된 사건인 제주4.3이 어떻게 국민들이 전혀 모르게 되었을까?

화산도의 저자 김석범은 이것을 ‘기억의 자살’이라고 표현했다. 제주4.3은 입 밖에 내놓을 수 없는 일, 알고서도 몰라야 하는 일, 공포에 질린 섬사람들 자신이 스스로 기억을 망각으로 들이쳐서 죽인다고 했었다.

제주도민에게 그 동안 제주4·3은 철저히 금기어였으면 자식에게조차 보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 부모들은 “속숨혀라!”(조용히 입다물라는 제주어)고 하는 것이 전부였다.

민주화가 되기 전 반세기 동안 제주4·3은 철저히 권력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진실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4·3 폭동이 발생하였다고만 교육을 했던 것이다.

2000년에 들어와서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

법(이하 제주4·3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3년 진상보고서가 정부에 의해 발간되면서 그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국가추념일로 지정일로까지 지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제주4·3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해방된 제주

일제강점기 시대 제주는 일본의 왕래가 육지 가는 것보다 쉬웠다. 일본을 왕래하는 배편이 제주도를 전역을 돌면서 인력을 수송하였던 것이다. 해방이 되면서 당시 인구가 20만 정도였는데 6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제주도 다시 돌아와 해방된 제주 건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는 제일 오래까지 존속하였고 미군정에서도 초기에는 존재를 인정하고 협력적이었다. 군정의 정보요원으로 근무했던 E.그랜트 미드는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모든 면에서 제주도에서의 유일한 당이었고 유일한 정부였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군정이 친일, 우익세력을 앞세우면서 인민위원회와는 대립을 하게 된다.

해방 후 제주도민의 일상의 생활은 상당히 고달팠다. 많은 인구가 일본에서 돌아왔으나 재산을 전혀 가지고 올 수 없었고 돌아온 고향에서는 일자리가 없었다. 생필품과 쌀이 모자라 물가가 폭등하였는데 미군정의 대책은 전무하였다. 일제에서 관료로 있던 자들이 여전히 관료로 등용된 가운데 이들은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경찰 모리배들은 도민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켰다.

3.1절 기념대회 발포사건

1947년 3.1절 기념대회는 제주4·3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 여

겨진다. 해방이 되었으나 또다시 미군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증폭된 불만은 3.1절 기념대회를 통해 분출하게 된다. 각 읍면에서 별도의 기념대회가 개최됨에도 북국민학교에서 개최된 기념대회는 제주도에서 유래 없는 3만의 인파가 모여 '3.1정신 계승하고 자주독립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국민학교에서 기념대회를 마치고 관덕정을 시위대가 거의 빠져나갈 즈음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경찰은 다친 아이를 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나갔다. 이에 흥분한 군중들이 돌맹이를 던지고 항의하며 경찰을 쫓아갔고 경찰이 경찰서로 도망가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육지에서 내려온 응원경찰들이 시위대가 경찰서를 습격하는 것으로 오판하고 발포한 것이다. 이 총격으로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대부분이 등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봐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총상을 입은 사람 중에는 국민학생과 젓먹이 안고 있던 20대 여인도 포함되어 있다. 발포 사건은 분명히 경찰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다. 이에 제주도민의 민심이 들끓었다.

3.10총파업과 무자비한 탄압

폭발한 민심은 1947년 3월 10일 총파업에서 드러났다. 노동자, 학생, 통신기관, 운송기관, 공무원 심지어 경찰까지 전 도민의 90%가 파업에 동참하고 발포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한다. 당시 제주 출신 박경훈 도지사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며 항의성 사퇴서를 제출한다. 하지만 미군정은 경찰의 책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탄압을 한다. 제주도민의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억압하면서 사태를 해결하고자 했다. 3.1대회 참가자 검거자 수는 한 달 만에 500여명이며 4.3봉기 이전까지 2,500여명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를 하면 탄압하였다.

박경훈 후임으로 유해진 도지사가 오면서 서북청년회가 제주로 오게 되는데 제주도민들은 이들의 횡포로 치를 떨었다. 북한에서 토지개혁과 친일청산 과정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자들로 구성된 서북청년회는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반감을 드러냈고, 경찰에 소속이 되었지만 급료가 없어 제주도민을 약탈하면서 생존을 하였다. 전 제주도민이 좌익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제주도민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과정에 1948년 3월 경찰에 연행됐던 청년 3명이 연달아 고문을 받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도민 사회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남쪽만의 단독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인 1948년 4월 3일 남로당제주도당이 중심이 되어 제주도내 경찰서, 서북청년회 및 우익인사에 대한 습격이 발생한다. 비밀리에 운영 되던 조직이 노출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남로당제주도당을 중심으로 결성된 무장대가 경찰과 서청의 폭압에 대한 저항, 단독선거 반대를 기치로 봉기를 한 것이다. “탄압이 면 항쟁이다!”고 선언하며 제주도내 24개 경찰서 중 12개 지서를 습격하여 경찰 및 우익인사 14명이 사망하게 된다.

이때 무장대의 규모는 350명 정도이며 4.3 전 기간을 통해서 500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기는 일본식 소총 몇 정과 수류탄 몇 발 그리고 죽창이 전부였다. 미군정은 북한과 연계된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으로 규정하였으나 당시 국방경비대는 사태의 본질은 제주도민과 경찰, 서청 사이의 충돌이라고 이해하고 개입을 꺼려했다. 하지만 미군

정의 지휘를 받는 군은 사태 진압을 위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당시 9연대장인 김익렬 중령은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장대 사령관 김달삼과 4.28 평화해담을 성사시켜 협상에 의해 사태를 종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에 의해 조작된 5월1일 오라리 방화사건에 의해 협상은 결렬된다. 오라리 방화 사건은 평화회담이 성사된 이후에 미군정이 무장대에 일어난 방화 사건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방화 장면을 촬영하여 제주도를 레드아일랜드라고 적극 홍보하였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김익렬연대장을 해임하고 박진경연대장을 후임으로 임명한다. 이후에는 강경진압에 의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박진경은 미군정장관 딘 소장의 총애를 받던 인물로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그는 과도한 진압을 거부하는 문상길 중위 등에 의해 피살된다. 문상길 중위 등은 “민족의 반역자를 처형하였다” 법정진술하였다.

5.10 선거와 이승만정부수립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1948년 5월 10일 선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지역 3개 선거구 중 2개의 선거구에서 투표수 미달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이승만정권은 자신의 정통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여기고 제주도에 대해 철저한 탄압을 지시한다.

1948년 10월 17일 송요찬 연대장을 포고령을 통해 “해안선 5km 이상에 대해 소개령을 내리고 그곳을 출입하는 사람을 무조건 사살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1948년 11월 17일 불법적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지게 된다. 제주4·3사건 중에 발생한 대다수 희생자

가 1948년 11월부터 1949년 3월까지에 집중되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재판도 근거도 없이 어린아이, 노약자, 부녀자 가릴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자행하였다. 전체 희생자 중 10세 이하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12%에 달하며, 여성의 비율의 21.3%에 달한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과도한 진압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수치이다.

희생된 숫자도 엄청나지만 그 토벌과정에서 가족 중 사라진 사람이 있으면 대신 죽이는 대살을 하고, 부녀자에 대한 겁탈을 하는 등 자행된 야만적인 행위는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1949년 3월에는 무장대 세력이 거의 궤멸상태에 이르게 되고 6월 7일에는 김달삼에 이어 무장대 사령관에 오른 이덕구가 사살되면서 실질적인 제주4.3이 종결되는 듯했다.

예비검속과 수형인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또다시 제주4·3의 비극은 재연된다. 육지에서는 보도연맹에 연루된 사람들에게 대해 예비검속하였고, 제주에서는 4.3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았거나 가족이 입산한 경우 등 요시찰 대상자에 대해 검속을 실시한다. 이로 인해 제주도내 4개 경찰서에 예비검속된 인원은 1,120명이었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수장되거나 비행장 등에서 암살되었다. 또한 4.3사건으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전국 형무소로 끌려갔던 2,500여명도 전쟁 발발이후 행방불명되었으며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규모

당시 제주도민 27만명 중 1/9에 해당하는 3만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희생자로 공식 결정된 인원은 14,232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0,245명, 행방불명 3,575명, 후유장애 164명, 생존수형인 248명이고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84.3%, 무장대에 의한 희생이 12.3%이다.

희생자 신고자 수가 예상 인원보다 적은 것은 가족 전체가 몰살된 경우도 많고 마을 전체가 희생된 경우도 있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강요당한 침묵의 세월 50년

제주4·3사건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에 의한 4.3폭동’이라고 50년 동안 규정되고 교육되어 왔다. 4.3이라는 이름이 말하듯 1948년 4월 3일에 무장봉기에 의해 파출소와 우익인사가 피습을 당했던 것을 근거로 무장대세력과 대다수 제주도민을 폭도로 매도하여 왔다.

피해가족과 4.3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초를 겪어야 했으며 너무나 아픈 상처를 가슴에 묻었던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에조차 아무런 말씀도 할 수 없었고 기나긴 침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을 통해 4.3의 기점이 1948년 4월 3일이 아니고 1947년 3월 1일임을 천명하였고, 진상보고서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대다수 민간인의 희생된 사건임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사과를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불법재판으로 전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행방불명된 분
들에 대한 진상규명, 유해발굴과 DNA분석을 통한 신원확인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개별보상 등 해결과제들이 있으며 책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4·3사건의 이름은 아직도 명미정

제주4.3평화공원 전시관에 들어서면 맨 처음 만나게 되는 조형물이 백
비이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비석이 누워있다. 제주4·3은 보는 시각에
따라 ‘4.3폭동’‘4.3항쟁’‘4.3민주화운동’‘4.3통일운동’‘4.3학살사건’등 다
양하게 불리고 있다. 하지만 처한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격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명을 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방 이후와 3.1발포 사건을 거쳐 저항했던 제주도민의 정신이 반영된
이름으로 명명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교회 88선언 30주년 기념 국제협의회 '평화를 심고 희망을 선포하다' 자료집,
54~57쪽.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eju_4.3_Peace_Park_-_Memorial_Wall.jpg



MARCH
Week 5

Prayer for Peace 11

Archbishop Job of Telmessos
Eastern Orthodox Archbishop of the Ecumenical Patriarchate

You said to Your disciples,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We come before You in humility and ask that Your peace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descend upon all people around the world, especially those currently in conflict and at war. Increase understanding and forgiveness between nations. Awaken the longing for a peaceful life in all those who are filled with hatred for their neighbor. Extinguish every dispute and banish all temptations to disagreement. Grant wisdom to civil authorities. Free those held captive, protect those in danger, and comfort those who are suffering and displaced. Implant in all of us reverence for You, and confirm us in love for one another. For You are the King of Peace and the Savior of our souls and to You we give glory together with Your eternal Father and Your most-holy, gracious and life-giving Spirit, now and ever and forever. Amen.

Prayer for Peace 12

Rev. Lee Jin-Gwon
Saebom Church(PROK)

God of peace,

We give you thanks for what you have given us the full blessings of life in a peaceful world. But Koreans went through the tragedy and suffering of war, killing brothers and sisters and fighting each other 70 years ago. Evil spirits of hatred, disbelief, and violence against each other have continued to crush the Korean Peninsula. Pour out your love upon us so we may overcome our hatred toward each other. May the spirit of peace, not the evil spirit of violence, spring up in our hearts.

May our hearts be cleansed, unite the two Koreas into one, and show us your Shalom that leads us to peace, reunification, and prosperity. Help us to respond faithfully to your invitation to a peaceful world.

Our Lord, Jesus Christ,

You died in the cross and opened the way of nonviolent peace to get rid violence and sin in the world. May the Christians in Korea and in the world carry the cross of peace boldly to build a peaceful Korean Peninsula! Help us to say “no” to unjust and violent

divisions, and “yes” to a just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Plant new seeds of peace in the divided Galilee (Korea) with the power of resurrection!

Holy Spirit,

May the North Korean and South Korean citizens, who have lived so differently for 70 years, respect the social cultural differences caused by the separation, and restore one another as one nation.

May we be born again into a nation that bears the priesthood for just peace, reconciliation, and unity of the world! For this, let the churches in Korea and the world be connected with one another! May we be more awake and open to the presence and activity of the Holy Trinity!

In Jesus’ name, we pray. Amen!



Witness 1

On the Jeju Incident

Mr. Yang Seong-Ju
General Secretary, Jeju 4.3 Family

Introduction

How was it that the 70-year-old incident, the Jeju Incident that killed approximately 10% of the Jeju population, 30,000 people, was left completely unknown to the rest of the country?

Kim Seokbum, the author of 'Hwasando' translated this as the 'self-slaughter of memories'. The Incident was not something to be spoken of and not something to be known. The terror-struck islanders forced themselves to completely rid their memories of the incident.

The incident was a taboo for the people in Jeju, and even their children were forbidden to hear or know of it. All parents would say was 'Soksumhura!', which meant to be quiet in Jeju.

For the past 50 years before Korea's democratization, authorities distorted the truth behind the Jeju Incident and none were taught

about the whole truth. All that was taught was that it was the Communists that led the ‘uprisings’ in Jeju.

The truth has begun to reveal since the 2000s when 4.3 special law (the Special Act on Jeju 4.3 Case Identification and Recovery of Victims) was enacted. In 2003, when the government issued a report on the truth of the incident, then did the public become aware of what happened. In 2014, the government designated April 3rd as a national Memorial Day, but still very few are well-informed about the Incident.

Jeju, Liberat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t was easier for the Jeju residents to travel to Japan than to mainland Korea. It was because ships from Japan navigated the Island to transport human labor. Jeju’s population was about 200,000 upon liberation but an extra 60,000 returned from Japan and took part in rebuilding the island. The People’s Congress in Jeju was the longest surviving in Korea. The US military showed efforts in the beginning to acknowledge the Congress. According to E. Grant Mead who worked as a security officer for the US military back then, the Jeju People’s Congress was the only existing party in the Island and in fact, the only existing government. But as time passed, the US military came into conflict with the Congress as it began to support the pro-Japanese and rightist groups.

Life in Jeju after liberation was hard. Many returned from Japan but returned with empty hands and many were left without jobs in

their hometown. Inflation soared from lack of daily necessities and rice but the US military provided no countermeasures. Those who served as public officers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ere re-appointed and therefore corruption was prevalent and the islanders were frustrated by frequent racketeering by the police.

March 1st Commemoration Shooting Incident

The March 1st (1919) Commemoration in 1947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he Jeju Incident. The growing resentment against the US military rule broke out during the March 1st Commemoration. Each village and town held their own separate Commemoration. In the North Elementary School, an unprecedented number of 30,000 participated and raised their voices to uphold the spirits of the March 1st day and fight for independence. After the Commemoration when the demonstrators were about to leave the Gwandeokjeong Pavilion, a child got hit by a horse hoof. The police who was riding the horse, however, simply did nothing and left. Enraged, the demonstrators threw rocks at the police and protest. Just when the policeman was making a run for his headquarters, there was gunfire. The police force from mainland Korea thought the demonstrators were attacking the police department and fired. Six died and eight were injured from the shots, and judging from the fact that most injuries were found on the back, the police probably shot those who were running away. Among the injured included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a woman in her twenties carrying her baby. The police were completely at fault for the shootings. And the people of Jeju were infuriated.

March 10 General Strike and Brutal Oppressions

The infuriated islanders went on a strike on March 10. Ninety percent (90%) of the population including workers, students, civil servants in the transportation and telecommunication department, and even the police requested punishment for the shootings. The then Jeju governor, Park Kyunghoon, took the blame and decided to resign from his position, protesting the shootings. The US military claimed the island as a 'Communist Island' and began oppressing the people. Rather than trying to resolve the issue, the US military decided to suppress the Islanders. In just a month, 500 people were arrested for participating in the March 1st Commemoration and by the April 3 Incident, approximately 2,500 were arrested.

Along with Governor Yoo Haejin, Park's successor, the North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also came to Jeju. Their despotism was unbearable for the Islanders. The Association consisted of those who left North Korea when the government went under land reforms and drove pro-Japanese out of the country, and consequently, they heavily resented the North. Though they were part of the police force they received no wages, so they plundered the Islanders. Because the Association strongly believed that all the Jeju citizens were leftists, they killed people without any sense of guilt.

In March 1948, when three young men were taken to the police and died of excessive torture, the islanders could no longer tolerate the violence and cruelty.

Armed Uprisings in April 3, 1948

On April 3, 1948, about a month before South Korea was to hold an ele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the Jeju South Labor Party led an attack on the police, the Northwest Korean Youth Association and the rightist headquarters. The Party initiated the attack for fear of having their secret organization exposed. The uprising's main aim was to protest against the oppression and the coming up elections. As they shouted, "suppression provokes protest!", they attacked twelve out of 24 police headquarters. Fourteen police and rightists died in the attack.

There were about 350 protesters, and from what we know about the events leading up to the April 3 Incident, the number did not exceed 500. Weapons used were limited to a small number of Japanese rifles, grenades, and bamboo spears.

While the US military saw the Incident as revolts by North-affiliated Communists, the National Defense Guard understood it as a conflict between the citizens and the police force and was reluctant to interfere. But under the US military rule, the Guards had no choice but to act.

Kim Ikleul, the then commander of the 9th regiment, wanted to resolve the issue peacefully through the negotiations with the commander of the armed demonstrators, Kim Dalsam, on April 28. But the talks failed when the US military framed the demonstrators for the May 1st Orari arson attack. In framing the demonstrators, the US military took pictures of the fire and publicly referred to

Jeju as a red island. The US military fired Kim for not following suit and appointed Park Jinkyung, as his successor. Park deemed suppression as the solution. As a trusted official of Major General Dean of the US military, Park claimed that “it would be fine to sacrifice 30,000 Jeju citizens to suppress the armed demonstrators.” He was later assassinated by lieutenant Moon Sanggil who opposed excessive crackdowns. In court, he testified as to how “he executed the nation’s traitor.”

May 10 Elections and the Lee Seungman Government

On May 10, 1948, the elections to form a national constituent assembly failed only Jeju as two out of three electoral districts in Jeju failed to meet the number of vote designated by law . The Lee Seungman government which began its rule on August 15, 1948, regarded such as challenge against his legitimacy and began to suppress the Islanders.

On October 17, 1948, through Colonel Song Yochan, Lee Seungman issued a decree stating “an eviction would be issued for areas within 5km of the coast and anyone who enters the area would be killed.” On November 17, 1948, an illegal martial law was declared, which led to indiscriminate slaughtering. Most of the casualties that took place during the Jeju Incident were concentrated between the November 1948 and March 1949.

During this period, children, the elderly and women were killed indiscriminately without the support of any judicial or moral explanation. Children under 10 and elders above 60 made up 12%

of the entire victim's population and women made up 21.3%. The numbers clearly show how the people were killed regardless of gender and age.

Such numbers, however, do not show in full extent how cruel and barbaric the suppressions were – family members were killed for another family members who disappeared or joined the uprising, and there were also severe rapes. As of March 1949, the armed demonstrators were almost and completely eradicated and by June 7, Kim Dalsam along with his successor Lee Dukgoo were killed, putting an end to the Jeju Incident.

Preventive Custody and Convictions

The onset of the Korean War spurred back the tragedies of the Jeju Incident. In mainland Korea, those affiliated with the Federation Protecting and Guiding the Public (National Guidance Alliance) were taken into preventive custody. People who were blacklisted, such as those tried in the court for the Jeju Incident or had family members flee to mountains, were also taken into custody. 1,120 people were detained in Jeju's four police stations and most of them were killed at sea or the military airports. Furthermore, about 2,500 people who joined the Jeju Incident were given jail sentences in illegal military trials. Since the Korean War they went missing, the truth on this has yet to be revealed.

Calculating Damage

Approximately a ninth of the 270,000 Jeju population back then

was victimized by the Incident. Officially about 14,232 people suffered casualties and among them, 10,245 died, 3,575 went missing, 164 traumatized and 248 under a life sentence. 84.3% was killed by the punitive force and 12.3% from the armed forces. Official numbers are lower than the actual casualties because in cases where an entire family or town was wiped out, the numbers are hard to predict.

50 Years of Forced Silence

For the last 50 years, Jeju 4.3 has been defined and educated as a communist riot. As the date April 3 shows, the single day incident (when armed demonstrators attacked the police and the rightist headquarters) was used to wrongly accuse the demonstrators and the rest of the Jeju people.

Family members of victims and those who tried to reveal the truth of the Incident had to endure long periods of hardship, and the generation that was forced to keep the secret even from their children had to suffer great pain too.

When the Jeju 4.3 Special Law was enacted in 2000 it was declared that the start of the incident was not on April 3 in 1948 but rather on March 1 in 1947. It was further declared that the Incident was where many Jeju citizens were victimized by state violence. Consequently, President Roh apologized to the people of Jeju.

There are still many unsolved issues such as the truth about people who went missing after being imprisoned from illegal trials, finding

the missing bodies and carrying out DNA identifications, and providing reparations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Lastly, inspections and punishment for those who committed crimes have not been carried out yet.

The Jeju Incident has yet to be properly named

The first sculpture one comes across when entering the Jeju 4.3 Peace Park's exhibition center is a white monument. Nothing is written on it. Depending on how it is perceived, the Jeju Incident is called various names ranging from 'April 3 Uprisings, April 3 Protests, April 3 Democratization, April 3 Unification movement, and April 3 Massacre'. Because positions markedly differ on the issue, the naming of the Incident is a difficult one.

The Incident should be named reflecting the spirits of the Jeju people who actively protested following Korea's Liberation and the March 1 Commemoration Shootings.

-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elebration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88 Declaration of the NCCK' pp70-73.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eju_4.3_Peace_Park_-_Memorial_Statues.jpg

4월 1주

2020 부활절 남북(북남) 기도문

- 4월 1주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2020 부활절 남북(북남) 기도문을 공유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겨울 속에서도 새 봄을 준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새 시대를 허락해주시기 간구합니다. 십자가 고난이 부활의 영광을 담고 있는 것처럼 한(조선) 반도의 역경 속에서도 새 역사를 열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과 기아,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 천재와 인재가 뒤섞여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의 뿌리에 인간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한(조선) 반도에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동족끼리 총을 겨누는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경험했으니 다시는 싸우지 않기 위해 이제는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게 하소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로 이 땅에서 전쟁의 기운은 몰아내고 평화의 기운이 되살아나게 하소서.

올해로 6·15 선언이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을 단지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내게 하소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불가역적 대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한(조선) 반도의 남북(북남) 관계가 다시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껏 부풀었던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들불처럼 타오르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소서. 좌절의 침울한 기운을 걷어내고 신선한 새 공기를 한(조선) 반도 전체에 불어넣어 주소서.

개성공단 여기저기에 다시금 공장의 불빛이 타오르게 하시고, 인적 끊긴 금강산 골짜기마다 화해의 걸음을 다시 내딛게 하소서. 이산가족의 평생소원을 들어주셔서 감격의 눈물로 이 땅을 적시게 하소서.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와 무기를 철수하는 평화의 걸음이 이어지고 확산되게 하소서. 정치와 사회 각 분야의 끊어진 교류를 회생시켜 주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과 북이 생명의 안전을 위해 협력하게 하소서.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속히 회복되므로 우리 모두가 일상의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부활은 생명·정의·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임당한 자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손을 맞잡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한(조선)반도 희년을 향한 부활의 거룩한 행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을 충만히 내려주소서.

이 세상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4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이 부활절 기도문은 남측 초안입니다.)

신앙 간증 2

용서의 순간, 은혜의 순간¹

서광선 박사

서광선 박사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 국가가 되기 전, 중국과의 북쪽 접경 지역인 강계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에 목회자가 된 서박사의 아버지는 일제의 침략에 거침없이 저항했고 이로 인해 그의 가족은 일제 말, 만주로 이주하게 되었다. 서박사의 아버지는 “너는 제국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면서 서박사를 일본 중학교에 진학하게 했다. 일본 학생들로 가득했던 교실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서박사는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 15일까지 이 중학교를 다녔다. 당시 일본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슬퍼하는 가운데 서박사는 애써 기쁨을 숨겼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와 함께 독립의 기쁨을 만끽했다.

일본이 한국에서 물러난 후, 서박사와 그의 가족은 고향인 강계로 돌아갔다. 1948년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진 후 그의 아버지는 공산당 정권을

¹ 이 글은 서광선 박사(은퇴목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NCKK와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한 글로 협력선교사 커트 에스링거(Kurt Esslinger) 목사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인터뷰는 그리스도연합교회/제자교회 세계선교국 주최, NCKK 화해통일위원회 협력으로 인터넷세미나를 통해 방송되었다. 서광선 박사는 1931년생으로 현재도 여전히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에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다.

공공연하게 비판했다. 당시 공산당 정권에 협력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조직되었고, 그의 아버지도 연맹에 가입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면서 조그련의 적대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골적인 언행은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이를 피하고자 서박사의 가족은 더 남쪽인 평양으로 이동했다. 일본이 항복하고 미국과 소련이 남북에 진주한 뒤 5년 후, 1950년 6월에 전쟁이 발발했다.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박사의 아버지는 실종되었다. 당시 19살이 되었던 서박사는 아버지의 소재와 안병을 염려하는 동시에 군대에 징집되는 것을 걱정해야 했고, 그와 그의 동생은 집 마루 속에 숨어 지내야 했다. 잠시 마루에서 나온 사이 징집기관에 붙들려갔지만 낯선 이의 도움으로 전장에서 죽을 뻔한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

1950년 8월, 마루 속이 답답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러 나온 사이 그는 군에 붙잡혔다. 트럭을 타고 신체검사장에 끌려가 군의관을 만나기 위한 줄에 섰는데, 놀랍게도 군의관이 “너 어디 아프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박사는 당시 자신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설명하며, “그 때 무슨 생각이었는지, ‘네, 아픕니다.’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아픈 데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그 군의관이 ‘아니, 너 아프다.’ 하면서 신체검사 불합격증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 의사는 난생처음 본 사람이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군의관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답을 찾자면, 하나님이 도우신 걸까요?”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서박사는 신체검사 줄을 떠나 걸어 나왔고 같이 붙잡혀온 남동생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동생은 “형, 어디로 가는 거야? 저쪽으로 가야 돼. 우리, 전쟁에 끌려가게 되겠지.”라고 이야기했고, 서박사가 동생에게 신체검사 불합격증을 보여주자 동생은 “그래, 형은 군대 가면 안 되지. 내가 대신 갔다 올게.”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동생을 보지 못했다. 서박사는 이 일을 통해 “왜 내가 여기에 있을까?

왜 나를 살리려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라고 자문하게 되었다. 서박사는 이 질문을 평생의 질문으로 삼아 겸손히 생각하고 긴 세월 기도하고 있다.

미국이 북쪽으로 진격하면서 그의 가족은 드디어 아버지의 행방을 찾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대동강 강가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았다는 전갈을 듣고 아버지를 찾게 되었다. 다른 네 명의 목사들과 한 밧줄로 묶여서 총살당한 아버지의 시신에는 총알 자국과 찢자국이 가득했고, 서박사는 아버지 시신을 안고 분노하며 강한 복수심을 품었다고 한다.



그 후 서박사는 남으로 떠나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해군에 입대했다. 입대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그는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미국 해군에서 만난 친구의 조언으로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다. 미국 학교에서 공부를 마칠 무렵, 서박사의 친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다음 계획을 물었고, 서박사는 한국 해군으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친구는 “아니, 너는 해군 타입이 아니야. 학자 타입이야.”라고 말했고, 친구의 도움으로 서박사는 몬타나에 있는 기독교 대학에 들어갔다. 서박사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1962년 뉴욕

의 유니온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그는 본회퍼의 옥중서한들을 읽고, 워싱턴에서 시민권 운동을 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에 대해 듣고, 신학생 친구들이 시민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자신의 원수에 대한 태도와 복수에 대한 열망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하며 자신을 신학적으로 시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원수를 갚는 것과 용서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찰하며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에 돌아온 그는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인권,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반공·친미주의의 이름으로 독재에 반대하는 노동자, 학생, 그리스도인 지식인들을 탄압했다. 서박사는 “아버지는 공산 정권에 저항하여 싸웠고, 인권과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북에서 순교하셨는데, 여기에는 소위 민주적 독재자가 있다 공산주의 독재자나 자본주의 독재자나 무슨 차이가 있나?” 생각하며 모든 독재에 저항한 아버지를 따르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그때 서박사는 NCKC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박정희 정권에 저항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기에 이르렀으며, 1980년 이화여대에서 해직 당한 뒤 지역의 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서박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대한 참여를 멈추지 않았다.

이런 계기로 1991년 서박사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모임에 NCKC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오랜 원수인 조그런을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북측 대표단의 수장은 서박사와 같은 나이로, 아버지의 원수인 조그런 설립자의 아들이었다. 서박사와 조그런 대표는 둘 다 캐나다 교회와 정부 지도자들, 그리고 WCC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강연을 맡았다.

서박사는 당시 만남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날 밤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남쪽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와서 평화를 말해야 합니다. 어떡합니까? 원수의 아들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모임이 시작하기 직전에, 그 남자가 와서 말했습니다. ‘서박사님, 제가 하는 강연을 통역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통역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하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통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감시하러 온 사람이라며 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제가 통역을 도와주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어서 체포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잠시만, 우리 대표들과 의논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한국에서 함께 온 친한 대표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아주 가까운 친구들이 돌아앉으면서 ‘그건 서박사가 알아서 해야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아무 도움도 안 되더군요!

나는 결심을 했습니다. 복수냐 용서냐 그때 한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원수 갚는 최선의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도와주기로 결심했고 강연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의 강연이 끝나고 남쪽을 대표하여 내 강연을 발표했습니다. 북에 있는 적을 도왔으니 법에 걸리겠구나 싶었지만,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되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은혜의 순간,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기회의 순간 같았습니다. 그 이후, 나는 자유롭게 북에 대해,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2004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 300명 교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며 이 이야기를 나눴고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조선 민족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 자유롭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로 하나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APRIL
Week 1

2020 Joint North-South Easter Prayer

Thank you, God of Life, for giving us the gospel of rebirth. As you have been preparing for a new spring in a long winter, we ask you to grant to us a new era. Let us open a new history in the midst of the hardship of the Korean Peninsula, just as the story of the crucifixion includes the glory of the resurrection.

The sound of cries continues unceasingly throughout the world. War and starvation, climate change and infectious diseases; a mixture of human-made and natural disasters are increasing. We confess that human sin is at the root of all this misery, so let everyone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to create a happy new world.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Korean War broke out on the peninsula. Having experienced the terrible consequences of shooting our own people, let us officially end the war so that we will not fight again. May an end-of-war declaration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remove the atmosphere of war from this land and revive the spirit of peace.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une 15 declaration. Let us take this time not just to remember this great declaration,

but to bring about a living together. Let the South and the North actually apply and practice the irreversible grand principle that the Korean people, the masters of their own destiny, will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issue independently.

We pray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North and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come back to life. Please raise up again the hope that had risen up through the April 27 Panmunjom Declaration, so that the flame of this hope that had been kindled will not be extinguished and will burn like wildfire. Please remove the gloom of frustration and breathe a new fresh air in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Kaesong Joint Industrial Complex, let the lights of the factories burn again, and let us take steps of reconciliation again in every valley of Mt. Geumgang that has been closed. Please grant the wishes of the separated families, and make the land wet with their tears of joy. Please continue expanding the peace process by withdrawing troops and weapons from the Demilitarized Zone. We pray that you will revive the broken exchange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spheres.

Let the South and the North cooperate for the safety of life at a time when the Corona-19 Virus is threatening the whole world. Please, God, guide everyone who suffers from this so that we can all find peace in our daily lives.

We confess that resurrection is the resurrection of those killed for the kingdom of life, justice, and peace. May the Christians of the

South and the North hold hands together, and let the Spirit of the Lord fully descend upon us so that the Korean Peninsula can begin its sacred march toward the Jubilee.

We pray in the name of the resurrected Jesus Christ, who has claimed victory over all death in the world. Amen.

12th April 2020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Korean Christian Federation

(This prayer is the draft from the South, the NCCK.)

Story of Faith 2

A Moment of Forgiveness and a Moment of Grace¹

Dr. David Suh (Dr. Suh Kwang–Sun)

Dr. David Suh was born in the village of Kanggye near the northern border of Korea and China before North and South Korea became separate nations. His father became a pastor during the years Korea was occupied by the Japanese Empire. His father's outspoken resistance to Japanese occupation put them in danger, so they moved to Manchuria closer to the edges of the Japanese empire. Dr. Suh's father sent him to a Japanese middle school because he said, "You must learn the language of the empire." He was attending school the day that empire fell, on August 15th, 1945. He was the only Korean in a class full of Japanese youth. He remembers the Japanese teacher calling the attention of the class to announce that the emperor had just surrendered to end World War II. While his classmates all expressed their grief, he had to hide his feelings of joy. He ran home to his father and celebrated openly with him.

¹ This story is a summary of an interview of Dr. David Suh (Korean: Suh, Kwang Sun), retired pastor and professor of Ewha University, done by Kurt Esslinger, pastor and mission co-work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ssigned to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CK). The interview was broadcast as a webinar hosted by Global Ministries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cooperation with the NCCCK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Committee.

After Japan left Korea, Dr. Suh and his family moved back to their home in the village of Kanggye. Eventually, as the south and north zones became two separate countries in 1948, his father then became outspoken against the communist leadership of the new North Korean administration. Some Christians were joining the communist administration and created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KCF), urging pastors like his father to join. His father refused, becoming an enemy of the KCF. Thus, the police of North Korea took a negative interest in his father's outspokenness. Eventually they moved further south toward Pyongyang. Five years after Japan surrendered Korea to the Soviet Union and the United States, war flared up again in June of 1950. Soon after the war began, Dr. Suh's father went missing. While wondering who might have taken his father and what they might have done to him, Dr. Suh also had to worry about being picked up by the North Korean army himself and taken to fight in the war, since he was 19 years old in 1950. He and his younger brother would hide in a hole in the floor of his house. His ability to hide did not last forever; however, the kindness of a stranger saved him from likely death on the battlefield.

The North Korean army finally picked him up when the August heat of 1950 got so uncomfortable he had to get out for some fresh air. They trucked him into town and lined him up to see the doctor who was supposed to determine his physical fitness for the war. To his astonishment, the doctor told him, "You are sick." He describes his response, "I don't know what I was thinking at the time, of course I should have said, 'Yes I am sick.' Instead I argued with him, 'No I am not sick, I am healthy.' Thankfully, he insisted, 'No, you are sick.' He gave me a piece of paper that said I was not healthy enough to

join the army. I didn't know him, he was not a member of our church. To this day I still have no idea why he decided to do that for me. The easy answer would be to say it was God, I guess?" As he was heading away from the line of young men, he heard his little brother call out to him. The army had also found his little brother. His brother said to him, "Older brother, where are you going? You should be going in that [other] direction. We are supposed to go that way to the war." Dr. Suh then showed his brother his medical release paper. His brother then responded, "Okay, older brother. You shouldn't go to war. I will go to the army instead of you." He hasn't seen his little brother since that moment. Dr. Suh explains that these memories make him wonder, "Why am I here, then? What is my purpose if these people did so much to make sure I could survive?" He humbly muses that as old as he is and as many years as he has spent praying, he is still asking himself this question.



After the US won access to North Korea, his family was finally free to look for his father. Eventually they found him. Someone told him his father's body was by the Taedong River in Pyongyang. He went looking, and sure enough he found a group of four other ministers who were executed and tied together. He found his father's body

covered in bullet holes and blood. Dr. Suh remembers the anger he felt as he held his father's body, and he remembers the strong desire for revenge.

Dr. Suh then moved to the South. He joined the South Korean Navy as a way to avenge his father. He received another special opportunity when he scored highly on an entrance test. His results gained him access to a program that sent high performing Koreans to study in the US, and a friend he made in the US navy encouraged him to take it up. Near the end of his study at a US school, his friend had him over for dinner and asked him, "What are you going to do next?" Dr. Suh was planning on returning to the Korean navy at that time, but the friend suggested, "No, you are not the navy type. You are a scholar type." His navy friend helped him return to the US and register for a Christian college in Montana. Dr. Suh went on to study theology and then earned admission to Union Theological Seminary in New York City in 1962. There he read Bonhoeffer's letters from prison, he went to hear Martin Luther King Jr. speak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Washington D.C., and he watched his friends and fellow students join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He says that this time tested him theologically as he began to reflect on his own attitude toward his enemy and his desire for revenge. He began reflecting theologically on revenge, forgiveness, and "What should be my Christian attitude toward my enemies who killed my father?"

After receiving a PhD from Union Theological Seminary he returned to Korea and joined in the movement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against the forces of South Korean dictatorship while teaching at Ewha University. At that time Park Jung-Hee,

father of the recent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was in power, and in the name of anti-communism and pro-USA rhetoric severely oppressed South Korean workers, students, and Christian intellectuals who opposed him. “I thought, ‘My father fought against the communist dictator and gave his lif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freedom in North Korea, and here is this so-called democratic dictator…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communist dictator and a capitalist dictator?’ So I should follow my father’s example against all dictatorship.” That is when he became involved with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CK). Dr. Suh was eventually arrested by South Korean police for “agitating his students to demonstrate against Park Jung-Hee.” They forced him to resign his position at Ewha in 1980, which then freed him up to be ordained as a pastor of a local congregation. Despite the pressure from his government, he never ended his involvement in the Korean peace and unification issue.

This gave Dr. Suh the opportunity to join the NCCCK for a consultation in Montreal, Canada in 1991 that included the KCF, his father’s old North Korean Christian enemies. There, the head of the North Korean delegation, who shared the same age as Dr. Suh, was the son of one of the founders of the KCF, his father’s main enemy. Both Dr. Suh and this representative of the KCF were set to speak before Canadian church and government leaders as well as representatives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He describes the encounter: “Then I really struggled the night before. Father, your son is here to talk about peace, and I’m representing South Korean Christians. What do I do? How can I meet this guy?”

But the following morning right before the meeting started, he came to me and said, ‘Dr. Suh, can you translate, interpret my speech?’ I said, ‘You have your own interpreter who came with you.’ He responded, ‘No, no, he is no [kind of] interpreter. His English is [not] good. He came here to watch me.’ But if I were to help him translate his speech that is a violation of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and I could get arrested. ‘Wait a minute, I have to talk with my friends from South Korea.’ I went to them to say that guy is asking me to translate his speech. And my friends, my really close friends turned away from me and said, ‘Hey that’s your business.’ What a help?!

“Then I made a decision… Do I choose revenge or forgiveness? And then I heard a voice, ‘Loving your enemy is the real revenge.’ Okay, I will do that. So I helped him with translation. Then after him I did my own keynote address representing South Korea. After I did that, it was a small act, but violating South Korean law, helping my North Korean enemy, I felt a sense of freedom from the bondage of thoughts of doing bad things to my enemy. It was like a moment of grace, a chance for me to perform a loving action for my enemy. From then on I felt so free to talk about North Korea, peace, and reconciliation. In 2004 I had a chance to visit Pyongyang and give a sermon in front of a congregation of 300. There I told them about my story [this story], and in Pyongyang they all wept. They are Christians, they are Koreans, and they have the same feelings that I have for peace and unification. Now I am not only free on these issues, but also I have conviction that we may be united once again as brothers and sisters.”

4월 2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3 “한 미국 청년의 기도”

수잔나 스티프스(Susannah Stubbs)
미국장로교회(PCUSA) 청년 봉사자원자

정치적 경계를 넘어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

평화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자랐고, 우리 자신의 땅에서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지의 안락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이웃 사람들의 삶의 복잡성과 가치를 말이나 행동으로 부정함으로써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한반도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투쟁하고 기뻐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평화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순수한 동기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복잡한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 (미국) 지도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들이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는 헌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의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을 종식시킬 평화조약을 지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통제와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미국과 남북 사이에 생산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평화의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역과 세계의 공동체들이 협력하여 인식을 확산하고 변화를 이루어 내는 일에 열정을 다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불의가 치유되고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며 무기가 내려 놓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한반도에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4

“북한이탈주민과 한 가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전국연합회

분단으로 겪는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한민족이었던 남과 북이 70년의 세월동안
너무도 다른 체제와 문화,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국경선을 넘어 우리 곁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새 삶을 찾고 진정한 가족이 되고자 하지만
우리는 오해와 편견으로 차별하고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이유와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 넘어와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는 북한이탈주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과 변함없는 관심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단지 선교를 위한 의도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서로의 문화를 배움으로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하옵소서.
북한이탈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통해
통일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땅에 통일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증언 2

금강산

이상영, 창희식품

저는 금강산에서 사업을 하셨던 창희식품 이창희 대표의 딸 이상영입니다. 저희 가족은 대표이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와 저, 동생 네 식구가 다른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항상 바쁘신 부모님의 사업으로 가족들이 일을 함께 하는 일이 많아 서로 무척 가까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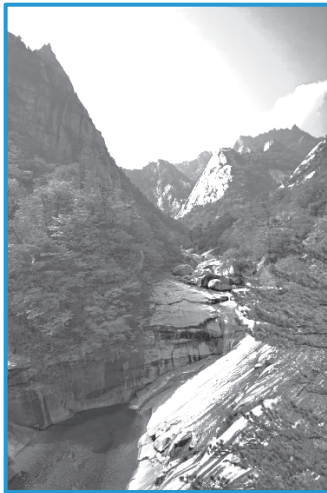
2000년 초반 저희 부모님은 금강산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관광을 다녀오신 분이라면 관광지마다 따라다니는 빨간색의 황금마차라고 쓰인 푸드트럭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 번 보면 기억을 하는 강한 인상을 주던 푸드트럭이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황금마차였습니다. 강한 기억을 남기자던 저희 아버지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트럭은 북쪽 사람들도 기억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편의점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사야 했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름에는 타는 듯이 덥고 겨울에는 눈을 치워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추운 컨테이너 숙소에서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는 최초로 들어오셨다는 사명감으로 다른 젊은 직원에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셔서 당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도 부모님의 넘치는 열정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금강산관광이 알려지며 저희 부모님은 나라를 위해서도 일한다는 생각에 시간과 돈 모든 열정을 금강산에서의 사업에 투자하셨습니다. 잠시 일을 보러 남쪽으로 내려오셔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금강산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신 덕분에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저와 제 동생이 하고 싶었던 공부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우리 가족에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0408_-_Nordkorea_2015_-_Kumgang_Gebirge_\(22569775329\).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0408_-_Nordkorea_2015_-_Kumgang_Gebirge_(22569775329).jpg)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씨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금강산에서의 모든 관광활동이 중단되었고 저의 부모님께서는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남겨두고 금강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루, 일주일, 일년.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부모님 속은 타들어 갔고,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아무런 기약 없이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저희 부모님은 아침뉴스부터 마감뉴스까지 혹여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특보라도 나올까 늘 TV 주변을 맴도셨고 그런 기다림은 초조함으로 변져 항상 날이 서 계신 부모님은 싸움도 잦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기다림의 시간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깎아가며 병으로 자리 잡았고 답답함을 이기고자 일기를 쓰시던 어머니는 가슴의 화를 몸이 버티지 못하고 2010년 유난히 추웠던 3월 먼저 눈을 감으셨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함께 해오신 어머니를 잃은 저희 아버지는 기력을 많이 잃으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미력하나마 어머니를 대신해 생계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조금씩 힘을 내시던 아버지는 없는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금 없이 시작한 사업은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휘청거렸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사업으로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보탬이 되고자 서로 각자 돈을 벌며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밤낮없이 일을 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그렇게 저와 동생은 아버지를 도우며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정리되지 않은 금강산 사업은 저희 가족에게 밀 빠진 독

이 되어 항상 저희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기를 3년, 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를 대신해 누구보다 열심히 가족을 생각하며 집안을 다시 세우고자 쉬는 날도 반납해가며 일을 하던 동생은 스물 아홉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로라는 어울리지 않는 병명으로 어머니를 따라 먼저 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잃은 아버지는 더 이상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으셨고, 아버지마저 쓰러지실까 저는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희망만은 버리지 않고 금강산이 다시 열리면 하고 싶다는 사업 아이디어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은 그 희망마저도 아버지에게서 걷어갔습니다. 기다림이 독이 되어 아버지마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회복되기 힘든 몸으로 현재 입원해 계십니다.

저는 이제 기다림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담은 기다림이 저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방금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매듭을 원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을 매듭짓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APRIL
Week 2

Prayer for Peace 13
“A Prayer of an American Youth”

Ms. Susannah Stubbs
PCUSA Young Adult Volunteer i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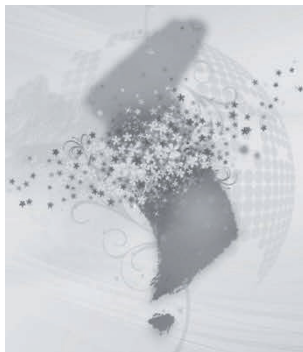
God who loves with no regard for political borders,

You teach us that peace requires understanding. We grew up in the United States, and we have never experienced war on our own soil. There are things that we will never understand. But we have lived in the comfort of ignorance for too long. Many of us have sinned against you by denying the complexity and value of the lives of our neighbors on the Korean peninsula by word or deed. God, grant us empathy so that we can walk alongside our Korean siblings in their struggles and their triumphs in a way that honors them and you.

We recognize that peace is complicated. We know that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t with pure motives. We know that the North and the South have complex histories and social landscapes. What we are asking for is not easy, but it is possible. God, soften the hearts of our nations' leaders. Let them treat one another with honesty and openness.

We recognize that peace takes work. We pray for tangible actions to advance the progress of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 We pray for the United States to support a peace treaty that will officially b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We pray for them to stop using their military as a tool of control and intimidation. We pray for productive communication to open between the US, the North, and the South. And Lord, show us how we can be part of this work of peace. Ignite passion in our hearts, and bless our efforts as we work collaboratively in our hometowns and our global communities to spread awareness and push for change.

We want to see injustices remedied, families reunited, and weapons laid down. We want to see your great kin-dom of compassion come to Korea, Lord. We pray this in the name of your son, the Prince of Peace. Amen.



Prayer for Peace 14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Women Association,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PROK)

God who knows the pain of division,
Korea was once one country, but the North and the South are now very different social systems, cultures, and economic situations. North Korean defectors, who risked their lives and crossed the border, want to find a new life, but we have discriminated them because of our misunderstandings and prejudice. Lord, forgive our sins.

God who is generous to all people,
Give us a generous heart to understand the pain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trying to adapt our South Korean society and to recognize them as members of our South Korean society. Make us to care for them with warm heart and help us to create a happy community with them.

God who unites divided hearts,
May we not approach them with the intention of evangelism or forcing them to accept our culture! Enrich our society by learning each other's cultures. Help us to prepare for a unified Korea by practicing living with North Koreans defectors.

As we long for the unity to come to this land,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Witness 2

Mt. Geumgang

Ms. Lee Sang-Young
Daughter of a Worker at Mt. Geumgang Tourist Region

My family used to run a business called Changhee Foods in Mount Geumgang, and I am the daughter of Mr. Lee Changhee. Just like any other family, our family - my father, mother, sister and I - was a happy one. We were especially intimate with each other as we frequently helped out with the busy family business.

It was around the early 2000s when my parents started a business at Mt. Geumgang. People who have toured the Geumgang will probably remember a food truck along different tourist destinations which had “The Golden Carriage” painted in red on its side. My father drove this truck which left such a strong impression on many people who came across it. He intended for the truck to be memorable to people, and even some of the North Koreans took note of it.

Back then, it wasn't very long since tourism first started in the area so the Mountain lacked many convenient stores. To be honest,

there was only one convenience store at that time. My parents lived in a container home where it was scorching hot in the summer and freezing cold in the winter, but they always gave their best effort. They took pride in being the first sole proprietorship to enter Mount Geumgang and worked as hard as other young workers. Their stories would appear in newspapers and tel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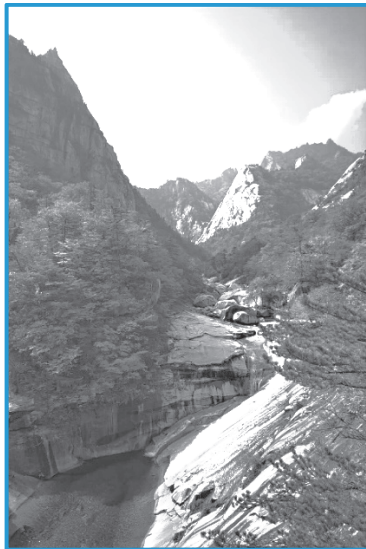
As tourism in the area became popular, our parents invested all their money and passion in their business under the strong conviction that they were working also for the country. They came south only when they had to and spent all their time up on the Mountain. Hard efforts paid off and with the money earned, for the first time in life, we went on family vacations and my sister and I were given the freedom to study what we wanted.

Just when everything seemed so perfect, things began to fall apart. The shooting incident of Park Wangja on July 11, 2008, halted any tourist activity in Mount Geumgang and my parents had to quickly leave the place with their whole life left behind.

As the days, weeks and years passed my parents grew more and more, weary. y parents who left to wait would always hover around the TV watching the morning and late evening news in hopes to find a newflash about the Geumgang area. Such endless delays turned to anxiety and my parents began to fight quite often. Distress befell my parents and my mother who would write a diary to relieve her stress finally gave up and passed away on an especially cold day in March 2010.

Having lost his life partner, my dad lost all his vigor and energy. My sister and I decided to do anything we can to support the family. Encouraged by such motivations, my dad started a small business with what little money he had left. But because it started out with such a meager sum of money, the business faltered during hard times, and it did not get better.

In order to help the faltering business, my sister and I did what we can to earn money. We would work day and night and on the weekends too if possible. The memory of the food truck that our family left back at Geumgang would not let go of us and would haunt our family in whatever we did.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0408_-_Nordkorea_2015_-_Kumgang_Gebirge_\(22569775329\).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0408_-_Nordkorea_2015_-_Kumgang_Gebirge_(22569775329).jpg)

After three years of such hardship, my health started to deteriorate and I became ill. My sister worked extra hard to make up for what I couldn't do. Such overwork led to my poor sister's death when she was only 29.

My father lost all energy and confidence following my mother and my sister's death and I could not relax for fear that my father too would give way. He, however, did not give up hope and endured the days thinking of what new business he might do if Geumgang would ever open its doors again.

Time however robbed even the little remains of hope my father had. Not able to withstand any further, my father suffered a stroke and is now at a hospital with no hope for recovery.

I no longer believe in waiting.

You have just heard what hopeful waiting has done to my family. I stand here today to find a solution because I could no longer wait anymore. I ask sincerely for your help in putting an end to all this waiting. And I also ask for the right judgments and God's mercy.

4월 3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5

정희수 감독

미국연합감리교회(UMC, GBGM) 위스콘신 연회

오랜 분단과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한국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분단현실은 사람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불신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 현실은 계속되는 고통이며 우리는 세계교회의 친교 속에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주님, 한반도의 평화는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세계의 평화를 더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70년의 한국전쟁을 기억하고 평화조약과 남북한의 화해를 지원하기 위한 세계교회 캠페인에 동참합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해방과 자유를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복해주십시오.

매일 분단되어 갈라진 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눈물을 너무 오래 흘렸으며, 갈라진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길 원하며 흘린 그 눈물이 세계를 적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냉전을 멈추고 다시 하나됨의 비전을 가지고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북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만나 화해의 꿈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님, 중재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극과 대립이 아닌 화해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분단을 끝내고 서로 사랑하는 표식으로 십자가를 내 세우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평화와 화해를 위해 힘쓰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6

스티브 피어스(Steve Pearce) 아시아 국장
영국감리교회

평화의 하나님,
당신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만큼이나 갈등과 분쟁의 주체임을 고백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분쟁이 아닌 타협으로,
긴장이 아닌 조화로
이끄시는 주님의 평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피조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영혼을 새롭게 정화시키며,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듯이,
주님의 세상에 평화를 일구는
거룩한 평화의 여정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특별히 (조선)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 조약을 위한 노력과,
서로를 적대시하는 군비를 줄이는 노력과,
상호협력을 위한 대화를 모색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를 일구는 모든 이의 노력에 감사 드리며,
우리 함께 힘을 보태는 마음을 모아,
평화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본 기도문은 성 힐데가르트 (Hildegard of Bingen, 1098-1179)의 명언을 바탕으로 한 (조선)한국을 위한 영국감리교회 기도 지침서 21일차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증언 3

한 장기복역수의 마지막 편지

신승민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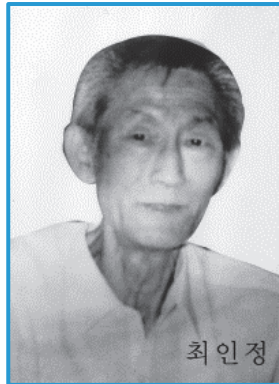
최인정씨는 1927년 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북의 최고 대학 중 한 곳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했으며 노동당원이 되어 정부 교통국에서 일했습니다. 최씨는 임기천과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었고, 1964년에 간첩으로 남쪽에 파견될 때까지 행복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남파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체포되어, 1967년 간첩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61세인, 1988년 석방될 때까지 21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석방된 지 2년 만인 1990년, 그는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며, 1년 동안의 투병 끝에 이듬해 1991년 11월 2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사망하기 몇 달 전, 북에 있는 아내에게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그는 “내가 죽기 전 나의 유일한 바람은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보고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¹고 말했습니다.

1991년 10월, 사망하기 한달 전에 최인정씨는 NCCK의 인권위원회에도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편지는 한반도 분단의 비극적인

¹ 박찬수, “북녘 가족 그리다 남쪽땅에 묻혀”, 1991년 11월 23일, 14면, 한겨레신문

상황을 나타내는 깊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즉시 통일부에 연락하여 최씨와 그의 가족의 짧은 상봉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통일부는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11월 20일까지 남북주민접촉신청서를 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신청서에서는 최씨 가족상봉은 12월 3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20-30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즉시 그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11월 20일 그가 사는 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같이 신청서를 통일부에 제출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안타깝게도 간암이 악화되어 그 날 상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다음 날 새벽 11월 21일 북의 가족을 갈망하면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사망 후 우리는 남쪽 정부에 그의 편지를 부인에게 넘겨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이산가족으로부터 수천 건의 유사한 요청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NCKK는 결국 세계교회협의회(WCC)의 도움으로 그의 아내에게 그 서한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http://www.yolsa.org/>



APRIL
Week 3

Prayer for Peace 15
“Praye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ishop Jung Hee-Soo
Presiding bishop of Wisconsin Annual Conference and
president of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United Methodist Church

We pray to you, thinking of Koreans who have been hurt by long division and fear of war. Divided reality has given people unbelief and pains too long. This reality is on-going suffering and it causes our pain and struggles in the communion of the global church.

Lor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just theirs. The peace of the world can be made closer throug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w, we join a campaign to remember the 70th years of Korean War and to engage the world churches for the support of peace treaty and reconcili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less this historic moment as the Korean church and the world church are joining again for this significant liberation and freedom.

Do you remember the many people who have lived a scissored life every day? How long, Lord?

Tears shed so long and it shed to all over the world, as they struggle and miss our separated family and friends.

We thanked the Lord to see the leaders of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stopping the cold war and talk and exchange with such visionary stage. We thrilled to see the Lord grant the initial step toward the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after seeing the leaders of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eet and share a dream of reconciliation.

Lord,
May you be a mediator. And create a relationship of reconciliation, not a tragedy and confrontation anymore.

Use your cross as a sign of the end of division and help us to begin to love one another. Help the Christians scattered around the world to share in the 2020 year for building the peace and reconciliation.

We pray earnestly in the name of the Lord. Amen

Prayer for Peace 16

Mr. Steve Pearce
Director of Asia Desk, Methodist Church in Britain

God of Peace,
Who created this world and saw that it was good,
We acknowledge before you now that we are part of a world that
has as much conflict and tension as it does peace.

Revive in all people, we pray, a sense of your peace,
which passes our understanding, but lifts our eyes and hearts
above competition to cooperation,
above petty disputes to compromise,
above tension to harmony.

Let your Holy Spirit, breath of all creatures, purifier of all souls
and healer of all wounds;
be fire to our heart, light to our path and friend for our journey
as we seek to rebuild peace in your world.

We pray particularly for peace in the whole of Korea, for efforts
to agree a Peace Treaty, for attempts to reduce the worst of our
armaments, for talks about cooperation.

We give thanks for all who work for peace and aspire in your
strength to add to their efforts,

In the name of Jesus, Prince of Peace. Amen.

– Based on words of Hildegard of Bingen (1098–1179) as used on Day 21 of the Methodist Church in Britain Prayer Handbook, the day of the month devoted to prayer for Korea.



Witness 3

A Story of a Long-term Political Priso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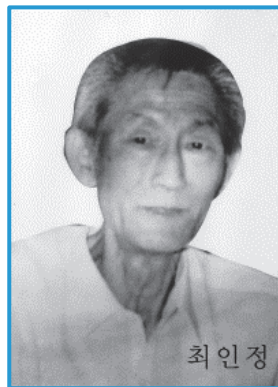
Rev. Shin Seung-Min
Director, NCKK

Choi In-Jung was born in North Korea in 1927. He completed his higher education in one of the best universities in North Korea, became a labor party member and worked with the government transportation department. He got married to Lim Ki-Chun and had four children. They made a happy family until he was dispatched to South Korea as a spy in 1964. Just two days after his arrival in the South he was arrested by the police and charged of espionage in 1967. He served 23 years' prison term and was released in 1988. He was 61 years old when he was released, which meant that he spent many of his productive years in prison. But in 1990, just two years after his release, he was diagnosed with the last period of liver cancer. He struggled with the cancer for almost a year and died on November 21 in the following year. Just few months before his death, he wrote an open letter to his wife in North Korea, saying that "my only wish before I die is to see you and our children and say sorry to them about all what happened to us."

On October, 1991 just a month before his death, Choi sent a letter to the Human Rights department of the NCKK with which I worked as an executive secretary. His letter was full of deep feelings of suffering and sorrow, representing the tragic situation of Korea's

division. My department immediately contacted the Unification Ministry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quest a short meeting between Choi and his family. Fortunately the Unification Ministry accepted our request and asked us to send an application form by November 20. The meeting was scheduled for 20-30 minutes on December 31 in the Joint Security Area of Panmunjom. I contacted Choi, and he was very excited and happy about the news and agreed to travel from his place to Seoul on November 20 to submit the application form. But unfortunately he could not make it because of his worsening sickness. On the following day, November 21, he died, longing for his family in North Korea.

After his death we appealed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hand over his letter to his wife, but the government refused to do it, being afraid of facing thousands of similar requests from separated families in South Korea. As far as I remembered, we were eventually able to deliver his letter to his wife with the help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http://www.yolsa.org/>

4월 4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7

허원배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주님!

이 땅에 공황을 베풀어 주소서.

남과 북으로 끊기고 갈라진 70년의 몸서리치는 아픔을
온 몸으로 견디어내는 이들의 눈물을 살피소서.

이산의 아픔으로 슬퍼하는 이들,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며 울부짖는 이들,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해 부르짖는 이들,

멈추어버린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

땅, 하늘, 핏줄, 겨레, 민족, 역사의 갈라진 흔적들로 인해

여전한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공황을 베푸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주소서.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민족 분단을 촉발케 하였음에도

이 분명한 역사를 왜곡하고 정당화하며

이미 행한 악을 감추려드는 이들의 오만함을 용서치 마소서.

수많은 민중들이 살이 찢기는 아픔을 겪을 때

그들은 그 찢긴 살과 피로 자신의 왕국을 세웠기 때문이며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하나 됨을 막아서느라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왜곡하고 분열케 하므로
여전한 불의를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땅에 화해의 봄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4.27 판문점 평화선언으로

남과 북의 선한 백성들이 꿈꾸고 마음에 품은 봄나들이가
500여Km에 이르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동산으로
불빛 환하게 밝아진 개성공단과 금강산 골짜기마다
화해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의 들꽃 가득히 피어나는 봄날을 허락하소서.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 천지, 두만강 이름 모르는 나루터와 포구,
삼천리 모든 들과 골짜기 마다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봄꽃들처럼
아이들의 웃음이 평화의 꽃이 되고

어른들의 미소가 화해의 꽃향기 되고

노동자와, 농민들, 외국인 노동자들, 코로나19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소외되고 낮은 자들,

남과 북의 모든 선한 백성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함께 모여
평화와 화해 꽃밭이 만발해지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8

유딧 크니스다퍼(Judith Königsdörfer)
독일개신교협의회(EKD)

생명의 하나님,
지난 70년동안 휴전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
한반도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들은 지난 3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분열과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구세대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새롭게 다지기를
또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신세대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모두의 번영을 위해 하나된 한반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세계적 유행성 질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형제 자매들이 지혜롭게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고립되며,
외국인 혐오증 같은 배척과 증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지혜와 기적을 간구합니다.

지금의 상황으로 한반도 평화 조약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어미가 새끼를 돌보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마음이 다시 기뻐하고우리의 뼈가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한반도의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19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도”

김예인 어린이
미래초등학교

하나님,
지구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전쟁을 지구상에서 몰아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폭력을 일삼고 전쟁을 벌이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를 용서해주세요.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오랜 갈등과 파괴가 지속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지 않도록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평화가 유지되게 도와주세요.

과거의 아픈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잘못한 사람은 진정한 사죄를 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선한 길로 인도해주세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yer for Peace 17

Rev. Huh Won-Bae
Chair of NCKK Reconciliation Committee

O God!

Have mercy on this land.

Witness the ones whose whole bodies have endured with
trembling the pain of North and South Korea having been
divided for 70 years.

For those who grieve for the pain of separation,
For those who wail in longing for their hometown of Sancheon,
For those who cry out for the nation to become one,
For those who are suffering because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Mount Kumgang projects were stalled,
For the earth, the sky, the veins, the people, the nation,
and the history that continue to cope with the vestiges of division,
God have mercy.

O God!

May your justice be realized on this earth!
For those who have they supported Japanese imperialism
and triggered national division,

As they distort history and try to justify their deceit,
For these who seek to hide the evil they have committed,
do not withhold your judgement of their arrogance.
God, remember those whose flesh was been torn,
By tyrants who sought to build their kingdom of division.
Bring their cries to into the light of history,
So that your justice may encourage their healing.

O God!

Let a spring season of reconciliation come to this land
as soon as possible.
Through the April 27th Panmunjom Declaration,
May the spring outing that the good people of
the South and the North dream of and carry in their hearts,
Turning the 500-kilometer-long Demilitarized Zone
into a peace garden,
Lighting up every light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ever valley of Mount Kumgang,
May it lead to reconciliation.

O God!

Grant this land a blooming spring day that is filled with
the wild flowers of peace.
From Mt. Halla's Baekrokdam Crater Lake,
to Mt. Baekdu's Cheonji Crater Lake,
to the ferries and ports of unknown names on the Tumen River,
Like spring flowers blooming in every field and valley
on the Korean peninsula,
Let children's laughter become flowers of peace,

And the smiles of our elders become flowers of reconciliation,
And may the sweat of the workers, the peasants,
the foreign workers, the COVID-19 pandemic teams and
medical personnel, the marginalized and the lowly,
The sweat of all the good people of South and the North Korea
be gathered together,
So that the day like a fully blooming flower garden of peace
and reconciliation may soon come.

In the holy name of Jesus on whom we depend,
Who will come to this land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We pray, Amen.



Prayer for Peace 18

Judith Königsdörfer
EKD–Evangelical Church in Central Germany

God of life!

We are desperately longing for this vision!

You promise peace - and our sisters and brother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facing 70 years of no peace already. This means three generations who are used to a constant state of division, pain and grief.

We pray for peace, so
that the older generation may renew their hope for reunification.
We pray that the young people learn
to love peace more than continued war.
We pray for a reunited Korea,
that includes prosperity and equity for all.

God of life!

We are facing a pandemic with conditions we are not prepared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to deal with this crisis under very different preconditions. What can be done, when health systems collapse? When people suffer from isolation or xenophobia?

We pray for help and wisdom.

We pray for signs of humanity in these troubled times.

We pray that the current situation does not distract the attention from all efforts for a peace treaty.

God of life!

We are longing for the comfort of your caring arms. As the prophet Isaiah says, you want to care for us like a loving mother with her all-embracing sight. Our hearts shall be glad again and our bones shall get new strength. Let this mercy be seen by your beloved children of Korea.

In Jesus name we pray

Amen.



Prayer for Peace 19

“Prayer for a world without war”

Kim Yae-In
Mirae Elementary School, Seoul, South Korea

God,

I heard that even at this moment there are both large and small-scale conflicts in every corner of the globe.

Can you stop wars and let there be peace all around the world?

Lord,

You told us to love one another, but we wage wars,

I ask you forgive our sins.

God,

I also heard that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is a place where long conflicts have continued.

I pray that people repent of their sins so you, dear God, keep peace preventing the dark clouds of war.

Lord,

The painful things of the past cannot be repeated again today.

May the wrongdoers first admit that they did something wrong and apologize to the victims!

Lead us to only in good ways!

May the region of Northeast Asia be a place of world peace!

We pray in Jesus' name, Amen.

5월 1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0

이양호 목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반도에 저희 민족을 살게 하시고 유구한 역사 속에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수많은 외세의 침입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며 한 번도 남의 나라를 먼저 침입하지 않은 평화의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어 많은 국민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또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제 이방의 집권자들의 제국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는 복음이 주는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 민족은 분단된 지 75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평화 통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1

오스타렉 클라우디아(Claudia Ostarek) 목사
독일 개신교 연맹(EKD) 국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셀 수 없이 많지만 개인적, 정치적 모임과 대화, 그리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나는 묻습니다: 우리 세대가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가 정착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때로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성서에서 읽습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인도 하에 사막을 통과 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좌절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계속하고 있는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들에게 큰 격려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힘주셔서 평화와 정의, 화해를 위한 여정에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와 친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통일과 화해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자신 있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고, 남성들이 그들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힘의 논리가 설 자리를 잃게 하옵소서.

남북의 어린이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미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2

“통일을 위한 기도”

루엘 마릿사(Reuel Norman O. Marigza) 감독
필리핀교회협의회(NCCP) 총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편 저자의 고백인 “보라 형제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 한 민족이 분열되어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현실에 놓여있음을 바라봅니다. 한반도의 우리 자매와 형제들은 오랫동안 분단의 고통을 겪었으며, 오랫동안 눈물로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들의 탄원에 손을 내밀어주십시오. 통일과 평화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의 수고를 축복하시고 번영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투명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림자처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한반도에 어둠을 밝히는 빛을 비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을 깨뜨리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보이도록, 희망의 빛이 다시 타오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한국의 자매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연대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언젠가는 당신의 카이로스(kairos) 안에서 서로를 분리시키는 장벽, 울타리, 경계가 사라지고, 전쟁이 종식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평화를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rayer for Peace 20

Rev. Lee Yang-Ho
Moderator, Korea Evangelical Church

Holy and merciful God,
We thank you that you have provided a life for us on this Korean Peninsula and allowed us to keep our national identity until now. We thank you that you are making us into a peaceful nation, even though many countries have invaded our land.

We thank you that you have blessed many of us with the Gospel of Christianity. Also we thank you that you have blessed us as a nation of mission throughout the world. Christ said, “You know that the rulers of the Gentiles lord it over them, and their high officials exercise authority over them. Not so with you. Instead, whoever wants to become great among you must be your servant, and whoever wants to be first must be your slave.” Now the period of the empire of the Gentiles is passing, and the peaceful Kingdom of God is expanding. Our Korean Church dreams of a world of peace and love.

However, we have been divided into two nations for seventy-five years. Grant us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help us to contribute to the peace of the world.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Prayer for Peace 21

Rev. Claudia Ostarek
Executive Secretary, Protestant Church in Germany (EKD)

Merciful God,

How difficult it is to overcome divisions and how difficult it is to create peace. The way to overcome traumas and injuries is so endless and requires many personal and political meetings, conversations and a lot of mindfulness.

I know: Moses could not enter the Promised Land – I ask: will our generation experience lasting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ometimes I have doubts.

But I read in the Bible: The path of the people of Israel through the desert, which Moses and Miriam and Aaron led, came to its goal. This narrative encourages me for our pilgrimage of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wide ecumenical community, even though there are always setbacks.

God, let your strength work, so that all who are on the journey together for peace, justice and reconciliation may reach their goal. Give us patience and perseverance, courage and fellowship in our commitment to peace and reconciliation in Korea. Be with us with your unifying and reconciling spirit.

Help the women to confidently present their proposals for peace processes. Help the men to find and follow paths together with them. Let us keep our goal in mind and let us give no room to power games.

Give the Korean children in the South and the North a peaceful and good future! Amen.



Prayer for Peace 22

“Prayer for Reunification”

Bishop Reuel Norman O. Marigza
General Secretary,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Almighty God, together with the Psalmist we declare: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and sisters dwell together in unity!” We also declare, in equal manner, that an unnatural division of a people by victors of war is not good and an unpleasant reality. Long have our sisters and brothers in the Korean peninsula suffered the pain of separation; long have their cries been poured out. Listen to their prayers. Look with favor upon their petition. Bless and prosper their labor and struggle to bring about reunification and peace.

In the dim unknown of the times we are in, we are certain that even there you stand within the shadow, keeping watch over your own. May you bring to the Korean peninsula the spark that will light up the darkness. May you shatter the gloom and may the light of hope be rekindled that the way forward may be seen.

We join our Korean sisters and brothers in prayer and solidarity that one day in your kairos, walls, fences or borders that separate us one from the other will be no more and that wars shall cease.

In the name of Jesus, who promised us true and lasting peace,
Amen.

5월 2주

5·18 민중항쟁 기도문

안성례 장로
전 5월 어머니회 회장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40년 전 군부독재 계엄군에 의해 광주가 살육의 도시가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계엄군이 비 오듯 쏟아대는 발포현장에서 피 흘리며 쓰러지는 광주시민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당시 병상에서 치료받는 부상자들과 의료진들 속에 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과 사랑하는 내 남편을 잃은 유족들이 지난 40년간 너무도 쓰리고 아팠던 세월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5월의 피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아 광주시민들은 학살자를 법정에 세우고, 5월 항쟁정신을 해마다 망월묘역에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5월 항쟁정신이 아시아를 넘어온 세계에서 아직도 독재정권 아래 고통받는 이들의 모범과 희망이 되어 온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쿠데타로 정치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일당은 “12. 12 군사쿠데타 40주년 기념 자축연”을 여는 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은 아직도 살아서 “발포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헬기사격도 없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5. 18 망언 3인방”은 “5. 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 폭동”이라고 했고, “5. 18 국가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광주유공자를 모욕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5월 항쟁 기간 그 많은 여성들이 당한 성폭행은 아직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5월 망언자들은 처벌되지 않았고, 발표명령자도 나오지 않고, 전두환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있으며, 진정한 회개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의 심판자요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5. 18 망언자와 편횡세력들에게 정의를 세우소서!

새 국가가 5. 18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40년 전 희생당한 광주의 영령들을 위로하시고, 유족들 위에도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 안에서 한없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고, 남과 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며, 가난한 자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평화통일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증언 4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 나의 길

폴 슈나이스 (Paul Schneiss) 목사

한국 친구들과 함께 한 나의 “순례”는 1972년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나의 친구들은 유신헌법 반대시위에 동참했다. 이후 친구들은 민주주의를 향한 결의를 표하며 삭발을 단행했고, 대학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일본의 한 호텔에서 살해를 목적으로 한 김대중 납치사건이 발생했다.

1976년에는 서울에서 많은 친구들이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나는 1975년부터 일본교회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었고, 일본교회와 독일교회를 대표하여 여러 재판을 방청했다. 나는 거의 매주 도쿄에서 서울로 건너가야 했다. 그런데 1977년 겨울, 한국 정부는 나를 ‘비우호적 인물 (PERSONA NON GRATA)’로 선언하고 10년 이상 입국을 불허했다. 체포와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았던 친구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 당시 수백 명의 학생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성직자들이 고통을 당했다. 수많은 가짜 기소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 그 중에는 너무나 사랑하는 성남 지역 민중교회 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쿄에서 지내는 동안 일본의 기자들, 교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서 오는 소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한

국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그들의 전국적 활동은 자신들의 소망을 표현할 목소리도 힘도 없었던 많은 한국인들에게 힘이 되었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한국 안팎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회가 올 수 있다고 희망했지만, 1979년 12월에 또 다른 군 장성이 권력을 장악했다. 처음에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통해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는 큰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5월 17일, 나의 아내는 미국인 친구와 함께 도쿄에서 서울로 건너갔다. 그때 그들은 민주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던 학생, 노동자, 그리고 교회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모을 계획이었다. 가까운 친구들, NCKK 인권위원회, 가톨릭 신부, 학생들, 교수들, 그리고 노동조합원들을 만나고자 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소음이 들렸고 트럭, 자동차, 탱크, 군대가 나타나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왜 그렇게 많은 군대가 도시를 통과하는 건지, 호텔에 머물던 두 여성은 너무나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몇 시간 동안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다음 날 아침, 아무도 호텔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질문만 있을 뿐, 답은 없었다. 나의 아내는 호텔에서 나갈 기회를 얻었고, 어떤 소식이라도 듣기를 바라며 신문사 사무실에 들렀다. 그러나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없었고,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통행금지 시간이었지만 막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호텔에서는 더 혼란스러웠다. 9시 정도에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 연결되지 않았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 한 명이 남쪽에 있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군대가 광주를 급습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고, 많은 친구들이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 때문에 아내와 아내의 친구는 만날 수 없었다.

나는 도쿄에서 기다렸던 아내의 연락을 받았고, 독일 기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 중 한 명은 신속하게 서울행 비행기를 탔지만, 서울에서 광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기차도, 버스도 없었고 광주에 친구도 없었다. 그럼에도, 다음 날 그는 광주에 도착했고 그가 본 것을 영상에 담았다. 그리고 그 영상을 도쿄행 비행기로 보냈고, 그는 다시 광주로 돌아갔다.

나는 독일 TV 기자들과 협력하며 그 원본 영상을 보았다. 며칠 후 이 영상은 독일에서 방송되었고, 전 세계로 퍼졌다. 지금까지도 나는 그 영상에 대해 표현할 수가 없다. 내 아내와 그녀의 친구가 도쿄로 돌아온 후 3일 정도 지나서 나와 기자들에게 말해준 바에 의하면, 당시 어디에나 경찰과 군인들이 있었다고 한다. 몇 주 동안 광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힌즈피터(Hinzpeter) 기자가 찍은 사진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미 정부가 한국군대의 광주시민 진압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한군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가 시민을 진압한 것이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wangju_-_May_18th_National_Cemetery_-_graves.jpg

한국 입국이 다시 허용된 후 1988년, 나는 독일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곧장 광주의 묘지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하루 동안 머물렀다. 1980년에 사망한 사람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고,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시신 발굴이 필요했다.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있다. 1976년 김지하를 비롯하여 법정에 섰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장소들이 있다. 민중교회와 성남, 광주, 그리고 제주도이다. 올해에 다시 이 노래가 들려온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3

최준기 신부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우리의 하나 됨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활의 참 소망을 몸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주님!
구약의 출애굽 사건처럼 암울한 식민지의 시대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평화의 땅을 주시는 희망의 주님!
어두운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몸을 숨기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는 평화의 주님!

우리는 당신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로 자유를 얻었고, 우리의 공로보다
는 당신의 선물로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는 당신을 저버렸고, 당
신보다는 외부의 조건과 힘을 믿었기에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시간을 바라보게 됩니다.
배제와 차이와 차별 그리고 우월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고자 우리는
노력했고 그 노력은 바벨탑처럼 당신의 뜻에 도전하며 분단을 영속화
시키는 우리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평화는 항상 자신을 버림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나를 고집하며, 남을 배제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평화를 얻을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지는 평화가 당신과 우리가 하나이듯 남과 북도 하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이 분단의 땅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 땅에 평화를 심어 정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평화의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AY
Week 2

Prayer in Commemoration of the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Elder Ahn Seong-Rye
Former chair of May Mothers

God, who lives in history!

Forty years ago, when Gwangju became a city of slaughter at the hands of the military dictatorship martial law forces, our God was present bleeding with Gwangju citizens at the site of the shooting where the bullets of the martial law army fell upon the citizens like rain. Thank you for being present at the sickbed of the injured seeking treatment and among the medical staff tending to the fallen at that time. I believe that God has remained with my children, the apple of my eye, and the bereaved families who lost their loved ones, who have suffered bitterness and sickness for the past 40 years, and I thank God for that.

As the blood of that month of May was never shed in vain, Gwangju citizens have taken the perpetrators of that massacre to court, and we celebrate the spirit of that May's resistance struggle at Mangwol Cemetery Station every year. I am thankful for that May's spirit of resistance that has served as an example and as hope for those in

Asia and throughout the world struggling against dictatorship.

God of justice!

Chun Doo-hwan and his group, who seized political power in a coup d'etat, now face a new flurry of trouble for holding a "40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Dec. 12th Military Coup D'etat." Massacre Chun Doo-hwan is still alive and lies about "no firing orders" and "no helicopter shooting." The massacre perpetrator, Chun Doo-hwan, is still alive and continues to lie about there being "no orders to fire" and "no helicopter shooting."

The Liberty Korea Party's "May 18th Reckless-Words-Trio" insulted the Gwangju People of Merit by calling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 "Gwangju Riot" and saying, "We are wasting our taxes by creating a May 18th Group of National Merit for a Group of Monsters." Unfortunately, the sexual assault that many women suffered during the May uprising has also yet to be uncovered. The May 18th Reckless-Words-Trio have not been punished, the orders to fire on that day have not been published, Chun Doo-hwan falsely covers up the truth, and he has not offered any real repentance or apology.

God, the Judge and Resolver of history!

Uphold justice against the May 18th Reckless-Words-Trio and the powers of denigration!

Let the newly elected National Assembly handle the mission of the Special Committee on Fact-finding on May 18!

God of reconciliation and peace!

Comfort the spirits of Gwangju, who were sacrificed 40 years ago,
and let them be blessed in the light of Christ's grace!

May God grant us “God’s Nation”, where God's justice and love are overflowing on this earth, where South and North Korea are united in God's love, and the poor live with hope and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I pray this sincerel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is the eternal hope of this world, of our people, and of the Korean Church.
Ame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May_18th_Movement_Archives11.jpg

Witness 4

My walk with Korean friends

Rev. Paul Schneiss

My “pilgrimage” with friends in Korea started in Germany when I joined a demonstration of these friends against the Yushin-Constitution in 1972. Later my friends cut their hair to show their commitment to democracy and were dispelled from the university. The next experience was when Kim Dae Jung, the later president, was kidnapped from a hotel in Tokyo in broad daylight to be killed on his way to South Korea.

In 1976 many of my friends were arrested and put to trial in Seoul and I was asked to attend these trials on behalf of my German church and my Japanese church, where I was serving as a missionary since 1975. Nearly every week I had to travel from Tokyo to Seoul – In December 1977, the Korean government declared me a persona non grata and expelled me for more than 10 years. It was hard not to be able to meet the friends who were arrested, tortured, put to trial. Hundreds of students and workers, some clergy too. A lot of fake indictments led to death sentences. Among them a member of my beloved minjung church in Songnam-city, near Seoul.

During those years in Tokyo I had the chance to share the news from Korea with journalists, church people, politicians and students in Japan. Their nationwide movement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as encouraging for many people in Korea who had no voice nor power to demonstrate their own hopes. When president Park was assassinated in October 1979 many people in Korea and outside hoped that democracy and human rights would have a chance - but another military general took control of the country in December 1979. At first there was great hope that the country would move for real democracy and the establishment of Human Rights as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the whole country. But then in May 1980 developments took on a very different character.

On May 17 my wife and her American friend travelled from Tokyo to Seoul. They were expected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activities of students, workers and churches who were all campaigning for true democratic political developments. They were expected to meet close friends, the Human Rights Committee,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a Catholic Bishop, students and professors, and members of labor unions. Then suddenly this noise: trucks, cars, tanks - the military was appearing and moving in a southward direction. This took hours and hours: why was so many military moving through the city? A very strange feeling overcame the two women in their hotel, but they followed these moves for hours. In the early morning they realized that nobody could leave the hotel. And nobody knew why. Only questions, no answers. My wife found a way to leave the hotel and dropped in at a newspaper company hoping to get any news. But nobody was there to talk to.

So she went back to her hotel. Though there was curfew nobody stopped her. But at the hotel there was still more confusion. Nobody knew what really was going on. About 9 o'clock my wife tried to phone some friends, most without connection. Only one very good friend told her that something is going on in the south, that is Kwangju, and that the military is making an assault on the city of Kwangju. Then another friend, she called by phone, told her, that many of our friends had been arrested by police. Because of this situation my wife and her friend could not meet.

Then my wife called Tokyo. I was waiting for this call. After that I contacted German journalists. One of them took the next plane to Seoul. From Seoul to Kwangju travelling was not easy: no train, no bus, no friend in Kwangju. Yet, the next day he managed to arrive in the city and filmed what he saw. He took the film to the next plane bound for Tokyo – and returned again to Kwangju.

This original film I saw when I cooperated with the journalists of German TV. A few days later this film was shown on TV in Germany and all over the world. Until now I cannot describe the film. When my wife and her friend arrived back in Tokyo some three days later they told me and the journalists more of her experience: police and soldiers were everywhere. For weeks people in Kwangju could not be reached by phone. But the most frightening experience were the pictures brought by the journalist Mr. Hinzpeter. Very quickly we learned that the then US-government had given permission to the Korean military to make the assault on Kwangju citizens, the military that was expected to defend against any North Korean aggression.

When I finally was allowed to enter Korea again, in 1988 (travelling from Germany) I went straight to Kwangju cemetery and stayed there for one day, when families and friends of persons killed in 1980 had to be exhumed to find out about their identity. - These faces I will never forget are of those who were on trial in court, starting with Kim Chi Ha in 1976, and their families; the places I love are Songnam with the minjung church, Kwangju and Chejudo. This year I hear anew: “We are marching on; keep faith n follow u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wangju_-_May_18th_National_Cemetery_-_graves.jpg

Prayer for Peace 23

Rev. Peter Choi Jun-Gi
General Secretary, Anglican Church of Korea

Jesus said to them again,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John 20:21, NRSV)

O Lord Jesus, God incarnate,
who died on the cross to show us the true hope of resurrection!

O Lord of Hope,
who gave us a new land of peace in a gloomy Japanese colonial
era as you liberated the people of Israel from the bondage of
slavery!

O Lord of Peace,
who reached out first to the disciples who hid themselves in fear
in the upper room!

You have given us love and hope as your amazing gifts rather
than our own merit.

We have turned away from you by following the paths of greed
and our desires.

We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division as we trust in foreign

powers rather than you.

As this year 2020 re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Korean War, we look back to the past.

We tried to prove ourselves through exclusion, discrimination, and superiority, and those vain acts perpetuate the division as the ancient people built the Tower of Babel.

We have learned that the peace of God is always possible by denying ourselves, but we never achieve your peace by practicing the exclusion.

As we become one with your peace, may the North and the South become one in your peace.

Lord, help us to faithfully respond to your calling to be peacemakers in this divided land and make us the instruments of your peace.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the Lord of peace, who sows peace and harvests justice.

Amen!

5월 3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4

루츠 드레셔(Lutz Drescher, 도여수) 선교사
독일 동아시아 선교회(DOAM) 회장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자비는 한계가 없으며 모든 경계를 넘을 수 있기에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남북한 주민 모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정의 하나님,
당신은 한국전쟁 당시 남북의 주민들이 겪은 고통을 알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당신은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해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어떠한 미움보다 강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는 한반도의 주민들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포용
하며 하나가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라는 믿기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5

이이즈카 타쿠야(IIZUKA Takuya) 목사
일본기독교협의회(NCCJ) 동아시아화해와평화위원회 위원장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일본인들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
실현을 도울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1910년, 일본 정부는 강제 병합으로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
이후 일본은 제국주의 정책을 시행했고 정책의 중심에는 일황의 절대
권력이 있었습니다. 36년 간, 일본 정부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분야
에서 한국 사람들을 차별하고 착취하고 박해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에 휘말렸고, 전쟁이 끝나면서 두 개의 나
라로 갈라졌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할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직면하며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일본 교회는 일본 정부가 한반도를 침범하고 박해하고 불법 점령했을
당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일본 정부
의 전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
다.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한국 사람들과 연대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평화 통일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과 남, 일본이 평화 통일을 공동 기도 제목으로 삼게 하시옵소서. 주님, 조선그리스도교련맹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일본기독교협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게 하시옵소서.

세계의 창조자이자 지배자이신 하나님께서 “지금이 바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때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여 빈곤, 차별, 박해 문제 등 공동 과제를 위해 협력하고 소망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따라 “화해의 임무” (고후 5:18)를 완성하게 하시옵소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6

나해집 목사
열림교회/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 공동대표

평화의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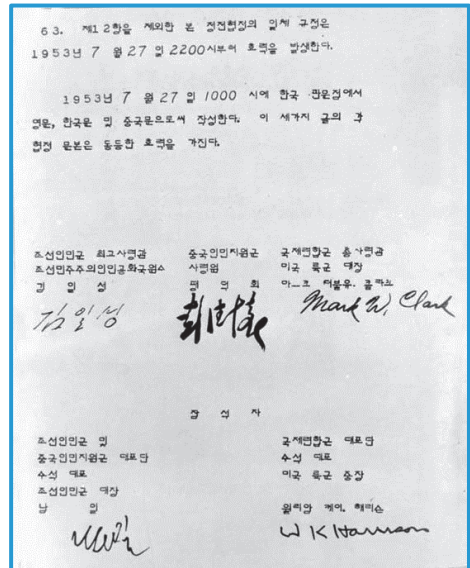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70년 전 이 땅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70년 전 한국전쟁은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하여 희생을 당했습니다. 내전은 국제전으로 비화되었고 전쟁에 참여한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는 것 같았지만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에 정전분단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DMZ)안에는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던 군인들이 땅속에 묻혀 뼈들이 튀어넘어 있습니다.

분단체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랜 세월 이국의 땅속에 묻혀 있게 했습니다. 이제 한국전쟁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벨론 포로에서 회복하게 하신 것처럼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린 일들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는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곧 세계평화를 가져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평화체제 아래서 분단이 극복되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군인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싸웠던 아픔의 자리에서 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분단의 넘

어 남과 북이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시며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곳곳의 분쟁과 아픔의 자리에 희망을 주는 평화의 물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집단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안보프레임을 넘어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rayer for Peace 24

Lutz Drescher

President, East Asia Mission in Germany (DOAM)

God of Love,
we praise you because your compassion and mercy has no limits
and is able to cross all borders.

God of Mercy,
we thank you that you love both, the people in North Korea and
in South Korea.

God of Compassion,
you know how much people in the North and in the South have
suffered during the Korean War and are still suffering.

God of Healing,
you know about the trauma of the Korean War, the devastating
effects of which are still felt.

God of Reconciliation,
you can forgive guilt and your love is stronger than all hatred.

God of Peace,
we praise you because the day will come
when the Korean people will accept themselves as brothers and
sisters and will embrace each other and will be one people.

Prayer for Peace 25

Rev. IIZUKA Takuya

Chair, The Committee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in East Asia,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

God who created and governs the heavens and the earth, as we pra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the Japanese, confess that we have a responsibility to help make that happen.

In 1910, the Japanese government colonized the peninsula by forcible annexation. Since then, Japan implemented imperial policies that placed the Emperor's absolute power at its core. For 36 years, the Japanese government had persecuted, exploited, and discriminated against people of the Korea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religion. As a result of becoming a Japanese colony, the Peninsula got involved in the Second World War, then w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at the end of that war. There are no "ifs" in history, but we have to ask, "What if the Korean Peninsula had not become a Japanese colony...?" And the answer is obvious. We, the Japanese, have a heavy responsibility to realize peace on the Peninsula.

We, the Japanese Christians, face this history and repent in front of our Lord. Japanese Churches did not raise voice against the invasion, persecution, and unlawful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Japanese government when it was happening.

Rather, we proactively collaborat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s war effort. Lord, we ask your forgiveness. Lead us not to repeat those mistakes.

It is time for us to actively participate in peace-making on the peninsula, in solidarity with Koreans who seek peace. In particular, peaceful reunif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issue. Let us make this a subject of common prayer for Christians i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Japan. Lord, bring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and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to the same table so we may work together for peace.

Our Creator and Governor of this world declares that "Now it is time" for us to mak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et us, the Christians in Korea and Japan, collaborate in our common mission to address such issues as poverty, discrimination, and persecution, in the hope that we may complete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II Co. 5.18) by following the Gospel of reconcilia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Prayer for Peace 26

Rev. Ra Haek-Jib
Yeollim Church
Co-moderator,
Korean Churches' Coalition for North-South Exchange

God of peace,

Give u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we live. Seventy years ago, this land was smudged with blood. Countless young people in 21 countries sacrificed their lives. The internal war sparked an international war, and many young people in the world who have been involved in the war are buried in this land without returning to their home countries.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brought about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of the Korean War, but the two Koreas are technically still at war, engaged in a frozen conflict. In the DMZ area, the symbol of division, soldiers who were fighting with their guns, now their bodies were lying with their bones completely entangled. The division system has kept many young people unable to return home and buried in a foreign country for many years.

Lord,

We ask you gra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you restored the people of Israel from the captivity of Babylon. Help us to

realize how foolish it is to fight each other. We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broader implications and impact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North East Asi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God of justice,

May we overcome the division and achieve a permanent peace so that the soldiers buried in this land may return to their families. May the flower of peace bloom in the place of pain where we bled and fought bitterly.

May we now go beyond the wall of division and create a win-win community where the North and the South can live together. May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be a wave of peace that gives hope to conflicts and pains around the world. May the Lord of peace awaken us so that we may move beyond the security frame to the path of peace.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came as King of Peace.

Amen!

5월 4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7

로이스 윌슨(Lois Wilson) 목사
전 캐나다 상원의원
전 캐나다연합교회(UCC) 총회장, 전 WCC 의장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투쟁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모든 모순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희망과 성취로 채워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실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로 인해 찬양 드립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장로교회,
캐나다연합교회간의 풍성한 파트너십 역사와
대한민국 민주화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수많은 충실한 증언들,
더 나은 나라를 위해 고통과 억울한 고난을 겪은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위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로 새로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에게는 권력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고 분열시킬 이들에게는

우리를 하나로 감싸고 사랑으로 묶을 수 있는 팔을 주시고
우리가 적이 되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적이 되기를 거부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와 헌신을 가져옵니다.
평화와 화해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깨워주시고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걷는 것을 갈망하게 하소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우리의 헌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생명이 새로워질 때까지: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을,
증오에서 사랑을,
만들어 내시는 부활의 실재를 믿습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8

시미즈 신(Shin Shimizu) 목사
일본루터교회 총회장

은혜와 평화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하신 일로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 일본루터교회를 준비시키셔서 한국루터교회와 주님의 선교에 동역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은 양 교회를 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해오신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 있는 우리 모두를 계속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이 때 우리는 한국 전쟁과 한반도 정전협정이 시작된 지 70년을 맞이합니다. 주님, 그 동안 한반도의 주님의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왔음을 우리 일본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일본 사람들도 한반도의 참 평화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29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도”

이은선 박사
NCKK 화해와통일위원회 위원,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천지만물의 부모님, 하늘에 계신 주님!
지금 이 천지 간에서 제일 아픈 곳이 지구 별이 되었습니다.

Corona 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고통이 계속될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한 문인이 썼다는 글에서,
“아무 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인류가 흔들리고 있으며,
서방의 강국들이 아무리 해도 얻어내지 못한
세계 분쟁지역에서의 전투중지나 휴전을
지금 이 조그만 미생물이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세계 군사 강대국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전쟁으로 내몰고, 힘없는 나라들을 수많은 내전으로 몰면서 생산해온
거대한 무기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위협 앞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주님,
무기. 바이러스. 기후문제.
우리의 탐욕과 잘못된 삶 때문에 발생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어
욕심을 버리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70년 전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분단의 땅 한반도를 기억하소서.

놀랍고 오묘하신 하나님!
이제 한반도를 회복하시어, 지금까지 겪어왔던
온갖 전쟁과 갈등과 빈곤의 고통 속에서 얻어진
지혜와 인내, 사랑의 마음을 온 세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소서.

당신 앞에서 온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더욱 깨닫고,
힘 있는 자나 약한 자가 지구 집의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면서,
이 시간을 모든 나라가 함께 손잡고 이겨내게 하소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가 그 일에서 두뇌처가 되도록,
하루 속히 분단이 극복되고 평화가 자리하도록,
온 세계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Prayer for Peace 27

Rev. Lois Wilson

Former Senator of Canada, Former President of UCC
Former Moderator of WCC

Gracious God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Who has sustained us through all of our past struggles and
suffering;
Who is with us at the present moment, with all its contradictions
and uncertainties,
And who will be with us in a future pregnant with hope and
fulfillment

We bless You for past mercies;
For the rich history of partnership between the PROK and
the United Church of Canada;
For the faithful witness that so many displayed dur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For the comfort you offered to so many who endured pain and
undeserved suffering for the sake of a better country.

Let us pray a new future into being:
To those who wield power, the wisdom to use it wisely;
To those who would disrupt and divide us,

arms to enfold us and unite us with love;
To those who would wish us to be enemies,
a refusal to be enemies.
We bring our deepest needs and commitments into the presence
of the One who makes all things new.

We ask that you disturb our apathy or indifference to
peace and reconciliation.
Fill us with a longing to do justice, seek mercy,
and to walk humbly with You.

We bring before You our commitment to create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We reaffirm the reality of the Resurrection, that brings:
Life out of death;
Hope out of despair;
Love out of hatred,
Until all life is made new, through You.
Amen.

Prayer for Peace 28

Rev. Shin Shimizu
President, Japan Lutheran Church

Dear Go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full of grace and peace.
We praise Your Name.

Lord, thank you for your precious work. Thank you for equipping us so that we, the Japan Lutheran Church, have been able to move forward in mission in partnership with the Lutheran Church in Korea. Your work goes beyond both churches. You have continue equipping all of us in Korea and Japan, as You have throughout our history.

On this occasion we mark 70 years since the start of the Korean war and the armistice in Korean Peninsula. Throughout this time those in Korean Peninsula have been praying for and working towards true peace. Lord, I sincerely pray that we, the Japanese people, will never forget.

We, the people of Japan, join those who continue to pray and wholeheartedly work toward real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everyone in the world. Lord, in your mercy, hear our prayer.

I pray this in the name of our Savior Jesus Christ, Amen.

Prayer for Peace 29

“Prayer for the End to the Korean War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Dr. Lee Un-Sunn
Committee of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NCCK)
Korea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God of all creation,
You have made all things good,
yet we have hurt Mother Earth.

Many people are dying of COVID 19.
We hear the lament and see the tears everywhere.

May this time be an opportunity for us to learn
that the weapons produced by world’s military powers are useless
in the threat of COVID 19 pandemic.

Forgive our greed and evil doings.
We live in a time of war and great suffering throughout the world,
all because of our selfishness and arrogance.

Help us to turn away from the wrongdoing,
Change our way of life to the path of life you lead.

God of wonder,
Comfort those who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division by the foreign powers over 70 years.

We ask you to restore the broken Korean Peninsula.
Help us to use the wisdom that we have learned from
the conflict and division for the peace of the whole world.

Help us to realize that all human beings are one and equal
before you, O Lord!
Help us to recognize the fact that the weak and the strong are
sisters and brothers in the House of Earth.

May this time be an opportunity for all of us to be united
to overcome the pandemic.
May the Korean Peninsula be a sign of hope.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ith your children
all over the world.

Amen!



6월 1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0 “일치와 희망을 위한 기도”

제롬 사하반후(Jerome Sahabandhu) 박사
연합감리교회(UMC) 세계선교부

평화의 하나님,
전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외로움과 혼돈 속에 당신 앞에 나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우리 맘을 당신의 평화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쟁의 상처로 신음하는 한반도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산가족이 기쁨으로 다시 만나고 분단된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주시어, 다시금 한 민족을 이루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온 마음과 가정이, 교회와 성전이, 세계 도처의 도시와 온 나라가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사, 온 세상에서 평화를 일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가난과 고통을 가져오는 온 세상의 불의를 당신 앞에 가지고 옵니다. 불의한 사회적 구조는 하나된 우리를 점점 더 갈라놓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계층과 이주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진과 지도자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지혜를 본받아 하루 빨리 전염병이 박멸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의 정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언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취약한 이웃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예언자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는 온 세상의 미움과 폭력, 분쟁과 분노의 세력을 규탄합니다.
하나님, 더이상은 안됩니다!

한반도에서 나이지리아로, 아일랜드에서 스리랑카로,
아메리카에서 타이완으로,
세상의 모든 곳에서 또한 모든 곳으로 모두가 당신의 자비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의무적으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자비를 함께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로 이끄시는 하나님,
정치적 이념, 인종차별, 온갖 지리적 사회적 경계로 인해 분열된 현실을
우리 마음에 떠올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인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양성
은 우리가 함께 소중히 여겨야 할 하늘의 복된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
서. 통일을 갈망하는 나라와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와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을 추구하는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희망의 하나님,

당신은 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시고, 갈등 속에서 희망
을 창조하시고, 취약한 현실에서 탄력적인 동력을 만들어 내시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의 기적을 이루신 것을 알고 있
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복된 소식을 용감하게 선포하는 희망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담
대한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희망과 새 생명의 하나님 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이끄소서!

샬롬의 하나님, 우리를 평화로 이끄소서!

사람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이끄소서!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1

니달 아부 줄루프(Nidal Abu Zuluf) 박사
동예루살렘 YMCA

오 주님, 저는 남한을 세 번 방문하며 한국 전쟁과 정치적 충돌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한반도 북쪽에 친지를 둔 사람들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갖고 살며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그들의 자녀와 다가올 세대를 위해 평화를 만들어나갈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간적 고통과 정치적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으로 전쟁과 증오, 분단 상황은 종식될 수 있고 사람들은 평화 속에서 살며 모두가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의 자녀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북과 남의 사람들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가 승리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행동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 한반도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지역과 세계의 강대국들이 개입을 중단하고 한반도 사람들이 스스로 화해를 위한 자신들의 길을 찾고 평화 속에서 살며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북과 남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그들이 평화와 화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평화와 화해가 한반도와 그 땅의 사람들에게 끼칠 영향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그들의 앞날에 사랑과 자비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에 맞춰 일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온전함, 사랑과 정의가 이기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부활하신 곳, 첫 번째 교회가 태어난 곳, 전쟁과 폭력과 억압이 여전히 만연한 곳, 이곳 팔레스타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해야 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한국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한반도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선한 피스메이커가 되는 데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2

“한국전쟁 70년, 민족의 화해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해린 청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부회장

영원히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민족은 아물지 않은 전쟁의 상처로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대립, 적대와 갈등의 논리가
화해를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할 때마다,
현재 속에서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보곤 합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셔서
좌절과 아픔을 딛고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어 영원한 은혜를 주시듯,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 하나가 되는
은총의 새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화해와 하나 됨을 간구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rayer for Peace 30
“A Prayer for Unity, Hope, and Compassion”

Dr. Jerome Sahabandhu
Mission Theologian in Residence, Global Ministries, UMC

God of Peace

We come to you amidst the vulnerability and chaos, the isolation and loneliness resulting from Coronavirus. This virus has now become a global crisis. So many have died, so many are still suffering, and so many have lost their loved ones. We yearn for peace in our hearts yet are filled with anxiety.

We also come to you in solidarity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Korean Peninsula, lamenting the brokenness of war yet hoping for lasting peace and unification. We pray with all People who yearn for their families to be reunited and who long to build one nation. Let that day arrive soon.

Grant thy Peace O God, so that right in the middle of this crisis, we shall have peace in our hearts and homes, cities and villages, churches and temples, nations and cultures.

Remind us once again of the truth that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Children of God”. We lift all people who day and night work for peace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You are the God of Peace.

God of Justice

We bring to You all injustices happening around the world, which is too often filled with greed and profit, poverty and human suffering, marginalization and isolation. Unjust structures have kept human communities apart from each other, denying our oneness and common humanity. Even during this global health crisis, we have seen how vulnerable our communities are, how many do not have a decent living, who live under severe oppression, and who are on constant migration.

We lift up all those who are victims of coronavirus, especially those in the hardest hit regions of Korea and throughout southeast Asia. We praise God that healthcare personnel and leaders were able to flatten the curve of the virus and controlled its spread. We also pray that their wisdom shall be shared globally to eradicate the pandemic.

Give your Justice O God, so that we shall engage in the prophetic and disturbing work of justice. We shall work for justice for our neighbor and justice for the children and justice for the most vulnerable.

Return us to your call that “justice will roll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n overflowing stream”. We earnestly call on you, so that all shall be awakened to the mindfulness of justice and to the heartfulness of mercy.

You are the God of Justice.

God of Compassion

We denounce all forces of hatred and violence, anger and wrath, abuse and division; they are too many. Enough is enough! People are longing for love and grace, compassion and care, connection and solidarity.

In your Compassion look towards us all O God, so that we shall be empowered to be a people of compassion from Korea to Nigeria, from Ireland to Sri Lanka, from America to Taiwan,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Even as COVID-19 requires mandatory times of social distancing, may we not forget to be compassionate to the people near and far. Give your compassion to all humanity. You are the God of Compassion.

God of Unity

We recall all disunity that we have caused, marked by race and ethnicity, caste and class, political ideologies and geographical boundaries, even gender barriers, even social affiliations. Transform all that divides us.

Bestow your Unity O God, and help us recognize that we are one single humanity. Remind us that our diversity is to be celebrated

and cherished, respected and heard. Help us understand that we are one human family called to take care and look after one another. We pray for the countries that are struggling to be united, churches that are thirsting to be together, nations that are yearning to be equal in dignity.

Unity is your gift, so help us to be in unity at all times striving together in community.
You are the God of Unity.

God of Hope

We know that amidst crisis you create something new, amidst conflict you create hope, amidst vulnerability you create resilience, amidst darkness you create light, amidst death you create resurrection. Deliver us from the spirit of fear and give us “courage to be”!

Help us to be resilient O God, and empower us to be agents of hope and practitioners of your good News.
You are the God of Hope, you are the God of a New Life.

God of Life – Lead us to light,
God of Shalom – lead us to peace,
God of People – lead us to unity.
Amen

Prayer for Peace 31

Dr. Nidal Abu Zuluf
East Jerusalem YMCA

Oh Lord, I visited South Korea for three times and felt the pain of many people who have lost family members due to the Korean War and political conflict, and who have relative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Peninsula. They have the full right to live with hope and build peace for their children and the generation to come, away from war and sufferings.

Lord hear our prayer.

Oh God, despite of the human sufferings and political instability, we know that with your help and intervention, war, hate and the state of separation can be ended and people can live in peace and see that they are all your children and created on your image. We pray that for the People of Korea in the north and south be filled with hope and act for a better future for their own people where peace and reconciliation prevail.

Lord hear our prayer.

We also pray for the regional and global powers who have always played a bad role in the Korean Peninsula to take their hand off and leave the people to find their own way for reconciliation, live

in peace and build a better future and live life abundantly.

Lord hear our prayer.

We pray for the leaders of North and South Korea be granted with wisdom and love, Oh Lord, to see the beauty of peace and reconciliation and its impact on the Korean people and Peninsula.

Lord hear our prayer.

We pray for the youths and children in the Korean Peninsula to see the light of love and mercy in their future and work accordingly. We ask you Lord to fill their hearts with hope and commitment to be involved in building a better future where human dignity, integrity, love and justice prevail.

Lord hear our prayer.

From Palestine, the birth place and the resurrection pl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births place of the first Church, where war, violence and oppression still prevail, we believers feel committed to work for Global peace and Justice. We believe that the Korean case is ours. Lord, grant us the power and dedication to be good peacemakers for the Korean People and for the whole humanity.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we pray. Amen

Prayer for Peace 32

“Prayer for the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ark Hae-Rin
Vice President, NCKK

Eternal God,
Koreans are still suffering from the scars of war.
We often see the painful wounds of the past in the present
whenever ideologies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hostility and
conflict block reconciliation and threaten peace.

God, who leads us to hope,
We pray that you give u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o restore
all the broken things so that we may go forward to reconciliation
and peace in the face of frustration and pain.

Just as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are united, and
give the grace of eternity,
We pray that you give us a new day of grace for the South and
the North to become one.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s we pray for the national
reconciliation.

Amen!

6월 2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3 “분열된 세계를 위한 고백의 기도”

데렉 던컨(Derek Duncan)
그리스도의교회(제자회), 미국연합그리스도의교회 세계선교국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잘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면,
우리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며,
우리 모두의 하나님 당신이 온전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분열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거룩한 진리를 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의 신성한 임재 안에 함께 있음에도,
너무 자주 스스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방법에 기울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카로운 경계를 그리고 높은 벽을 짓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이들을 향해 있고,
우리과 같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들에 맞섭니다.

우리는 미국의 죄를 고백합니다.
미국은 ‘안과 밖’, ‘우리측’이나 ‘반대측’과 같은 잔인한 구분을 만들어

이 세계에 두꺼운 판을 쌓고 있습니다.
운명론에 빠져 우리의 논쟁과 역사 속에
생득권이라는 신화를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특권의 벽 뒤에서
의심의 씨앗과 전쟁에 대한 유언비어를 뿌리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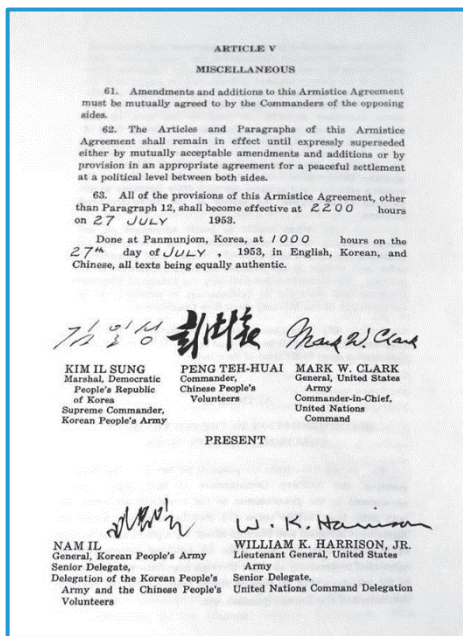
우리가 이 사회적 전환의 시간을 많은 분열로부터
안식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게 하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돌아가, 이 갈라진 세계에서 일치를 향한
당신의 비전을 다시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가 의심을 뿌린 곳에서, 이해를 거두는 방법을 보여 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창조로부터 떨어진 곳에서,
겸손하게 이 땅 위를 걷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가 평화 위에 전쟁을 택하고
생명 위에 죽음의 제도를 만들었던 곳에서,
분열된 땅의 화해를 위한 대리인이 되게 하소서.
70년 넘게 나뉜 한반도 사람들이 다시 하나 되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영감을 주소서.
아이를 나누지 말아 달라고 솔로몬왕에게 애원하던 어머니와 같이,
우리가 사랑 안에 더 큰 지혜가 있음을 선언하게 하소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께 속해 있으며
당신의 창조의 온전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알력이 약해지고,
우리가 한때 매달렸던 관계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리고 당신의 품을 향한
 새로운 갈망 안에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우리를 당신께로 화해시키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4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한 기도 (ORACIÓN POR LA PAZ DE COREA)”

아돌포 아리아스 욥(Adolfo Arias Job) 목사
멕시코민족장로교회 총회장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각 나라와 족속에 복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땅과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사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한반도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 그리고 죽음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귀는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줄 알기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한반도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토지, 강과 바다, 그리고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나타나 주님의 평화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은 주님이 우리 모든 세대의 피난처이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시기를 시온 산과 같게 하사 영원토록 요동치 않게 하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주님 손이 이 나라를 굳게 붙드실 줄 믿으며 주님의 은혜와 손에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존귀와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5

“평화의 약속이 지켜지게 해 주세요”

손준혁 어린이
용정초등학교

하나님,
2년 전 저희는
남과 북의 어른들이
판문점에서 만나
평화를 약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평화의 약속은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기만 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은
남북 평화의 시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함께 평화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주변 강대국들이 잘 협조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남북이 다시 서로 불신하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어렵게 다시 쌓아가는 신뢰가 사라지지 않도록
남과 북이 서로 한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JUNE
Week 2

Prayer for Peace 33

“A Prayer for Confession for our Divided World”

Derek Duncan

Glob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God, Creator of all lands we inhabit and souls we meet,
You beckon us to know in our hearts that if we do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in you,
Then we are wholly yours, and you, God of all, are fully present,
And that there is no division in your divine love.

Yet we confess to you that too often we forget this Holy truth.
Too often, although we all share in your divine presence,
we are preoccupied by self.
We incline toward our own devices.
We draw sharp lines and build tall walls.
We turn toward those we perceive to be like us,
and against those we claim are not.

From America we confess the ways our nation stacks
the global deck with such cruel distinctions as in and out,
with us or against us.

Enamored of our destiny, we inscribe in our polemics and
histories myths of inherent right.
Our leaders cast seeds of suspicion and rumors of war from
behind palisades of privilege.
Forgive us, Gracious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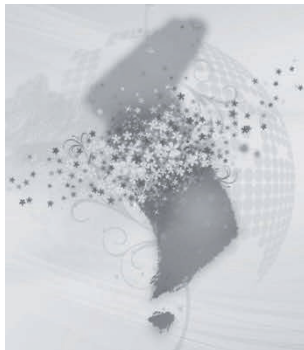
May we use this time of social transformation as a Sabbath
from our many separations.
May we turn to you, reminded again of your vision
for unity in our fractured world.
Where we have sown fear, show us how to reap understanding.
Where we have become estranged from your creation,
help us walk humbly on the earth.
Where we have chosen war over peace and
invested in systems of death over life,
may we be agents of reconciliation in divided lands.
After more than 70 years may the Korean people especially
be reunited, we pray.

God of Hope, inspire us during this time of crisis.
May we, like the yearning mother who petitioned King Solomon
Proclaim there's greater wisdom in a love that
Refuses to allow our children to be divided.

Thank you, Comforting God, that we belong to you and that
we share the wholeness of your creation.
When our human factions have worn thin,
and the connections we may have once clung to no longer hold
meaning,

may we be assured in knowing that
we can abide in you and in your love.
Bless us in our renewed yearning for each other and
for your embrace.

In the name of Christ who reconciles us to you,
we pray this prayer of confession. Amen.



Prayer for Peace 34

“Prayer for peace of Korea”

Rev. Adolfo Arias Job
Moderator of the General Assembly,
National Presbyterian Church of Mexico

Lord, Almighty God, in the name of your beloved Son Jesus Christ we approach you, recognizing that you are the Sovereign, owner of all that exists, and we are knocking on the door of your mercy imploring your grace and favor.

Father, we beg you to bless every people and nation; because yours is the earth and its fullness, the world and those who inhabit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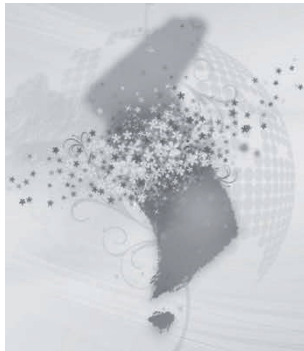
Father, we place the Korean Peninsula in your hands, and we pray that you establish your peace in the hearts of its rulers; so that the experiences of the pain, suffering, and death of the past caused by the wars are not repeated today.

We come to you Lord with an attitude of reverence, knowing that your ear is attentive to our supplications and we ask for the Korean Peninsula, that you bless its people, its soil, its rivers and seas, and its rulers. We entrust your grace to all this continent so that your peace becomes manifest.

Lord we come to you, because you are our refuge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you are our shepherd who leads us through the green pastures, and the fresh waters. You have promised us that those who trust you are like Mount Zion, that they cannot be moved but remain forever.

In your hands we put this nation, O God; we abandon it to your grace trusting that your hand will support it.

We appeal to you for all of this in the glorious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whom be honor and glory forever, ever, Amen.



Prayer for Peace 35

“Lord! Help Us to Keep the Promise of Peace”

Son Jun-Hyuk
Yongjeong Elementary School

God,
We saw adults of South and North Korea met at Panmunjom
and promised peace two years ago.

But,
It is too sad that the promise of peace
is not yet fulfilled.

God,
We heard that the Panmunjom Declaration and Pyongyang
Declaration are the fastest way to reach the inter-Korean peace.

God,
We pray that we will be able to keep the promise of peace together
with the cooperation of great powers around us.

God,
We are afraid that the promise of peace may not be kept and that
North and South Korea might distrust each other again.
Let the South and the North unite with each other!

We pray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6월 3주

2020 민족화해주간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예배 설교

온 힘을 다해 평화를 구하라
(창세기 32: 24~32)

육순종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한국전쟁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중단되었지만, 3년 동안의 전쟁은 한반도에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일상은 무너졌고,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생사도 모른 채 흩어졌습니다.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죽거나 다친 인명 피해가 남쪽 군인과 민간인이 200만 명, 북쪽 군인과 민간인이 330만 명, 중공군은 36만 명, 그리고 미군도 14만 명 정도입니다. 모두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소중한 생명들을 앗아갔고, 살아있어도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이 가족과 고향을 떠나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눈물 지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브루스커밍스는 그의 책 ‘한국전쟁의 기원’ 머리말에서 한국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끝인) 1953년 한반도는 젓더미가 되어 있었다. 남쪽의 부산에서 북쪽의 신의주에 이르기까지, 한국인들은

죽은 자들을 묻고 잃은 것들을 슬퍼하면서, 그들 생의 남은 것들을 주워 모으노라고 여념이 없었다. 수도 서울에서는 콘크리트와 파편이 뒤범벅이 된 길가에, 텅 빈 건물들이 마치 해골처럼 서 있었다. 북쪽에서는 현대식 건물이라고는 거의 다 썩대밭이 되었다. 평양 등의 도시들은 벽돌과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 마을들은 텅 비었으며 거대한 댐들은 더 이상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 3년간의 한국전쟁이 남과 북의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남은 것이라고는 무너진 가정과 산업시설, 그리고 서로 간의 증오뿐이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이 2008년 평양 봉수교회에서 공동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쪽 기독교인 100명 정도가 서울에서부터 북쪽의 전세기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순안공항에서 평양 시내까지 남쪽 기독교인들을 안내하는 직원은 버스 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이 평양을 용단 폭격 했습니다. 당시 평양 인구가 40만 명이었는데 미군 폭격기는 40만 톤 이상의 폭탄을 무차별적으로 투하했습니다.” 지금도 북쪽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미국=기독교=원수’라는 도식이 강하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1인당 1톤씩 투하된 폭탄에 온 몸이 찢겨 죽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쟁은 끔찍합니다. 술한 생명이 희생되고, 서로를 원수로 만듭니다. 도대체 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역사에 정의로운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얼굴을 지닌 전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쟁은 결코 인간적일 수가 없고 낭만적이지도 않습니다. 오직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내가 살려면 상대방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구조적으로 악이며,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기독교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불의입니다.

워싱턴 DC 국립묘지에는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이것을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수십 만 미국의 청년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에 와서 포탄이 쏟아지는 전쟁 한복판에서 혹독한 추위와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쓰러지고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에 감사와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또 전쟁은 노근리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실수든 고의든 죄 없는 양민들도 무참하게 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모순과 아픔은 인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파생된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물음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은 유난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능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신의를 배신하기도 하고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공이 지상목표였던 그는 실제로 성공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절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인 삶의 전환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야곱이란 캐릭터는 현대인의 모습을 투영하면서도, 신앙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야곱은 매우 지혜롭고 영악한 사람입니다. 반면 그와 경쟁하며 인생의 패권을 다툰 예서는 거칠고 우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계보는 장자인 예서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는 이러한 아이러니에 대한 해명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크게 성공합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외삼촌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정도로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지략과 노력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라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는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에게는 훈련된 400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인생은 때로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동안 이룬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내용은 달라도 살면서 누구나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힘을 잃지 않고 오늘까지 전승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를 멋지게 극복하고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됩니다. 형과 화해를 통해 온 가족의 생명을 유지했고, 평생 모은 자산을 지켰으며, 12지파의 창시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실제적인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인생역전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승리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는 압복 나루였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고향 쪽으로 향하게 한 후 압복 강가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오래 전 헤어진 형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형을 만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형의 분노가 그의 삶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 화해일지, 전쟁일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밤에 야곱은 압복 나루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합니다. ‘압복’은 히브리어 동사 ‘바카크’(בָּכַח)에서 파생된 것으로 ‘졸졸 소리 흐르는 소리를 내다’ 또는 ‘잔을 비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명을 결정짓는 결전의 자리임과 동시에 자신을 비우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여기 씨름의 대상은 천사라기보다 사실은 하나님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에게 씨름을 걸어온 사람을 형이 보낸 자객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야곱으로선 질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20년을 고생해서 이룬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씨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립니다. 모든 것을 걸고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흔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석되는 이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의 ‘엘’(하나님)을 호격으로 풀이하여 ‘하나님이 이기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다’로 해석하는 것이 본문의 맥락에 적합합니다. 실제 씨름 막판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 천사에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장소를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야곱은 그 날 목숨을 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20년 만에 형제가 만나는 장면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형제는 서로 입 맞추고 읍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은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이다.” (창 33:10) 압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압복 나루의 결전을 통해 야곱이 변화되었고, 에서의 마음도 녹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난 형은 예전의 형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압복 나루에서 만난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건 씨름을 통해 평화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평화의 하나님으로 인해 형제화해의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

인 압박 나루에서 자신이 이룬 것을 지키려고 결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사적으로 매달려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70년 전의 비극적인 전쟁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극한 대립으로 살아왔던 지난 냉전시대의 상황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세월을 수포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곧 파멸입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이룬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7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발달한 무기체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희생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됩니다. 이 전쟁을 막으려면 우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평화를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라고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합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매달림과 기도를 통해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엉덩이 관절이 부러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욕망이 무너지고, 우리 안의 증오가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습니다. 평화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세기 가장 치열했던 전쟁,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전쟁은 세계 냉전체제가 맞부딪힌 전쟁이고, 동족상잔의 전쟁이어서 매우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도 험난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당사자들은 물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NCKK는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기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평화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압복 나루에서 모든 것을 걸고 씨름했듯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고통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 북이 서로를 끌어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북만이 아니라 한반도 둘러싼 미, 중, 일, 러와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 끝난 지 67년이 되었지만 한반도는 아직 정전 상태입니다. 실제로로는 전쟁이 끝났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반도 불안의 근본 요인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고 남북이 전 세계와 더불어 선언해야 합니다. 종전선언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종전선언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평화조약을 맺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조약은 양쪽 당사자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NCKK는 2013년 부산총회 이전부터 한반도의 평화조약 체결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그동안도 전 세계의 교회들이 동참해주었지만, 더욱 깊은 관심으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압복 나루의 야곱처럼 온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브니엘'의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만나므로 서로를 신뢰와 사랑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보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한반도에

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남·북·미의 정상
이 만나 대화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년 전 4.27 남북 정상 만남
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평화조약과 평
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무조건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만나
서 흥금을 털어놓고 진심을 나누며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
화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뢰회복과 평화의 길이 활짝 열리리라 믿습
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 평화를 향한 역사의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전쟁의 상처는 치유되고 전쟁의 위험
은 사라지며,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룬 화해와 평화가 한반도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0 민족화해주간 기도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기도

짐 윈클러(Jim Winkler) 회장
미국그리스도교교회협의회

은혜로우시며 가장 거룩하신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간절히 평화를 간구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 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전쟁과 증오와 분열을 경험했습니
다. 한반도에 큰 고통을 준 70년, 이 긴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끝없는 전쟁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뜻이 아
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평화를 세우는 일이 정부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의 몫이라는 것
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설교하고,
시위하고, 캠페인을 하고, 로비를 하고, 사람들을 조직해 왔습니다. 이 끔
찍한 전 쟁은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요구와 바람을 들
어 주시옵소서.

비록 70년 이상의 갈등과 반목에 지치고 지쳤지만, 평화에 대한 우리의
열망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절망에 굴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긴 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발생했
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비난과 모욕, 가족의 이별과 정신적 번뇌,
이 모든 고통을 견디어 냈습니다.

지금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병을 겪으면서 거의 견뎌낼 수 없는 압박과 부담이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라는 대의명분을 제쳐 둘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바로 모든 국가들이 적개심을 내려 놓고 지구촌에 거주하는 모든 생태계의 건강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주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당신은 우리를 항상 지켜 주셨습니다. 당신 은 우리의 바위이자 요새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할 때, 우리와 함께 하 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이 살아 계셔서 우리의 자비로운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 멘.

2020 민족화해주간
연대사

바로 지금 한반도에 평화를!

로즈마리 워너(Rosemarie Wenner) 주교
세계감리교협의회 제네바 총무

“기도로 평화를 이루고 전쟁을 종식하자!”
이것은 한반도 희년 세계교회 기도운동의 선언입니다.

“평화를 이루자!”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에 처해 있습니다. TV와 라디오에서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확산으로 인류의 건강과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전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른 긴급한 필요에 대해 잘 잊어버리고 있는 듯합니다. 그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외침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70년 넘도록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공식적인 종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전 협정만 있고, 평화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방어를 구실로 수많은 돈이 무기 구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들을 전개했고, 북한은 핵무장으로 대응했습니다. 군사회는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과 태도에도 독이 됩니다.

평화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

라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과 속한 국가, 그리고 국제 관계 속에서 우선 순위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춤 버튼은 눌러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전에 정상이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남한이 서명도 하지 않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정상 상황이 아닙니다.

많은 정치적 의사 결정권자들은 무장을 증가시키는 것이 유화정책이라고 믿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상황임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제재로 인해 건강 위기에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품 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는 평화를 위한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세계감리교협의회는 한반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평화를 위한 때입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단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는 제재 중단과 개방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사람들은 분단과 고통을 극복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 주한 미대사 제임스 레이니 목사는 2019년 11월 21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2019 세계감리교 평화상’을 수상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생의 노력에서 그가 배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를 악마로 규정짓는 한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오직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대화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씩 평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는 “평화는 모든 인류 번영의 토대이다. 현대 전

쟁은 생명의 종말을 의미한다. 생명의 범주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도구가 되겠다고 우리 모두 서로에게 약속하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배웠습니다. 오직 하나의 지구와 하나의 인류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야 하고, 치유와 화해를 위해 일해야 하며, 삶의 경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2020 민족화해주간 증언

전쟁, 평화 그리고 우리의 미래

정인철
미 1기병사단 수색대원

〈나를 구해주고 전사한 헨리 대위를 밀치고 후퇴를 거듭〉

저는 20대 초반의 나이로 6.25에 참전하였고 충북 옥천 지역 미 1기병사단의 수색 중대 2소대 1분대에 편입되었습니다. 각 소대에 60mm 박격포 1문, 각 분대에 경기관총 1문식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는 무기 사용법을 몰라 미군 헨리대위로부터 실탄장전 및 사격요령을 교육받았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는 전투가 없었고, 충북 영동 황간, 선산, 구미에서 간헐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왜관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왜관 북쪽 303고지에 인민군 1개 사단이 계속마다 잠복해 있다고 했고, 우리 수색중대가 고지정상을 점령하면 미 기병사단이 밑에서 올라가서 인민군을 전멸시킨다는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1950년 8월 16일 오후 5시경 우리는 일주일 분의 식량과 물, 실탄을 가지고 포복으로 산을 기어 올라가 새벽 4시경 303고지의 약 50m까지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고지에는 적이 이미 포진해 있어서 우리는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1개 중대 병력으로 고지를 뺏고 빼앗기기를 반복하며 우리는 일주일 분의 실탄을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결국 북한군과 백병전이 벌어졌고 우리는 역부족으로 산 아래로 급히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가파른 계곡에 떨어지게 되었고 마침 헨리대위가 손을 내밀어 저를 구했지만 불행히도 헨리대위는 저격병의 총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를 업고 후퇴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죄책감과 비참함을 한 평생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8월 17일, 저는 저를 자신의 생명으로 구해주었던 헨리대위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과 교훈〉

우리는 3년 1개월 간의 6.25 전쟁으로 약 3백만 명에 달하는 인명손실과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나약하기 그지없던 대한민국은 전쟁이라는 회오리바람 앞에서 금방이라도 꺼져 버릴 듯 가냘픈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부모, 형제를 두고 자신의 입신에 대한 꿈들을 접고 참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뿐인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서 적의 총탄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서술한 전쟁의 한 단편은 저 보다 더 끔찍한 전쟁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저는 전쟁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겪은 전쟁의 참상과 현실은 실로 끔찍했습니다. 매일 매일 벌어지는 전투에서 총알받이로 전사하는 전우들의 시체를 방패삼아 목숨을 연명하는 일상이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습니다. 저 건너편 내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적군 또한 나와 같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내몰린 그저 하나의 생명이었는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나 또한 총부리를 겨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적군의 총을 맞은 나의 전우이자
은인인 헨리 대위를 전장에 버려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념 수호를 위한 전쟁, 힘의 논리를 펴기 위한 전쟁? 신이 주신 선물과
같은 생명을 인위적,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전쟁은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길러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을 최전선에서 겪어
본 세계 이러한 말은 그야말로 실상을 모르는 자의 헛소리에 그치지 않
습니다. 무력으로 평화를 지킨다는 것은 또 다른 무력의 충돌을 양산할
뿐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혈사태로 분쟁을 해결하려
던 역사의 과오를 바로 알아 배우고, 이렇게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게 지난 과오를 가르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글귀를 적고 싶습니다. 우
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뼈아픈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고 보다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n_Demilitarized_Zone_\(DMZ\)_from_the_South_Korean_side.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Korean_Demilitarized_Zone_(DMZ)_from_the_South_Korean_side.jpg)



**2020 National Reconciliation Week
Sermon for the Week for Nation's
Reconciliation Commemorating
70 years of the Korea War**

**Let Us Seek Peace with All Our Strength!
Genesis 32: 24-32**

Rev. Ryuk Soon-Jong
Moderator of Presbyterian Church of the ROK, PROK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e war, which began on June 25, 1950, was halt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 1953, but the three-year war extracted a heavy toll from the Korean Peninsula. Our daily life collapsed, and our life's foundation was reduced to rubble. Families were separated without knowing if the others had survived or not. Two million South Korean soldiers and civilians, 3.3 million North Korean soldiers and civilians, 360,000 Chinese, and 140,000 U.S. soldiers were killed or injured in the three-year war. They are all precious lives with families and loved ones. Even as the war snatched away precious lives, also all those still living had to live in discomfor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More than 10 million people had to leave their families and hometowns and live shedding tears in longing and loneliness.

In his book,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Bruce Cummings wrote about the horrors of the Korean War. "In 1953, [by the time of the ceasefire] the Korean Peninsula was burned to ashes. From Busan in the South to Sinuiju in the North, Koreans were busy collecting the rest of their lives, burying the dead and mourning the lost. In the capital city of Seoul, empty buildings stood like skeletons beside the roads, which were strewn with concrete and debris. In the north, most modern buildings were devastated. Cities such as Pyongyang had been reduced to bricks and ashes. Villages were empty and huge dams could no longer store water. [re-translated from Korean translation]" This confirms that the three-year Korean War destroyed almost everything in the South and the North. After the Korean War, the only things left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the collapsed homes, collapsed industrial facilities, and mutual hatred.

In Pyongyang in 2008,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CK-South Korea) and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KCF – North Korea) held a joint worship service at Bongsu Church. About 100 Christians from the South arrived at Pyongyang Sunan Airport in the North riding on a chartered plane from Seoul. An employee guiding the Southern Christians from Sunan Airport to downtown Pyongyang on the bus made this comment: "The U.S. bombed Pyongyang during the Korean War. At the time, Pyongyang had a population of 400,000 and U.S. bombers dropped more than 400,000 tons of bombs indiscriminately." Even now, the mindset of North Koreans regarding, 'America=Christianity=Enemy' has been thoroughly passed down. This is because they saw in front of their eyes their loved ones torn to death by bombs that were dropped,

one ton for each person. All wars are terrible. Many lives are sacrificed, and they make enemies of each other. For whom on earth is a war? There is no such thing as a just war in all of history. There cannot be a war “with a human face.” There can never be a humane war nor a romantic war. You have to choose between killing or dying, and if you want to live, you have to kill someone else. Therefore, war is structurally evil, and it is an injustice in which Christianity, which considers love to be the highest value, could never participate.

There is a memorial to Korean War veterans in the National Cemetery in Washington, D.C. Every time any Korean sees this, there is a deep echo in their heart. This is because hundreds of thousands of young U.S. Americans came to a far-off country and collapsed and died in the midst of a war where cannon shells poured like rain, enduring the harsh cold and the hot sun. We are thankful and also sorry for their sacrifice. Also, as seen in the Nogun-ri incident, war can kill innocent civilians, whether by mistake or intent. The contradictions and pain of all this history are more like a force majeure derived from the massive structure of war than from the personal problems of people. Therefore, there should never be war. We should do our best to prevent war and achieve peace. How is that possible? Today we want to look at the text in light of this question.

Jacob, who appears in Genesis, lived an exceptionally turbulent life. He fulfilled his desires through great abilities, he betrayed his faith, and he did not hesitate to use deception in the process. It is like seeing the self-portraits of modern people today. He, whose goal

was to succeed, finally faces an absolute crisis in his life that he cannot solve. He met God in the face of the crisis and experienced a dramatic life transition. This character, Jacob, has many implications for us today in that he has lived a new life through a conversion of faith while reflecting the image of modern people.

Jacob was a very wise and clever man. On the other hand, it was a rough and honest but tactless way to live, competing the way he did fighting for supremacy in life. It was assumed that the genealogy of faith that came down through Abraham and Isaac would be connected to Esau, the eldest son. But in the end, Jacob carried on the line of faith. The Jacob story of Genesis is an explanation for this irony. Jacob achieved a great success by deceiving his brother and leaving his family and hometown to live in his uncle's house for 20 years. He helped produce 11 sons from four wives and raised wealth to the point of envy, even the envy of his uncle. Jacob may have had great success with his resourcefulness and efforts, but his relationship with Laban deteriorated and he had no choice except to return to his hometown, and that road was never smooth. This was because in his hometown he had a brother Esau, who was sharpening his sword for revenge. His brother had 400 trained soldiers. This was a desperately dangerous crisis.

In life we sometimes meet difficulties like this dilemma. We may face a desperate crisis where everything we've achieved can go down the drain. Even though the details may vary, everyone encounters a similar situation in their lives. So as Jacob's story is passed down through the generations, it still maintains its strength and significance today. The important part is the conclusion of this

story. Jacob wonderfully overcame this crisis and became the main character of the happy ending. Through reconciliation with his brother, he maintained his whole family's life, protected the assets he had accumulated over his entire life, and became the actual founder of Israel's history as the founder of the 12th tribe. What is the key to this amazing life reversal?

The turning point of Jacob's victory was at the ford of the Jabbok River. After sending his family to his hometown first, Jacob was then left alone by the Jabbok River. As night passed, he had to meet his long-lost brother again. He did not know what would happen upon meeting his brother. His brother's anger could tear his life apart. He could not predict whether the meeting with his brother Esau would lead to a reconciliation or a war. On that night of desperation, Jacob wrestled with the angel all night at the ford of the Jabbok. 'Jabbok' is derived from the Hebrew verb 'Baqaq' (בַּקַּק) which means, 'make a murmur' or 'empty a glass.' It is a place where a final battle decides your fate and at the same time a sacred place to empty yourself. His wrestling opponent here was not an angel, but actually God. Perhaps Jacob thought the man with whom he had been wrestling was an assassin sent by his brother. It was a fight that Jacob could not lose. This was because everything in his life that he had accomplished through 20 years of hard work was at stake. Therefore, Jacob did not give up the wrestling match even until the end. Everything was at risk and he hung on desperately.

Jacob received the new name 'Israel' from this wrestling match. The meaning of this name is often interpreted as, "he won against God," but an interpretation more suited to the context of the text could be

that Isra-el's 'El' (God) means "God wins" and "God rules." At the end of the wrestling match, Jacob broke his thigh joint because he kept hanging on to the angel. At that moment he had so little power, he is blessed by God. His life as ruled by God had begun. He named the place where he received the blessing, 'Peniel'. The meaning of 'Peniel' is, "the face of God." Jacob saw the face of God through the act of wrestling that day, risking his life. He met God.

And the next day, a miracle happens at the scene where the brothers meet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His brother Esau ran over and to embrace Jacob, and the brothers kissed each other. Meeting his brother Jacob said, "Truly to see your face is like seeing the face of God, so please, brother, be happy with me also." Jacob, who saw the face of God at the ford of the Jabbok, saw the face of God in his brother's face. Jacob changed and his heart melted through the decisive battle at the ford of the Jabbok, and his brother's heart also melted. When Jacob met his brother after meeting God, it was not his brother as of old. In the end, the God Jacob met at the Jabbok ford was the God of peace. Jacob met the God of peace through a bout of life-threatening wrestling, and the God of peace created a grand event of brotherhood.

What shall we learn from today's word? Jacob, at the Jabbok ford, at the turning of his life, clung on desperately to maintain everything he had achieved. For us today, what must we desperately cling to and protect? It is peace and a world without war. We cannot return to the tragic situation of war as 70 years ago. We cannot repeat the Cold War situation when we lived in extreme confrontation. We cannot waste the years we have lived seeking to

achieve peace. For us, war is simply destruction. What we have achieved over the last 70 years is like a miracle. However, if war breaks out again as our weapon systems have become more advanced so that we cannot even compare them to 70 years ago, the sacrifice will be unimaginable. There must never b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o prevent this war, we must first cling to God. We must cling desperately to God, asking God to give us peace and to rule over us. It will not happen automatically, preventing war and making peace. Peace is not free. For peace, we must pay the price of prayer. Peace is ultimately in God's hands.

We must also meet the God of Peace through that clinging and praying. Just as Jacob broke his hip joint while wrestling with God, we must meet God; and our desires must crumble, and the hatred within us must vanish. We should have a 'Peniel Experience' meeting God so that we can see the image of God in the image of our [sisters and] brothers and embrace each other with love. Then we can move on to a future of peace.

We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the fiercest war of the 20th century. The Korean War is a very tragic war because it is a war of fratricidal conflict and a war of the world's Cold War system. So the road to peace is also rough. Yet now we must heal the wounds of war and move on to the future of peace. For this, those involved in South and North Korea need prayers from Christians around the world. This is because prayer has history-making power. This year, the NCKK is campaigning with church leaders around the world to pray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firmly believe that the owner of history is God and we are

walking on the path of prayer. We pray to God, the manager of history, to make peace. Just as Jacob wrestled at the Jabbok ford with everything at stake, we pray with Jacob's heart just as he refused to give up even with the pain of breaking his thigh joint. We hope that we may meet the God of peace through prayer, and through the heart of God, that a history of the South and the North embracing each other be realized. We hope that, not just the two Koreas, but that also through the heart of God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Russia, and the world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ill achieve peace.

It has been 67 years since the end of the war, but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in a state of armistice. In practice, the war is over, but legally, the war continues. This ongoing war is the root cause of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be able to declare that the war is now completely over. We need an end-of-war declaration. Furthermore, we should move not only toward the end of the war, but also toward a more active peace treaty. The peace treat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a legal basis on which both Korean parties as well as countries around the world can choose peace, rather than war. The NCKK has been carrying out a campaign to sign a peace treaty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before the WCC General Assembly in Busan in 2013. Over that time churches around the world have joined us, but we ask all the more now that you all please pray with greater interest and join forces with us so that we can move on to an end-of-war declaration and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Dear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I hope that in the Lord that we will all pray with all our migh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 meet the God of peace, let us hope to see each other with trust and love, and to embrace each other. Let us hope to witness God's rule on the Korean Peninsula. We already have experienced the leaders of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meeting and talking with each other. All of us were deeply moved by the April 27 Inter-Korean summit two years ago. The parties [to the summits] must meet again unconditionally to establish a peace treaty and a peace regime. We should meet and share our feelings and restore mutual trust. I believe that when we pray to the God of peace, the road to restoring trust and peace will open wide.

In 2020 as we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hope that there will be great historical progress toward peace. Let us hope that the wounds of war will be healed, the danger of war will be eliminated, and that the peace God gives will fill in the void, and that not only for the Christians of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the Christians of the whole world, will worship and pray to God. I sincerely pray that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achieved through the cross of Jesus Christ will be fully present on the Korean Peninsula.

2020 National Reconciliation Week Prayer

Prayer for Peace and the End of the War

Jim Winkler

General Secretary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Gracious and Most Holy God,
We praise your name and we come before you as seekers of peace. For too long, we have experienced war and hatred and division. We ask for your help in bringing an end to the 70 years of war that have plagued the Korean Peninsula. We know it is not your will that we live through endless war.

O God, we know the solution to peace rests not only with governments but with your people and so we have prayed, preached, demonstrated, campaigned, lobbied, and organized for peace these many years. This terrible war must end. We implore you, we beseech you, to aid us in this sacred quest.

Although we are tired and weary following more than seven decades of conflict and tension, our desire for peace will never flag and we refuse to succumb to hopelessness. But you know dear Lord how much pain and grief have resulted from all this war—the lives lost, the bitterness, the name-calling, the reputations besmirched, the families divided, the mental anguish endured.

As we live through the global pandemic it seems as if nearly unbearable pressures and burdens have been laid upon us. But we cannot simply set aside the cause of peace. In fact, now is the time for nations to set aside their enmities in pursuit of the health of the entire planet and all its inhabitants so we today are more determined than ever to strive for a peace treaty.

Dear God, we have lived through many difficulties but you have always been faithful to us. You are our rock and fortress. Be with us as we continue our quest for peace. We know you are the living god, our merciful friend.

With your help, it shall b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men.

2020 National Reconciliation Week Solidarity Messag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NOW!

Bishop Rosemarie Wenner
Geneva Secretary of the World Methodist Council

“We pray – Peace now – End the War!” This is the motto for the “Light of Peace” Prayer Campaign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now!” Now we are caught in the global Corona pandemic. The airtime in TV and Radio is occupied by news related to the spread of the SARS-Cov-2 virus with many bad consequences for health and wealth of humankind. In this crisis we tend to forget other urgent needs. One of them is the call for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June 25, 1950 the Korean War started. 70 years later Korean people are still waiting for an official end of the war. There is no peace treaty, just an armistice. Lots of money has been spent for weapons pretending protection against the other side; US-American nuclear weapons are constantly displayed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responding with nuclear armament. Militarization has not only

negative side effects on the environment, it also poisons the feelings and attitudes of people.

Peace is needed – NOW – not despite of the Corona virus, but because of the crisis we are facing. Now is the time to re-think the priorities in our personal lives, in the countries we belong to and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s followers of Jesus Christ we do not aim for back to what was normal when the Corona Virus caused a push of the pause button. 67 years of an armistice which is not even signed by South Korea is not the normal we wish to continue with.

Although most political decision-makers want us to believe that increasing armament is a means to appeasement, we know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a tinderbox. Stronger sanctions on North Korea cause more harm to ordinary people; they f.e. impede an import of medical supplies urgently needed in a health crisis. The sanctions so far did not lead to a change towards peace nor did they minimize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towards the people in North Korea.

Together with many other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World Methodist Council pray and work for a better future in Korea. It is time for peace – now. Peace can only be achieved by peaceful steps. These steps include an end of the sanctions and the openness to let the people in Korea develop a process which helps them to overcome division and pain.

2019 Rev. Dr. James T. Laney, a former ambassador of the USA to

South Korea, received the Peace Award of the World Methodist Council. At the celebration November 21, 2019 in Atlanta, Georgia, USA, Dr. James T. Laney offered three lessons learnt from his lifelong endeavor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 not possible as long as we demonize the other side. Peace is best achieved through face-to-face conversations. We have to move in peace stage by stage.” And he continued: “Peace is the foundation of all human flourishing. Modern warfare is the Armageddon of life. Let us all promise each other that in our sphere of life, we will seek to be instruments of God’s peace and justice.”

We pray for a better world now. We work for peace with justice. Now. Not despite of the Corona crisis, but because we learn the Corona lesson: There is only one earth and one humankind. That is why it is in our own interest to care for one another, work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and develop an economy of life.



2020 National Reconciliation Week Testimony

War, Peace, and Our Future

Jeong In-Cheol
United States 1st Cavalry Division Search Team

I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when I was in my early 20s and was transferred to the 1st reconnaissance squadron of the 2nd platoon of the 1st Cavalry Division in the Okcheon region of Chungbuk. Each platoon was assigned one 60mm mortar and each squadron one light machine gun. I didn't know how to use weapons, so I was trained in live ammunition and shooting by Captain Henry. At that time there were no battles in Okcheon, Chungbuk and only intermittent battles in Hwanggan, Seonsan, and Gumi in the Yeongdong area of Chungbuk. Eventually, we retreated to Waegwan where we could fall back no further.

At Waegwan around Hill 303 there was a division of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hiding in every valley, so we made a plan that our search squadron would occupy the top of the hill, and the U.S. Cavalry Division will go up from below and annihilate the People's Army. Around 5 p.m. on August 16th, 1950, we crawled up the

mountain with a week's worth of food, water, and live ammunition and approached the 50 meter mark at Hill 303 around 4 a.m. However, that hill already had enemies lined up all around it, so we were completely surrounded.

With just one company of troops we had exhausted a week's worth of live ammunition by repeatedly losing and then taking back that hill. In the end, the North Korean army fought with the bayonet troops, and we were forced to retreat down the mountain due to our inadequate forces. In the process, I fell into a steep ravine, and Captain Henry reached out to save me, but unfortunately Captain Henry was shot and killed instantly by a sniper. At that time, I could not retreat carrying him on my back, and I kept the guilt and misery as a result of it as a painful memory for my entire life. I will never forget August 17, and I will always feel a sorrow for Captain Henry, who saved me while giving up his own life.

We lost about 3 million lives and an enormous amount of property during the three-year and one-month Korean War.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so weak, looked thin as if it would disappear in the face of the whirlwind of war. At that time, everyone had to give up their dreams, their parents, and their brothers to become a member of the military. You had to sacrifice the only body of your life to fight and stand against the enemy's bullets.

The one short story that I have described is still nothing compared to some of the people who lived with even more horrible memories of war than mine. Nonetheless, even after a long time, I cannot live free from the memory of the war. The horrors and realities of the

war I went through were truly terrible. The daily life of defending the bodies of fellow soldiers killed by bullets in battles day after day was like hell. The enemy soldier across the street who was pointing his muzzle at me was also forced onto the battlefield to protect his family thinking he only had one life just like me, so I was also there pointing my muzzle at him. The one who was shot by the enemy to save me, Captain Henry, my fellow soldier and savior, I had no choice but to leave him on the battlefield and run away.

A war for protecting ideologies? A war for spreading the logic of power? I do not think a war where humans are the ones physically destroying life, which is a gift from God, can be justified by any cause. Some say that we need to build up our strength and prepare for war to keep the peace. But to me, who has experienced the horrors of war at the front line, these words are more than just nonsense spoken by a person ignorant to reality. Keeping peace through force will only produce another conflict of force. In order to keep true peace, we need to learn the history of our attempts to resolve the conflict through bloodshed and teach the next generation our past mistakes so that we do not repeat such a foolish history. Lastly, I would like to write down the words of historian Shin Chae-ho, who said that there is no future for the people who have forgotten history. We should teach the painful past of our history to our descendants and build a more peaceful future.

6월 4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6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기도”

브루스 우드콕(Canon Bruce W. Woodcock) 신부
미국 성공회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총무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국가와 문화의 지리적 경계보다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찬란한, 공동의 가족의 일원임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지구적으로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정의가 도전 받고 있는 이 때, 한반도에서 반 세기 이상 이어 온 불신과 분노를 극복하고 평화협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과 재능을 모으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해방을 선포하시는 당신의 사랑으로 한반도와 세계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시어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고, 의혹과 증오가 사라지며, 공동체의 분열이 치유되고, 모두가 정의와 평화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국을 정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한국전쟁의 종식을 도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인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편견에서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노근리 학살을 포함하여 전쟁의 잔혹행위로 희생된 사람들을 기억하되 증오와 복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과거의 가장 어두운 곳에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황무지

로부터 나아갈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는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을 새롭고 정의롭고 당신의 사랑을 가치 있게 반영하는 것으로 뛰어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감과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 미지의 세계로 발을 디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7

임춘식 목사
미국장로교 세계선교부 동아시아 지부장

사랑과 긍휼과 정의의 하나님, 주님은 모든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할 곳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설움과 눈물,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는 인자가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우리는 안전감과 기쁨, 그리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 유행병은 몸과 마음과 영혼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변함없는 임재의 확실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의 표준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한반도의 평화를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요? 이번 6월 25일은 6.25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70년 동안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남한과 북한의 분단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잊었겠지만, 해결되지 않은 전쟁이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고통과 트라우마는 전 세계 한국인과 디아스포라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전쟁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용기 있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주 미

국과 남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로 정전과 평화협정을 볼 때까지 이 평화를 위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힘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인종차별을 없애겠다는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지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주님 우리를 당신의 예언자적 사역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일들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위해 당신의 사랑과 자비, 정의로 이뤄지게 하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씀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고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를 몰아낼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Prayer for Peace 36
**“Prayers for Peace to end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Rev. Canon Bruce W. Woodcock
Asia and the Pacific Partnership Officer
(The Episcopal Church in USA)

Gracious God, throughout the world we face threats larger than earthly boundaries of nation and culture. Help us recognize that we are members of a common family, glorious in diversity. Help us overcome years of distrust and anger on the Korean Peninsula, to channel our unique strengths and talents to work toward a peace treaty as we face the global health, safety, and justice challenges of our time.

Grant, O God, that your life-giving, liberating way of love may move the hearts of the people of Korea and the world so that barriers which divide may crumble, suspicions disappear, hatreds cease, and that divisions in the human family being healed, all may live in justice and peace. Guide the nations of the world into ways of justice and truth, to seek an end to the Korean War.

God, Father of all, your Son commanded us to love our enemies.

Lead us away from prejudice to truth; deliver us from hatred and revenge, especially in memory of those who perished at the Nogunri massacre and other war time atrocities; enable us to stand reconciled before you. Shine your light into the darkest corners of our past, and illuminate the path that leads from that wilderness.

Eternal God, in whose kingdom there is no strength greater than the strength of your love. Send us your Spirit so that all peoples may be gathered together as children of God. Guide, inspire, and empower us as we seek to weave the strands of our common humanity into something that is new, just, and a worthy reflection of your love. Give us the courage to step into the unknown, following in the way of Jesus' love.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Prayer for Peace 37

Rev. Lim Choon-Shik
Regional Liaison for East Asia in the World Mission of PC(USA)

God of love, of mercy, and of justice,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in all generations and today we
present before you our sadness, our tears, and our sorrows in
Korean peninsula because you are a compassionate and loving
God who cares and cries with u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we have lost our sense of security,
our joy, and our hope. The pandemics spread deadly viruses of the
body, of the mind, and of the soul, O Lord, remind us of your
abundant grace and the assurance of your ever-abiding presence
comforting and healing our broken hearts and bodies. Give your
wisdom to us, especially to politicians in the world how to face
this new normal and new world.

O Lord!

How long we have to wait for the peace on Korean peninsula. Next
week June, 25 i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seven decades of unresolved trauma and division
of the Korean people is still in us now. Some people forgot it, but
the unresolved war should not be forgotten. Its pain and trauma
are continuing to Korean people and diaspora across the world.

We jointly pray to you for this tragic war not to forget so that we can courageously work together for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on Korean peninsula. We vigilantly ask you to have peace on Korean peninsula as last week the Liaison Office in Kaesung was blown up by the North Korea to show up their dissatisfaction with South Korea and the U.S. O Lord give us your strength and wisdom to do this peace work until we see the Armistice and Peace treaty.

Today we see the serious racism issue in the world, especially in the U.S. O Lord infuse us with your power that our commitment to eliminate racism be renewed. Lead us into your prophetic work so that our works can be achieved with your love, your mercy, and your justice for this generation and the generations to come. Emmanuel God, we humbly ask in the words of Reverend Dr. Martin Luther King Jr. that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only light can do that. Hate cannot drive out hate, only love can do that.” For our hope is in Christ Jesus in whose name we pray. Amen.

6월 5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8

아부스 타키스빌라이난(Abus Takisvilainan) 목사
대만기독교장로교회 총회장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남북한의 하나 됨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남북한의 지도자들이 과거의 분열과 적대를 위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민간의 교류와 인도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한국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평화의 계기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남북 분열 70주년이 되는 이때, 남과 북이 화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민족과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남북한의 정세를 주장하여 주시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온 땅에서 제단을 쌓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이 하나님께로 온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결의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민이 남북한에 임하여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자녀 모두가,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평화를 형성하고,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단결을,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39

히카리 코카이 장(Hikari Kokai Chang) 목사
일본기독교협회의회 부회장, 연합감리교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자비로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다독이듯이, 당신은 이 땅의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십니다.

전례 없는 팬데믹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처한 이 때,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위로와 치유를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당신 안에서 우리는 평화와 희망을 함께 발견합니다.

당신의 자녀인 한반도의 자매와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겸손한 영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매와 형제들을 아프게 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당신의 자녀들이 헤어지고 나누어진 채 70년을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당신의 영이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신 평화의 약속 대신 무력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믿었고, 그 결과, 당신의 자녀들은 두려움과 서로에 대한 불신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용기를 내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하거나 잊지 않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행한 죄를 담대히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당신의 나라에서 서로 관계를 깨뜨린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연민하며 상처받고 수치를 당한 사람들, 고통받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 우리들 가운데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가 당신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화해와 일치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주어진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의심과 증오로 흐려진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와 세계에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이를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자매와 형제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0

“어린이들도 평화 통일이 기대돼요”

박예빈 어린이
대림초등학교

하나님,
글쎄 남과 북이 갈린 지도
벌써 70년이 다 되어간대요.

우리 엄마아빠 나이보다 더 오래
이 땅이 갈라져 있었다니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원래 하나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형제자매로 얼싸안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서로에게 잘못된 건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는 어려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랑과 평화를 위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한반도에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Prayer for Peace 38

Rev. Abus Takisvilainan
Moderator, The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Merciful God in heaven, we pray desperately for the two Koreas to become one. We pray that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repent for their past division and hostility, and hope that substantial peace will be achieved through civilian exchanges and humanitarian consultations.

Through the prayers of Christian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let us see a new opportunity for peace.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and war between the two Koreas, the South and the North are praying for harmony. Let the Christians of many peoples and nations take counsel together.

May God lay claim to the situation of the two Koreas, and let more Christians build altars all over the land to shrink the crumbling walls, and let the high-ranking leaders of the two Koreas make a resolution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with the wisdom that has come from God, so that the compassion of God may be restored to the two Koreas.

Finally, let all your children confess, "Use me as a tool of God to make peace; where hatred exists, to sow love; where division exists, to unite; where there is darkness, to shine."

We pray in the holy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Prayer for Peace 39

Rev. Hikari Kokai Chang
Vice moderator,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and
United Methodist Church clergy

God of giving Life,
We give you thanks for your most merciful grace; as a mother
comforts her children, you care and love all of your children in the
world.

In such time as this when the unprecedented pandemic frightens
us, you call us as your children into the shadow of your wings for
comfort and healing so that we know you are our refuge; in you,
we find peace and hope together.

As we pray for your children--our sisters and brothers in the
Korean peninsula, we come before you in humble spirits to confess
our sins and ask your forgiveness.

We have broken your heart by hurting our sisters and brothers.
Our greed for power and self-serving interests have forced your
children to live in separation and division for 70 years, and they
are living in tears and pain still today.

We have caused pain in your soul by disobeying your words. We
gave our faith to armed powers and political ideologies instead of
your promise of peace, and as a result, your children are living in

fear and distrust of one another every day.

God of redeeming life,

Today we ask for courage, so that instead of denying or forgetting our sins, we may boldly confess and repent what we have done against you and your children.

Today we ask for humility, so that we may seek your forgiveness for the brokenness of 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in your Kingdom.

Today we ask for compassion, so that we may stand in solidarity with those who have been wounded and disgraced, those who have suffered and mourned, those who are the most powerless among us all.

God of renewing life, we pray:

Grant us wisdom to live in reconciliation and unity among all your children. Guide us to seek peace and justice, so that all your children created in your image shall live with hope and joy bestowed in the world through Jesus Christ.

Breathe your spirit of peace into our hearts clouded by doubts and hatred. When darkness ends and dawn shall arriv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world, we may recognize the faces of sisters and brothers in each other's. Amen.

Prayer for Peace 40

Park Ye-Bin
Daelim Elementary School

Lord,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ivision is much older than the ages of my parents.
I hope now the North and the South become one.

God,
I ask you to forgive us our sins of dividing this land that
you made one.
May we become one Korean nation as brothers and sisters!

Help us to forgive and reconcile one another to realize
the peace you give!

I do not have much to do as I am young, but I ask you
to provide us love and peace that make everyone happy.

Lord,
May the day come soon
when the North and the South are peacefully united!

We pray in Jesus' name, Amen.

7월 1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1
“핵 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기도문”

배현주 교수
WCC 중앙위원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

우리는 삼일운동 제93주년을 맞이하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생명의 미래를 향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민음의 조상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엄숙한 신앙의 양심과
자자손손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리게 되는 소망을 지니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자유와 독립의 권리를 선언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참된 평화를 염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천년 21세기 벽두에 서 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한반도가
어느새 핵무기와 핵발전의 먹구름으로 뒤덮히게 된 것을
두렵고 놀란 마음으로 목도합니다

20세기 아픔의 역사로 인한 라헬의 통곡이 아직도 그치지 않고
억울한 죽음과 고난의 상흔이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 땅에
또 다시 자멸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직시합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세계사의 무대에서
북한은 핵무기, 남한은 핵발전을 선택하였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지뢰밭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지난 20세기 세계대전을 두 번이나 겪고서도
여전히 전쟁과 군비증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인류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탄식합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지구촌의 현실 속에서도
천문학적인 돈과 자원을 군비 경쟁에 쏟아 붓는
인류의 탐욕과 이기심을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보는 강대국과 핵보유국들의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상호 존중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고금의 수많은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구촌의 모든 정부와 기업이
제국의 야심을 불태우며 무한한
경제 성장의 우상을 숭배하는 길에서 돌아서서
모든 공동체의 상생,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우주적 진리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핵발전을 추구하는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와 교만을 회개하오니
가난하고 겸허한 마음과 절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부는 물질의 무한한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삶과 나눔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이란 무기이든 발전이든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우리가 핵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힘은 핵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과 바람과 물을 이용한
자연 에너지로 살아감으로써
자녀들에게 괴롭고 무서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그리스도인들부터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양립할 수 없는
핵발전소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를 전파하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전지구촌에
생명과 평화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를,
제국의 희생자 되어 십자가에서 피폭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2

한스 웨셀만(Hanns Hoerschelmann) 목사
미션아이네벨트 대표, 바이에른주 루터교회 목사

하나님, 당신은 관용과 이해를 위한 행동가이십니다.
우리가 다양한 관습과 모습들에 열려 있게 하소서.
당신을 우리의 가정과 마음 속에 초대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진실과 사랑을 위한 행동가이십니다.
우리가 저 먼 대륙과 여러 갈등에 열려 있게 하소서.
우리의 모임들과 대화에 참여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자유와 자기 결정을 위한 행동가이십니다.
우리가 낯선 의식과 종교들에 열려 있게 하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공격성에 저항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연민과 치유를 위한 행동가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삶의 방식에 열려 있게 하소서.
우리의 무한한 탐욕에 반대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평화와 화해를 위한 행동가이십니다.
당신과 우리를 생명을 위한 저항에 준비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운 경계와 벽들을 극복하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당신은 변화와 소망을 위한 행동가이십니다.
우리와 한국의 자매, 형제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통일을 이루어 평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소서.

예, 주님,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평화의 행동가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3

빅터 슈(Victor Hsu)
대만장로교회 컨설턴트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창조 세계를 맡기시고 기뻐하며 돌보게 하심에 감사
합니다. 특별히, 한반도에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
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퍼져 서로 다른 신앙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
도록 창조하심에 깊이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약속하
셨듯이, 당신은 결핍과 갈등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을 압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모든 백성들
이 생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당신께 간구합니다.

1953년 이후 헤어져 살아가는 한반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
소서. 그들이 갈망하는 대로 전쟁의 공포나 이산의 고통 없이 당신의 백
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한반도 사람들이 2000년 이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준 평화와 통일
을 향한 뜨거운 염원을 들어주시옵소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구상된 대로 정전체제가 종식되고 평화의 비전이 되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 지도자들, 특히 한반도의 지도자들이 분단된 땅을 이끌어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나라로서 생명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많은 교회협 지도자들과 함께 이 땅과 민족의 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북과 남의 평화조약 체결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에큐메니칼 기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의 호소에 응답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에큐메니칼 기관과 교회들이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그들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시옵소서.



Prayer for Peace 41
“A Prayer for A Nuclear-Free World¹”

Rev. Dr. Bae Hyun-Ju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Central Committee member of the WCC

God of freedom and liberation!

Facing the 93rd anniversary of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we remember our ancestors,
who believed in the God of the Exodus and courageously
rose up toward a future of life.

With the sincere faith of conscience,
and the hope of a joyful life for future generations,
they declared this nation's right to life,
freedom and independence,
and they prayed for true peace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¹ This prayer was written for the inaugural worship of the Korean Christian Network for a Nuclear-Free World, also known as the Korean Network for a World Free of Nuclear Power and Weapons, on March 1, 2012, to commemorate the 93rd anniversary of the 1919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occupation and the first anniversary of Fukushima nuclear reactor disaster at once. The original Korean version was translated into English by Ms Maryon Kim, and modified by the author.

But now at the start of the 21st century
we witness, with worried and fearful hearts,
that this beautiful peninsula is covered by the dark cloud of
nuclear weapons and power plants.

In this land where Rachel's lamenting over historical pains
has not ceased,
and where the scars of suffering and wrongful death
have not healed,
once again we see the shadow of death hanging over us.

On the current world historical stage,
North Korea has chosen nuclear weapons and South Korea
has clung to nuclear energy.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have become the world's most dangerous nuclear minefield,
surrounded by nuclear weapons and nuclear power plants.

O God, hear our prayers of lament and repentance!

We lament the foolishness of humanity,
which despite the experience of two world wars
in the 20th century,
is still caught in the vicious cycle of increasing wars
and weaponry.

We repent that human greed and selfishness has led us
to pour astronomical amounts of money and resources
into the arms race,

even as countless children are starving to death
in our global village.
Awaken us to realize
that our true security lies not in nuclear weapons
but in trusting you and respecting our neighbors.
O God, who watches the empires rise and fall!
Grant wisdom to our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hat they may turn away from their worship
of the idol of unlimited economic growth,
which makes the strong prey on the weak.
May they instead choose the way of cosmic truth:
the life of conviviality with all living beings, humans and nature.

As we confess and repent of our sins of greed and consumerism
in pursuit of nuclear power,
grant us humble hearts and simple lives.
Awaken us to know that true wealth is found
not in the accumulation of material goods
but in a creative, sharing life.

May we learn that nuclear weapons and nuclear energy
are not compatible with peace.
Lead us to be free from nuclear preoccupation.
Awaken us to know that our true strength is not in nuclear power
but in love and justice.

O God, hear our prayers!

Grant us the courage to go through the narrow gate that leads to

life, not the wide gate that leads to destruction (Mt 7:13-14).
May we leave to our children not a painful and terrible heritage,
but a life that uses natural energy from your created sun,
wind and water.

O God, lead us Korean Christians
not to export nuclear power plants, an act that is contrary
to your command of justice and love,
but to live as your apostles of peace,
teaching your life and peace.

Remembering that on the cross our Lord shared
the suffering of the nuclear radiation victims,
and hoping that a new heaven and new earth of life and
peace may be realized from Mount Halla
in the south to Mount Paekdu in the north,
throughout Northeast Asia and all the earth,
we pray in the name of Christ Jesus.

Amen.

Prayer for Peace 42

Rev. D. Min. Hanns Hoerschelmann
Director of Mission OneWorld
Center for Partnership, Development and Mission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Bavaria

God, you are an activist
for tolerance and understanding.
Open us up for different customs and faces.
Invite yourself into our houses and hearts.

God, you are an activist,
for trust and love.
Open us up for faraway continents and conflicts.
Get involved into our meetings and conversations.

God, you are an activist,
for freedom and self-determination.
Open us up for foreign rites and religions.
Rebel against our fears and aggressions.

God, you are an activist,
for compassion and healing.
Open us up for all creatures and all ways of life.
Lean yourself against our greed illimitability.

God, you are an activist,
for peace and reconciliation.
Make yourself and us ready for resistance for life.
Help us to overcome borders and walls
that we have put up.

God, you are an activist,
for change and hope.
Gives us and our sisters and brothers in Korea hope
That we will be united and can live in peace.
Yes God, let us be activists of your love and your peace.
Amen.



Prayer for Peace 43

Mr. Victor Hsu
Consultant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PCT)

Creator God,

We give thanks to you for the creation that you endowed your children to enjoy and to nurture. We thank you especially for the Korean Peninsula for its enchanting beauty and people.

God of Love,

With deep gratitude, you have created us to be your people scattered across the globe with different living faiths and ideologies. Just as you promised our foreparents, you will not forsake any of us despite challenging circumstances of want and conflict. You promise through Jesus Christ that all your people will have life and life abundant.

We therefore beseech you to:

Have mercy on the Korean people who remain divided since 1953 and yearn for the promise of life abundant as a people without fear of war or further suffering as divided families;
Grant to the people of Korea in their ardent aspiration for peace

and reunification, as demonstrated in the summits between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since 2000;

Revitalize the vision of peace by ending the Armistice as envisioned in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April 27, 2018;

Grant us with leader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those in Korea, who have vision and courage to steer the divided Peninsula towards the fulfilment of life as one people and one nation;

Give wisdom to the churches, ecumenical organization and Christians to respond to the appeals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Korean and its many leaders to advocate strongly for a peace trea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a first step towards a reunified land and people; and

Call on the ecumenical organizations and churches to “do justice, love mercy and walk humbly with their God.

7월 2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4

하성웅 목사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총무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며 보듬으시는 주님,
평화를 꿈꾸는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이 땅에 여전히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였던 민족이 둘로 나뉘어져
수십 년간 서로를 비난하며,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념은 이 땅에 물리적인 경계를 만들었고,
사람의 마음에 좁힐 수 없는 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좀먹으며,
힘과 권력을 잡아온 이들은 여전히 살아남아,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은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이 땅의 민중들이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멍에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소망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미움은 거두게 하시며,
그 자리에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그어놓은 경계를,
당신의 사랑으로 무너뜨리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기도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그 일들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며 보듬으시는 주님,
이 땅의 현실에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분단으로 슬피 우는 이 땅과 이 땅을 터전삼아 살아가는
민중들을 긍휼이 여겨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일구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는 이들에게 용기를 허락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5

데이비드 그로쉬-밀러(David Grosch-Miller) 목사
영국 연합개혁교회 증경총회장

모든 시대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때부터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억압당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의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공포와 탐욕, 권력욕으로
이 땅은 나누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당신 안에서 변성하고 자랄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께로 돌아옵니다.

분열이 불신을 일으키는 곳에
이해의 다리를 놓아 주시옵소서.
탐욕이 인생을 더럽히고 위협하는 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나누고 협력하게 하시옵소서.

현재의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경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듣고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한반도의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나누어져 앞날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외침을 당신께서 듣고 계심을 믿고
용기를 갖게 하시옵소서.

서로 위협하고 멀어지기 위해
핵무기가 사용되는 이곳에,
칼을 보습으로 바꾸시어
북과 남이 함께 살고 변성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존재의 하나님,
전쟁의 종식과
새 시대의 여명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을 파괴하는 모든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핵 위협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확신과 힘을 지니고 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분열이 극복되고 적개심이 사라질 때까지
전 세계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창조 질서가 조화 속에 사는 미래를 향해
우리의 하나님, 당신과 함께 걸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모든 존재의 하나님,
홀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나 함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증언 5

남북 이산 가족 상봉과 대한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
대한 적십자사

우리는 지난 4월 27일을 남북 정상 합의하에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는 날이었음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선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대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말할 것도 없이 이 계획과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과 핵이 없는 평화공존시대의 실현은 바로 150여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적십자 운동의 인도주의 철학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의 후속 조치로 남과 북은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2년 10개월 만에 금강산 해금강 호텔에서 남북 총 833명의 가족의 상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눈물로 범벅이 된 만남은 이 기간 중 5번의 남북 적십자회담을 성사시켰고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2018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사이의 상봉은 다음을 기약하고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의 문제 유엔의 제재 등으로 남북의 모든 문제가 얼어 붙게 되었고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정부는 다시 재가동의 꿈을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가 다시 실현되리라 확신하면서 이상봉의 그간의 발자취를 잠깐 살펴보십시오.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분단 이후 현재까지, 한반도의 중요한 인도적인 현안입니다. 이산가족 교류의 특수성은 시간적인 제한성에 있습니다. 평화협력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자연스레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이산 1세대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의 가족을 찾고자 신청하신 분들은 2020년 3월말 총 133,382명인데 이중 생존 51,837명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이산가족1세대는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가 특징인데 최근 몇 년간 사망자수를 보면 6년간 매년 평균 약 3,800명의 이산가족이 고인이 되었으며 누적사망자는 81,545명이며 80대 이상 비율이 65.6%에 달합니다.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 이뤄진 때는 1957년이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56년, '실향사민 실태조사'를 벌여 7,034명의 명단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국제적십자위원회를 통하여 이들의 생사확인을 요청하였고, 1957년 11월 북한적십자회는 이 중 337명의 생존자명단을 통보해왔습니다.

1970년대까지 이산가족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성과는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 본회담 실무회의 개최(총 56회)를 통하여 5개항(주소·생사확인, 자유로운 방문·상봉, 서신왕래, 재결합, 기타 인도적 해결 문제 등)의 남북회담 의제에 합의한 것입니다.

1980년대는 이산가족 해결을 위해 3차례 적십자본회담을 개최하는 등, 보다 진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985년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남한에서 30가구 51명이, 북한에서 35가구 41명이 교환방문하는 이산가족 고향방문과 예술 공연단 교환방문이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1993년 이후에는 이인모를 북측에 송환시켜주고 이산가족상봉에 관한 북측의 성의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공식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합의에 따라 당국차원의 교류가 재개되어 2015년까지 20차례 대면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이 이뤄졌습니다. 21차까지의 대면상봉 인원은 남과 북을 모두 합쳐 20,604명(4,290가족)이며 화상상봉 인원은 3,748(557가족)명입니다.

적십자사의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십자운동 차원에서도 꾸준히 이어져왔습니다. 1952년 토론토, 1957년 뉴델리의 제19차 적십자회의, 1965년 비엔나의 제20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는 이산가족 문제해결에 대해 결의한 바 있으며, 가장 최근에 열린 2019년 제33차 국제적십자회의에서도 국제적십자운동의 가족 찾기 활동(RFL ; Restoring Family Links) 행동강령에 따른 결의문 제4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산가족문제는 최근 주춤하고 있으나 크게 보면 분명 더 큰 해결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완결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산가족 교류가 가지는 문화적·민족적 의미를 새롭게 발굴해 나가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은 하나의 민족, 평화, 생명공동체입니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의 아픔을 한반도 평화구축의 원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임무일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 적십자사는 주위의 여건이 허락되면 즉각 실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봉 화상상봉 고향방문단 등등을 위한 모든 준비는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루속히 상봉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Prayer for Peace 44

Rev. Ha Seong-Ung

General Secretary of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EYCK)

O Lord, who loves and cares for all life,
We pray with an earnest desire for peace.

There is still an open wound from the division in this land.
Once we were One, but we have been divided,
And for decades we have lived blaming and hating each other.

Ideology has created physical boundaries on this land,
And it created an irreconcilable gap in the hearts of people.

We are eaten up by the conflicts and divisions of this land,
As those clinging to authority and power still survive,
Thus blocking the path to peace.

The tension on this Korean Peninsula rarely abates,
And becomes a burdensome yoke the people of this land must bear.

May the open wounds of division be healed, O God.
Draw down the mutual blame and hatred,
Let the seed of peace and co-existence be planted here.

As for the boundaries drawn by men,
Tear them down with your love.
As for the Korean Church,
Whatever can be don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ay and consider this,
And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put it into practice.

O God, who loves and cares for all life,
Be not silent on the realities of this land.

To the land crying out mournfully under division and
to the people making a foundation on this land,
Please grant your mercy.

To those striving with all their might to reclaim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lease grant your courage.

Thi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Prayer for Peace 45

Rev. David Grosch–Miller
Past Moderator of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Reformed Church, UK

God of the ages.
You have walked with your people
from the moment that first we walked on the earth.
You heard our cry when we were oppressed,
gave us strength and courage when doubt and despair threatened.

The earth has been divided and brought to destruction
by human fear, greed and the lust for power.
We, your people, turn to you
knowing that only in you can we flourish and grow.

Where division has given rise to distrust,
build bridges of understanding.
Where greed pollutes and threatens life,
open hearts to share and build in partnership.

God of the present moment,
your love does not stop at borders.
Your grace is given freely to those
who are willing to hear and to trust.

The people of Korea have lived too long
divided and fearful for the future.
Grant them the courage to believe
that their cry has been heard.

Where nuclear weapons have been used
to threaten and keep apart,
turn swords into ploughshares
that people North and South may be fed and prosper.

God of all that is to be,
with people across the world
we pray for the end of war
and the dawn of a new age.

Let all that threatens the earth with destruction
be banished for ever.
Let the voice of those opposed to nuclear threat
grow in confidence and strength.

We will work together with partners across the world
until division is overcome and hostility ended.
We will walk together with you, our God,
into a future where the whole created order lives in harmony.

God of the ages, God of the present, God of all that is to be,
alone we may stumble but together we pray your kingdom come.
Amen.

Witness 5

The Korean Red Cross Facilitating Inter-Korean Family Reunions

Dr. Park Kyung-Seo
President of Korea Red Cross

27 April, 2020 marks the 2nd anniversary of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sides of Korea agreed to resolve the humanitarian issues and to convene the inter-Korean Red Cross Meeting, including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relatives. Following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two Koreas held the inter-Korean Red Cross talks on 22 June 2018 at Mount Kumgang in order to organiz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relatives.

Following this, a reunion of 833 separated family members was held in August 2018 in the North's scenic Mount Kumgang resort. It was the first such meeting since inter-Korean relations worsened in 2015.

Contrary to our wishes, the inter-Korean relations have been stalled due to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and the US-led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n the occasion of the 2nd anniversary of the historic Panmunjom Summi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seeking the most realistic and practical ways for North-South cooperation. In this regard, we hope that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may be able to resume as soon as possible.

The issue of separated families in North and South Korea has been the most prominent humanitarian issu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division. But time is running out for the divided families. The average age of South Korean divided family members is 80 years old. More than 65.6 percent of the 133,382 applicants who applied to the Red Cross for family reunions have already passed away. Only 51,837 elderly people are still alive.

In 1956, the Korean Red Cross conducted a survey on the separated families and made a list of 7,034 separated people. The Korean Red Cross requested a confirmation of who was still alive, in North Korea,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The North Korean Red Cross reported a list of 337 survivors in 1957.

Until the 1970s, the key achievement in the process of reuniting separated family members were the fifty-six preliminary meetings of the North-South Red Cross. The six essential activities were exchanges of address, life and death verifications, visits, reunions, exchanges of correspondence, reunification, and other humanitarian cooperation.

In the 1980s, a significant progress was made in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by the three meetings of the North-South Red Cross. In 1985,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between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d Cross, 51 families from South Korea and 41 families from North Korea visited their hometowns, accompanied by art performance groups.

After the repatriation of Lee In-Mo to North Korea in 1993, the Korean Red Cross has continued to urge the resumption of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In addition, the Korean Red Cross has embraced the policy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to promot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s a top priority.

The government-level exchange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resumed in 2000, following the 15 Jun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In the context of the first inter-Korean Red Cross Conference, twenty face-to-face reunions, and seven virtual video reunions were held up from 2000 to 2015. The total number of people involved in the face-to-face reunions is 20,604 (4,290 families), and 3,748 (557 families) in the video reunion.

The efforts of the Korean Red Cross to reunite separated families and relatives have continued on the international level by the International Red Cross by adopting resolutions on separated families in Toronto in 1952, the 19th Red Cross Conference in New Delhi in 1957, the 20th International Red Cross Conference in Vienna in 1965, and the 33rd International Red Cross Conference in Geneva in 2019.

The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have been slowing down recently, but it is a time of waiting for a bigger step in the proces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e will continue to work for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nd to discover the cultural and historical meanings of the exchange of separated families. The South and the North are one nation. It is the mission for all of us today to transform the pain of separation into the driving force of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today, the Korean Red Cross is working in every possible way for the separated families to meet their family members as soon as possible. All preparations for face-to-face and virtual reunions are ready. I sincerely hope to resume reunions of separated families again as soon as possibl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7월 3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6

최애영 이사장
Women Cross DMZ

생명의 하나님!

한반도의 전쟁 종식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조국 한반도에 살던지 아니면 전 세계로 흩어져 이국 땅에서 살든지 우리 모두는 한국인(조선인)이며 친구로서 모두가 조국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 평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화를 일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총기와 무기가 없고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전쟁의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용기있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는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서로가 공감하는 마음과 서로를 기다려주는 인내심과 서로를 존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기만과 욕심과 근절하게 하시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세계 공동체로 엮인 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아름다운 풍성함과 축복을 나누고 보호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빛으로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를 갈라놓은 장벽과 장애물을 과감히 허무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한반도의 화해, 화합, 지속적인 평화의 길을 비출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일구기 위해 앞서 걸어가신 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계속하여 평화의 일꾼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 하사 분단된 조국이 하루 속히 하나가 되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리던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7

남부원 총장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변민하고 있습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하는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조금도 한이 없겠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

정의와 평화의 하느님,

동족상잔의 비극이 우리 민족을 두동강이로 나눈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마치 온전히 살아있는 몸을 반토막 내듯이, 분단과 한국전쟁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엄청난 상흔과 고통을 남겼고 그 고통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때리고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는 파괴되었고, 불신과 증오와 적대감이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

저희들은 당신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분단과 전쟁으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울고 있는 수많은 당신 자녀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화해와 치유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스러운 개입을 소망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자신의 변민과 진정한 소망을 고백한 바울의 간절한 심정으로 염원합니다. 저희들을 들어 당신의 화해와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저희들로 하여금 지난 70년동안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상호 불신, 증오와 적대감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사랑과 화해와 섬김의 거듭난 마음으로 이 분단의 '구조악'을 극복하고 민족의 새날을 열어가는 사명 앞에 용기있게 나아가게 하소서. 당신의 그 부름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저없이 응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물결이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아멘.

증언 6

노 근 리

톰 케네디(Tom Kennedy)
평화를 위한 재향 군인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400여 명의 민간인이 주한 미군에 의해 살해당했던 악명 높은 곳.

나는 한국에 파견된 다섯 명의 ‘평화를 위한 재향 군인회’ 대표단 중 한 사람이었다. 미군기지 확장을 위해 농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었다.

우리는 은퇴한 한국군 대장을 포함한 호스트들과 함께 등글게 서서 노근리 마을을 가로지르는 기차 터널의 입구를 내려다본다. 총알이 박혀 있다. 그는 우리가 이곳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꽃과 그림들이 있는 작은 제단은 60년 전 이곳에서 죽은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보여준다. 열 명 정도의 작은 그룹, 그 중 혼자 숨죽여 울고 있는 여인이 있다.

아홉 살 소녀였던 그녀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다. 기관총과 비행기에서는 마을 입구와 기차 터널을 공

격하는 총알들이 마구 쏟아졌다. 군인들은 안전을 위해 이곳으로 오라고 하였다.

그녀는 부드럽고 호소력 있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해할지도 모른다. 죽음의 미사일의 소음과 비명과 충격 속에서, 부모와 형제들 모두 죽었다. 소녀는 일어나 죽은 가족들을 살펴본다. 그러나 자신의 왼쪽 눈은 빠져나와 자신의 손에 있었다.

60년이 지난 지금, 나는 마치 사과하듯, 이 아홉 살 소녀를 품에 안는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ailroad
bridge_at_No_Gun_Ri,_South_Korea.jp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ailroad_bridge_at_No_Gun_Ri,_South_Korea.jpg)



JULY
Week 3

Prayer for Peace 46

Choi Ai-Young

Chair, Board of Directors, Women Cross DMZ

O Spirit of Life- We gather today to pray for the end of war and a bright new era of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e are millions of Koreans living in our homeland and millions of Koreans around the world whose hearts and souls are, and always will be, Korean. And we are millions more friends and allies in the world who join us in this fervent prayer for peace in Korea.

We realize that to have peace in the world, we must begin with the spirit within ourselves. Help us nurture peace and reverence for life. Let us proclaim our vision of a world without guns and fences, without the terrors of war that scorch our bodies and our homes. Give us the wisdom to persuade our leaders to resolve conflicts with mutual understanding, empathy and patience; to lift each other up with kindness and compassion; and to respect and care for one another... because our very humanity depends on it. Help us stamp out the greed, arrogance and deception in our midst. Help us embrace each other as members of one universal family, for which each of us has but one finite, precious time on this earth.

Please guide us to protect and share the abundant beauty and blessings of nature; help us stem the coronavirus pandemic that is ravaging us, and heal our deep suffering.

Let us light up the universe with messages of love, life, and peace. And give us the strength and resilience to reach across borders and boundaries to work together to right the many wrongs that tear us apart.

Spirit of Life, we pray that we may find the courage and clarity to continue lighting the path to reconciliation, unity, and lasting peace in Korea. In honor of the many brave sisters and brothers in this struggle who came before us, bless us as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fulfill their hopes and dreams, so that Korea can once again become -- the promised land of the morning calm.

Spirit of Life, hear our prayers. Amen.

Prayer for Peace 47

Nam Boo-Won
General Secretary of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APAY)

“I have great sorrow and unceasing anguish in my heart.
For I could wish that I myself were accursed and cut off
from Christ for the sake of my own people,
my kindred according to the flesh.” (Romans 9:2-3)

O God of Peace,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tragedy of a fratricidal war divided our nation into two shards.

As if our whole living body was cut in half, the division and the Korean War left an abundance of scars and pain for all the members of the nation, and for many that pain still throbs in their chest. Justice and peace were destroyed, while distrust, hatred, and hostility engulfed the Korean Peninsula.

O God, who intervenes in history,

We eagerly await the manifestation of your history. That the tears may be seen of so many of your children who still suffer and weep from division and war, that their sighs of grief may be heard, and that a new history of reconciliation and healing may arise in this

land, we hope for God's holy intervention.

I pray with the earnest heart of Paul, who confessed his anguish and his genuine hopes in Chapter 9 of his letter to the Romans. Please use us as instruments of your reconciliation and peace. Let us boldly shake off these 70 years of ideological conflicts, mutual distrust, hatred, and hostility created by those in power and the vested interests; and with reborn hearts of love, reconciliation, and service let us overcome the 'structural evil' of this division; and let us bravely advance the mission of opening up new day for the people. May this calling be answered with firm faith and without hesitation. Therefore, let the wave of genuine peace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low out over Northeast Asia and the rest of the world.

Amen.

Witness 6

No Gun Ri

Tom Kennedy
Veterans of Peace, USA

The infamous site where 400 South Koreans were massacred by US troops in the 1950 American war in Korea.

I was one of a five-member 'Veterans For Peace' delegation sent to South Korea in support of an effort to prevent the Eviction of farmers from their land taken from them for a U.S. base expansion.

We stand in a circle looking down – at the bullet ridden wall – the entrance to the train tunnel. That goes through the village of No Gun Ri – Our hosts include a retired South Korean General. He wants us to know about this place—what happened? A small altar of flowers and pictures shows some of the children and mothers who died here 60 years ago.

Among our small group of about ten is a humble woman – who cries silent to herself. She was a nine year old girl – who watched in horror – as all those around her went down In a hail of bullets

from machine guns and planes that strafed the entrance and into the railroad tunnel – earlier soldiers had told theme to go there for safety.

She speaks to us softly and pleadingly so we might understand the impossible.

Her parents and siblings are dying – amid the noise and screaming and impacts of missiles of death. She gets up and looks at her dead family, but her left eye has fallen out of her head– holding in her hand.

Sixty years later – I go – hold her in my arms – this nine year old girl – as if to apologize –on our behalf the “Veterans for Peace.”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ailroad_bridge_at_No_Gun_Ri,_South_Korea.jpg

7월 4주

특별선언

민(民)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은 수백만의 생명을 희생시켰고 한반도 산천을 폐허로 만들었다. 1953년의 정전협정은 끝내 평화협정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참혹한 재앙을 불러온 대결로 남북 간 장벽이 공고해졌으며, 이로 인해 남북, 북미 간 갈등과 군사적 대결이 증폭되어 왔다.

생명을 위협하는 소모적 갈등과 군사대결을 끝내기 위한 첫걸음은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체결이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항구적 평화로 가는 길이며 동북아와 세계의 공존과 공영에 대해서도 희망의 빛을 던져줄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이웃 여러 나라들에서 벌여왔고, 전 세계의 평화를 염원하는 시민들도 지지와 연대를 보내왔다. 이러한 노력은 끝나지 않은 냉전의 벽을 허물고 상생과 평화의 새 규범 위에 생명공동체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요구이며 응답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전쟁의 종식과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언한다. 정치·군사적 이권에 연루된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외면하기에 민이 스스로 바꾸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전쟁 지속의 다른 이름인 ‘정전’체제의, 지난한 폭력과 수난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를 민이 선언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으로 이

득을 취하려는 이들이 갖가지 구실로 분단의 영속화를 도모하기에, 민이 스스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는 70년 동안 저마다 몸매 새겨진 상흔과 가슴에 고인 눈물과 대동평화 세상에 대한 갈망이 터뜨리는 함성이다.

전쟁 발발 70주년에 선언하는 민의 평화협정은 정전협정 체결 후 70주년이 되는 2023년 7월 27일 이전에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될 평화협정으로 거듭나야 한다. 관계국들은 지금 선언하는 ‘민의 평화협정’ 원칙과 내용을 반영하여 조속히 협상을 시작하기 바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평화협정의 기본원칙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와 교전 당사자인, 대한민국(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그리고 미합중국(미국)은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협정 당사국들은 국제연합 헌장을 준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고,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며, 체결하는 평화협정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 북미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당사국 간 관계 개선과 신뢰에 바탕을 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적·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협정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한다.

한국과 조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계선은 양국이 합의하여 정한다.

한국과 조선은 기존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한다.

당사국들 / 한국과 조선, 조선과 미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 위협을 가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조선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

당사국들은 각각 평화협정에 저촉되는 적대적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폐기한다.

한국과 조선은 전면적인 정치·군사적 신뢰 조성을 위해 기존의 합의를 이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상설 고위급회담을 운영한다.

한국과 조선은 상호 군비를 축소한다. 이를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

조선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한국과 미국은 핵우산을 폐기한다. 당사국들은 한반도에서 핵무기와 핵위협이 될 일체의 군사적, 기술적 조치를 금지한다.

평화협정의 발효와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고, 외국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이 평화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조선 평화관리 공동위원회와 당사국 조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고 운영한다.

당사국들은 이 평화협정의 이행을 촉진할 국제평화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민의 참여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7월 24일

제안단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Reconciliation & Reunification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한국YMCA전국연맹 National Council of YMCAs in Korea

한국YWCA연합회 National YWCA of Korea

평화네트워크 Peace Network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참여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vil Peace Forum

국내 참여 단체

가톨릭평론독자모임(서울) Study Group on Catholic Review<Seoul>

팍스크리스티코리아 Pax Christi Korea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EYCK)

기독교여민회 KIDOKYOMINHOE (KACWWM, KIYOMIN)

남북물류포럼 The Korea Logistics Forum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Sisters of the Christian Doctrine

평화를만드는여성회 Women Making Peace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Korea Teacher's Union goyang

전교조 JeonGyoJo(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고양여성민우회 Goyang WomenLink

민주통일평화포럼 DUPF

한국신연구소 Institute of Korean Feminist Integral Studies for Faith

사단법인하나되는길 NKBP

한국여신학자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순천NCC Soonchun NCC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Civilian Military Watch

콜롬반외방선교회 Columban Mission Society

불평등한 한미소파 개정 국민연대 People Solidarity for Revision of Unequal KOREA-US SOFA

재단법인남북평화재단 SNPEACE

인드라마당 생명공동체 Indramang life community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New World.

오산이주노동자센터 OSAN MIGRENT CENTER

기독교대한감리회 평화통일위원회 Peace and Reunification Committee, The Korean Methodist Church(KMC)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Korean Methodist Women Leadership Institute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 Peace and Reunification Committee,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PROK)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Women Ministers' Association Of PROK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The National Youth Association of PROK

대한성공회 통일선교위원회 Reunification Committee, Anglican Church of Korea(ACK)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Justice and Peace Priests' Association, ACK

평화공공성센터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CPPI, Hanshin University, Korea)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ommittee on Reunificati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search Committee on USFK Affairs
굿타이딩스 Goodtidings

세계 종교/사회 지지 단체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문제위원회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CRC)

세계감리교협의회 World Methodist Council (WMC)

아시아태평양 세계기독교학생연맹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SCF) Asia-Pacific

아시아태평양YMCA연맹 Asia-Pacific Alliance of YMCAs

필리핀교회협의회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NCCP)

대만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PCT)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

일본교단 The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UCCJ)

재일대한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KCCJ)

호주연합교회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미국그리스도교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NCCCUSA)

미국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UMC)

미국연합감리교회 교회와 사회부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 제자교회/연합교회의 세계선교회 Glob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미국친구회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유엔NGO협의체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CONGO)

위민크로스디엠지 Women Cross DMZ

캐나다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anada (UCC)

독일개신교연맹 Bishop Petra Bosse-Huber, Rev. Ostarek Claudia/
Protestant Church in Germany (EKD)

헤센나사우주교회의 Protestant Church in Hesse und Nassau (EKHN)

독일복음선교연대 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EMS)

독일동아시아선교회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미션21 Mission 21

지지를 심의 중인 단체

요이치 노구치 선생(니와노 평화재단)

스티브 피어스 선생 (영국감리교회)

데이빗 그로쉬 밀러 목사(영국개혁교회)

미엔다 올리알테 목사(미국장로교회)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8

한미미 부회장
세계YWCA

평화의 주님!

먼저 저희들을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이자 화평케 하는 자들
(peacemaker)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평화 파괴자로 변질되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한반도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 분단과 분열 그리고 분쟁으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세월이 70년이 넘었습니다.

언제까지 눈물과 혐오, 의심과 불안 속에서
끝나지 않는 한국 전쟁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해 주실 수 있기를 알기에

우리는 지금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고통 속에 아파하는 한반도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눈물이 위로로, 혐오가 사랑으로, 의심이 믿음으로,
불안이 평안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 지길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날을 위해 주님의 화평을 만드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49

솔로몬 벤자민(Solomon Benjamin) 목사
독일 EMS 국장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의 삶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전쟁으로 인한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등, 진리의 하나님, 한반도의 분단 현실속에서도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귀히 보아주십시오.

많은 나라들이 1950한국전쟁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분단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국가와 민족, 문화를 가진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된 교회들과 선교단체들로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성령이 정치 지도자들과 의사결정권자들로 하여금 강대국에 의해 분단된 민족의 애틋한 외침을 보고 듣게 하셔서 통일된 한반도를 위한 화합의 다리를 놓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평화의 창시자요, 사랑의 본보기이심을 믿습니다. 30년 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독일을 하나되게 하신 것처럼, 당신의 평화가 한반도의 주민들에게도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화해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화와 협상이 평화로 전환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평화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이 땅의 주민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Special Declaration

A Declaration for the People's Korea Peace Agreement

The Korean War, which broke out on June 25th, 1950, cost millions of lives and left the Korean Peninsula in ruins.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led not to a peace agreement. Thereafter, the disastrous confrontation settled into a consolidation of the barrier between the two Koreas, which has amplified conflicts and military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and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Ending the Korean War and concluding a peace agreement must be the first step toward ending this conflict and the military confrontation which threatens lif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is the path to a permanent peace that guarantees the safety of the people. This will also shine a ray of hope on those dreaming of co-existence and the co-prosperity of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Assured of this, Korean civil society has campaign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to urge for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also sent support and

pledged solidarity with this struggle. These efforts constitute a response to the demands for breaking down the walls of the unending Cold War and opening a new horizon for a community of life based on the new standards of co-prosperity and peace.

Therefore, we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proclaim a 'People's Korea Peace Agreement' (hereafter People's Peace Agreement). As those connected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power centers turn a blind eye to the people's longing for peace, protecting their own vested interests, the people will seek transformation themselves. This is a declaration that the people deserve an end to the years of excessive violence and hardship, an end to the unending war now in the form of the Armistice System, and that the people deserve to enjoy peace. While those who want to benefit from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ttempt to perpetuate the division under various pretexts, the people themselves are trying to move beyond division to reunification. This is the amalgamation of the scars engraved upon our bodies for 70 years, the overflow of tears within our hearts, and it is the cry bursting out of a longing for a world of peace.

The People's Peace Agreement, declared on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war, should turn into an (official) peace agreement (hereafter: Peace Agreement) that shall be conclud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before July 27th, 2023,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is Peace Agreement will be a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the complete end to the Korean War and the establishment of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roughout Northeast Asia. Now we urge the concerned countries

to start negotiations as soon as possible, reflecting the following principles and contents of the People's Peace Agreement:

Basic Principles of the People's Korea Peace Agreement

The signatory parties to the Armistice Agreement, the Republic of Korea (ROK),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A) sign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to achieve a complete end to the Korean War and a permanent and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e Peace Agreement should abide by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spect existing (inter-Korean) agreements on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upport effort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contribute to world peace, and faithfully implement the contents of the Peace Agreement.

The Peace Agreement should be 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Panmunjom Declaration,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adopted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Koreas and between the DPRK and USA, and should include the process of simultaneously implementing a step-by-step realization of a peace regime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improved relations and trust between the parties.

The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es the following: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mpletely end the Korean War with the effectuation of the Peace Agreemen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tipulat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shall be the boundary line between the ROK and the DPRK, and the boundaries not stipulated in the Armistice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The ROK and the DPRK shall convert the existing Demilitarized Zone (DMZ) into a peaceful ecological zone.

Between the parties to the Peace Agreement, there shall be no threat of attack or use of force under any circumstances; neither between the DPRK and the ROK, nor between the DPRK and the USA.

The DPRK and the USA shall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and stop slander, pressure, and sanction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mend or repeal hostile domestic laws which are contrary to the Peace Agreement.

The ROK and the DPRK shall implement the existing agreements and form and operate permanent high-level talks to support those agreements in order to create overall political and military trust.

The ROK and the DPRK shall mutually reduce their military spending. To that end, they shall form and operate a joint inter-

Korean military committee.

The DPRK shall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and the ROK and the USA shall remove its nuclear umbrella from the Korean Peninsula.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ban all military and technical actions that could pose a nuclear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At the time of the effectuation of the Peace Agreement, the UN Command shall be dismantled and foreign troops withdrawn in a step by step process.

To implement the Peace Agreement, an Inter-Korean Joint Committee for Peace Management and a Coordination Committee for Contracting Parties shall be organized and operated respectively.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organize and operate an International Peace Watch Group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Peace Agreement.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mot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We will use every endeavor to realize this declaration.

July 24th, 2020

Proposed by:

- *Reconciliation & Reunification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National Council of YMCAs in Korea*
- *National YWCA of Korea*
- *Peace Network*
-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 *Civil Society Organizations Network in Korea Civil Peace Forum*

Endorsed by:

- *Study Group on Catholic Review(Seoul)*
- *Pax Christi Korea*
-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EYCK)*
- *KIDOKYOMINHOE (KACWWW, KIYOMIN)*
- *The Korea Logistics Forum*
- *Sisters of the Christian Doctrine*
- *Women Making Peace*
- *Korea Teacher's Union goyang*
- *JeonGyoJo(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 *Goyang WomenLink*
- *DUPF*
- *Institute of Korean Feminist Integral Studies for Faith*
- *NKBP*
- *Korean Association of Women Theologians*
- *Soonchun NCC*
- *Civilian Military Watch*
- *Columban Mission Society*
- *People Solidarity for Revision of Unequal KOREA-US SOFA*
- *SNPEACE*

- *Indramang life community*
- *Korean Catholic Women's Community for New World.*
- *OSAN MIGRENT CENTER*
- *Peace and Reunification Committee, The Korean Methodist Church(KMC)*
- *Korean Methodist Women Leadership Institute*
- *Peace and Reunification Committee,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PROK)*
- *Women Ministers' Associaton Of PROK*
- *The National Youth Association of PROK*
- *Reunification Committee, Anglican Church of Korea(ACK)*
- *Justice and Peace Priests' Association, ACK*
- *Center for Peace and Public Integrity (CPPI, Hanshin University, Korea)*
-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Committee on Reunification*
-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search Committee on USFK Affairs*
- *Goodtidings*

-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World Council of Churches (WCC)*
-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CRC)*
- *World Methodist Council (WMC)*
-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 (WSCF) Asia-Pacific*
- *Asia-Pacific Alliance of YMCAs*
-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NCCP)*
-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 (PCT)*

- *The National Christian Council in Japan (NCCJ)*
- *The United Church of Christ in Japan (UCCJ)*
- *Korean Christian Church in Japan (KCCJ)*
-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NCCCUSA)*
-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UMC)*
-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Global Ministries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and United Church of Christ*
-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 *Conference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onsultativ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Nations (CONGO)*
- *Women Cross DMZ*
- *United Church of Canada (UCC)*
- *Bishop Petra Bosse-Huber, Rev. Ostarek Claudia/ Protestant Church in Germany (EKD)*
- *Protestant Church in Hesse und Nassau (EKHN)*
- *Evangelical Mission in Solidarity (EMS)*
- *German East Asia Mission (DOAM)*
- *Mission 21*

Organizations currently deliberating their endorsement

- *Mr. Yoichi Noguchi (Niwano Peace Foundation)*
- *Mr. Steve Pearce (Methodist Church Britain)*
- *Rev. David Grosch-Miller (The United Reformed Church)*
- *Rev. Mienda Uriarte [Presbyterian Church (USA)]*

Prayer for Peace 48

Han Mi-Mi
Vice Moderator, World YWCA

Lord of Peace!

Thank you for calling us as your children to be peacemakers
for this world.

Lord, despite your calling for us to become
messengers of your peace,
we have often misused the end goal of peace to promote and
justify violence in the process.
-Please forgive us our sins!

We confess to you, Lord,
that we cannot make peace by our own will, by our own power,
or by our own efforts.

It's been over 70 years since the division of Korea.
Our peninsula has suffered from deeply engrained doubt,
fear, and anxiety.

How long, Lord, are we to live with this pain of
the ongoing Korean War?

Yet, because of you Lord, we can hope! We pray! And we believe!

Only you, Lord, can free us from this chain of
continuing cycle of hatred and violence,
Only you, Lord, can recover and restore us
from this deep scar of unceasing war and division!

Lord of Peace!
Transform hatred to love, doubt to trust,
anxiety to security, and pain to joy in your name!

Let us proclaim and commit ourselves
to be peacemakers of Korean Peninsula and World!

I pray all this in the strong name of Jesus Christ,
our Prince of Peace. Amen.



Prayer for Peace 49

Rev. Solomon Benjamin
Liaison Secretary East Asia/India Mission and
Partnership Department (EMS), Germany

God our infinite being, the giver of life for all. We come to you seeking your favor in bringing peace in the lives of the people especially in the Korean peninsula. Lord pour out your love and compassion on the people who are hurt by the separation through the war.

God of justice, equality and truth, we seek you will honour all efforts and initiatives for peace in the context of divided Korea.

Many nations have contributed to Korea's division through war since 1950 and today, we come together as churches and missions from many nations and people of all ethnicity and cultures but united in faith.

We seek to affirm your covenant of peace and pray your Spirit will influence leadership of those in power and decision making to see and hear the cry and mourning of the nations separated by powers and help build bridges of harmony for a unified peninsula.

Creator God, we believe that you are the initiator of peace and the epitome of love. Just like you miraculously united Germany 30

years ago, may your peace descend on the people in the Korean peninsula.

God of reconciliation help us to convert every conversation and negotiation as an opportunity for acclaiming peace. In Matthew 5:9 you say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are called the children of God` - we want to represent you as the God of peace.

God of people and an incarnation of peace may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bring peace to the people of earth.





8월 1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50

데트레브 크노헤(Detlev Knoche) 목사
독일 헤센나사우 주교회 에큐메니칼 총무

주님,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당신의 도움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와 전 세계 에큐메니컬 공동체에서,
평화와 정의, 사람들의 존엄한 삶의 환경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한반도에 평화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의 표지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 사람들이 삶의 충만함을 나눌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과 지혜를 개발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51

최수산나 총괄부장
한국YWCA연합회

생명의 주님,

70년 전 참혹한 전쟁의 비극을 겪은 한반도는, 아직 아픔입니다.
전쟁의 공포와 분단의 상처가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피해와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을
당신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한없는 위로와 치유로 새롭게 하소서.

자비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한 자매형제를 고백하면서도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증오를 무기 삼아
두려움과 불신의 장벽을 키웠으며,
서로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채워왔습니다.
평화를 유보하며 분쟁을 조장하는 이들에게 맞서지 않고 침묵하였고,
부정의한 분단 체제에 희생당하고 아픔을 겪는 이들을 외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정의와 평화의 주님,

남과 북의 지도자가, 여성이, 청(소)년이, 시민이 마음껏 만나며
한반도 평화의 비전이 되살아나고
이 기운이 한반도를 흘러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소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이 땅에 화해와 일치를 이루게 하소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52

조슈아(Lian Chin-Siong) 목사
대만장로교 에큐메니칼 국장

나사렛 예수님, 주님은 이스라엘 땅, 제국과 이데올로기로 찢겨져 있던 그 땅을 거니셨습니다. 주님은 제국과 종교 권력에 의해 죽으셨으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제국과 이념으로 찢겨진 동아시아 사람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주님은 동아시아에 세계 열강에 의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선언하셨던 진정한 정의와 자유가 우리 아시아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곳의 교회들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지만 이 땅의 현실에 깊이 뿌리내려 사랑과 고난을 통해 희망의 표지가 됨으로써 당신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당신의 복음으로 한반도를 치유하여 주소서. 단지 한반도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죽음의 제국들을 치유하셔서 당신이 선언하셨던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당신의 신실한 제자들의 수고를 통해 현실이 되게 하소서.



AUGUST
Week 1

Prayer for Peace 50

Rev. Detlev Knoche
Secretary, Ecumenical Center in Hessen und Nassau

Lord, we thank you for your support in our lives,
for both the beautiful and the dark sides of life.

You promise more than just bare survival.

We ask you to give strength to all those in the Korean
Churches and in our worldwide ecumenical fellowship
who are committed to peace, justice
and dignified living conditions for people.

Especially we pray for a light of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signs of hope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Let all those who make economic and political decisions
develop new visions and strategies
so that people all over the world may share in the fullness of life.

Amen!

Prayer for Peace 51

Choi Susannah
Director of National YWCA of Korea

God of Life,

The Korean Peninsula, which suffered the tragedy of a devastating war 70 years ago, is still in pain.
The fear of war and the scars of division are deeply rooted.
Embrace this land full of damage and suffering under your wings and renew it with never ending comfort and healing.

God of Mercy,

Even as we confess we are one sisterhood in God we have broken off our relationship.
By using political ideology and hatred as weapons,
We have raised barriers of fear and distrust,
We have used each other to fulfill our power and greed.
We have remained silent in the face of those who deferred peace and encouraged conflict.
We have turned a blind eye to those who have suffered and been sacrificed to an unjust division.
God, forgive us our sins.

God of justice and peace,

May the leaders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women, young men, and citizens meet together to their heart's content,

Revive the vis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et this energy flow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and
spread throughout all the world.
Let us who are created in your image achieve reconciliation and
unity in this land.



Prayer for Peace 52

Rev. Lian Chin-Siong
Program Secretary for Ecumenical Relations of
Presbyterian Church in Taiwan(PCT)

Jesus of Nazareth, you walked the land of Israel, the land torn by empires and ideologies. You died the death of the empires and religious authorities. Yet you were raised again to life!

You know best the East Asian people torn also by empires and ideologies. You know full well the many people suffering under the empires in East Asia. May the true justice and freedom you proclaim be deeply rooted in our Asian cultures. May the churches here, although manifold and varied, be able to live out your gospel by being deeply rooted in the land and through love and suffering becoming the sign of hope.

Heal the Korean peninsula with your gospel in its fullness of life. And also heal not just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death-dealing empir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so that the upside-down world you proclaim can become reality today through the work of your faithful disciples.

8월 2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53

임종훈 안토니오스 사제
한국정교회

주님,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영광의 하느님, 부활하신 주님, 평화의 임금님,
우리가 오늘 조상들의 땅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축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는 형제들과 우애 있게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미워하는 이웃들에게
온유함을 보일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랜 세월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형제들이 서로 죽이고 죽은 이 땅에서 서로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을 하려고 합니다.
가족을 죽이도록 사주한 범죄자들의
사악한 이기심을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려 합니다.
다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찾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평화를 이 땅의 평화로 이룰 수 있도록

희생의 십자가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형제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주님의 겸손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은 아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우리들이
창조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게 변모되는 길 위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70년 전에 벌어진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전에도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드릴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오.

이 땅에 통일의 날이 올 때까지

남과 북이 함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주십시오.

침 뺀고 모욕하여 죽인 살인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죽은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십시오.

주님, 당신께 기도하면서,

주신 복음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슬퍼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온유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위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이루어 갈 때 옳은 일을 하다가 받는 박해를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미와 경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또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증언 7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기도문>

박종화 목사
국민문화재단 이사장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예배와 집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두의 기원을 담은 <공동의 기도>를 예나 지금이나 필수 절차로 삼아왔다. 다만 이를 공적 형식의 <공동기도문>으로 결의하고 실행에 옮긴 사건은 평화와 통일운동의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공적 예배예전에 포함되는 일은 교회사의 공의회적 결의라는 점에서도 그 뜻하는 바가 크고 깊다.

한국교회의 평화와 통일 운동의 기폭제는 세계교회협의회-국제문제위원회(WCC-CCIA) 주선으로 일본 도산소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와 정의협의회>(1983.10.19.-11.02.)였다. 물론 당시 “평화”나 “통일”이라는 용어조차 민간사용이 금기시 내지 금지되었던 한국 정치상황에서 KNCC(NCKK의 당시 약어, 이하 KNCC)가 WCC를 통하여 시도한 첫 걸음이었고, 거기서 당연히 의제토론과 함께 공동기도는 필수절차였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WCC-CCIA가 주선한 남북교회 간의 첫 만남인 <스위스 글리온 회의>(1986.09.02.-05./조선그리스도교도 연맹 5인과 KNCC 6인 참여)는 공동기도는 물론 공동의 성만찬도 진행했다. 이것 이전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과 남북 간의 교회가 기도로 시작한 평화와 통일을 향한 거보였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처럼 세계 에큐메니칼 교회들과 남북의 교회들 상호간의 공동기도와 공동의 연대를 공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표명한 것은 KNCC가 발표한 시대사적 선언문인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1988.02.29.)이다. 이 선언은 곧 이어 열린 〈세계 기독교 한반도 평화협의회〉(인천 송도, 1988.04.25.-29.)에서 전폭적으로 수용되고 세계 교회가 동참케 하자는 결의로 이어졌다. 우리가 말하는 이 〈88선언〉은 “남북한 교회의 상호왕래가 실현될 때까지 세계교회와 협력하여 평화와 통일의 희년을 남북한 교회가 공동으로 선포하도록 하고, ‘평화통일 기도주일’을 공동으로 지키는 일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문’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일을 추진한다.”고 결의했었다. 여기서 유념할 사항이 있다. “공동기도문” 작성, “평화통일 기도주일” 설정, “통일 희년”의 설정이 한 묶음으로 제안되었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헌신적인 선두주자로 나선 WCC는 〈중앙위원회〉(서독 하노버, 1988.08.10.-20.)를 통하여 위에 언급한 KNCC 선언과 인천 국제대회가 제기한 “세계 기독교공동체가 남북한 기독교인들과 함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함께 기도하는 날’을 연례적으로 갖도록 하자”는 제안을 수용하고, 동시에 〈한국교회 여성협의회〉(1988.04.28.)가 제안한 ‘1995년 통일희년’ 계획과 이를 ‘기독교 여성 향후 10년 운동’(1988-1998)과의 연계제안 등을 수용하여 차기 중앙위에서 포괄적 결의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 이어서 열린 남북의 〈제2차 글리온 회의〉(1988.11.23.-25.)는 남북의 교회가 ‘1995년을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매년 8.15 직전 주일을 동동 기도주일’로 지키며, 이 날을 위하여 ‘공동 기도문’을 채택하고, 나아가 세계의 모든 회원교회들이 이 날을 지켜줄 것을 권면하도록 WCC에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일련의 남북 교회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WCC 〈중앙위원회

)(1989.07.27. 모스크바)는 아주 기념비적인 장문의 “정책성명서”〈한반도의 평화와 통일/WCC Policy Statement〉를 채택하고 발표했는데, KNCC가 발표한 “88선언”을 비롯한 여타의 각종 후속 선언들을 두루 살펴 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세계 교회들의 참여가 에큐메니칼 신학과 운동의 도도한 흐름 속에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었다. 특별히 강조하건데 KNCC가 발표한 〈88선언〉과 WCC가 발표한 〈한반도 정책선언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과 주제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가장 명확하게 해명하고 제기한 핵심 문서라고 보고 필독을 권한다. (참고자료: 1980-2000 한국교회 평화통일운동 자료집,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2000, pp.102-110; pp. 159-163).

WCC 중앙위원회(모스크바)는 발표한 〈정책선언서〉를 통하여 공동기도문을 비롯한 관련 행사에 관하여 이렇게 결의했다. :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글리온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세계교회협의회는 남북한 교회가 1995년을 “통일 희년”으로 지키기로 한 결정을 지지하며, 세계교회협의회 모든 회원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의체들이 공동기도주일을 지킴으로써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 이와 비슷한 결의를 같은 해에 모인 세계개혁교회 연맹총회(WARC, 1989.08.26., 참고 상계서 pp.163-164)에서도 해주었다. 이로서 〈공동기도〉는 남북의 교회와 세계 각국의 세계교회협의회 회원교회들의 “에큐메니칼 공동기도”가 되었고, 기도문은 통상적으로 사전에 남북의 교회가 합의하여 채택해오고 있다.

〈공동기도문〉의 모음집(위의 자료집, pp. 445-478)은 남북교회와 세계교회의 공동기도문이다. 그 속에 평화와 통일의 마음과 갈망과 결단이 응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그리고 나아가 함께 기도하는 온 세계의 분쟁과 분단으로 아

파하는 모든 곳에 화해와 평화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한다. 한국교회는 이 공동기도문을 들고 1988년 8월14일 첫 <평화통일 기도주일 연합 예배>를 정동 감리교회에서 함께 드렸으며, 지금까지 온 누리 교회들마다 이 공동기도의 외침이 통일과 평화의 그 날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 최종

2020년 평화통일남북공동기도주일 기도문

자비의 하나님!

이 땅이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어언 75년,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8.15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한/조선 반도에 허락하신 해방의 복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과 북/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단의 현실 때문에 온전히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오래 전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은 완전한 독립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분단과 전쟁, 대결과 증오의 세월은 마치 처음부터 적대적인 두 민족인 양, 우리를 찢어놓았습니다. 38도선으로 갈라놓은 외세는 여전히 이 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사죄를 거부한 일본은 건건이 훼방꾼 노릇을 합니다. 주님, 이 역사에 제국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그럼에도 북과 남/ 남과 북의 형제자매가 다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두 정상은 평양에서 만나 민족사적 합의를 이룬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한 평화통일 약속은 진심어린 민족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희망이 시들지 않도록 도우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뿌리 내린 평화의 나무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론 외압에 시달려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평화의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합니다. 바라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고, 보장이란 미명으로 개발하는 모든 무기생산을 그치게 하소서. 주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음으로 북과 남/ 남과 북이 평화공존과 상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의 감동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하듯이, 온 세계가 감염병의 포로 상태에서 속히 자유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일수록 남과 북/ 북과 남이 서로 하나의 민족임을 자각하고 협력하게 하시며, 당당히 세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 통일과 번영의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8월 1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 2020년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조선그리스도교련맹(KCF)에 제안한 초안입니다.



Prayer for Peace 53

Fr. Antonios Lim Jong-Hun
Korean Orthodox Church

Teach us, O Lord, how to pray so we may achieve peace.

God of glory, Lord of Resurrection, King of Peace,
Thank you for blessing us for
living in peace in the land of our ancestors today.
Thank you for loving us so that we can live in a agape love
with our wounded brothers.
Thank you for giving us the courage to show gentleness
to our neighbors who hate God.

O God, for many years we have been trying to heal
the wounds of war on this land.
In this land where siblings killed each other and died, we are also
trying to kiss each other in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We seek the courage to face the evil selfishness of the criminals
who instigated us to kill our own families.
We hope to find the wisdom that will never bring pain
to our loved ones again.
We are trying to lift the cross of sacrifice so that
peace from heaven can be achieved through peace in this land.
We want to have the humility of Jesus, who could kneel
before a hateful sibling and wash his feet.

God, O Lord, Savior and Father, have mercy on us.
We have not yet lived up to the will of God.
Though we a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we do not realize the providence of creation.
We are wandering along the road of being transformed
into God's image.

Teach us how to pray, O God, so that we may turn the tragedy that
happened 70 years ago into hope.
Before achieving peace and reunification in this land, please teach
us a prayer that will give honor and gratitude to you, our Creator.
Teach us prayers for consoling the dead so that we can forgive
the murderers who spit upon and insulted them.

As we pray to you, O God, help us to live according to
the gospel you have given us.
For peace, help our hearts to be poor.
Let us grieve if we fail to achieve peace.
Help us to live a gentle life for achieving peace.
Let us thirst for the right actions that achieve peace.
Let us be people of mercy who work for peace.
Let us be people with clean hearts for peace.
Let us not avoid the persecution for doing the right thing
when making peace.

God, let us become people who work for peace.
We believe in God's promise that we will be children of God
if we do so.
All glory, praise, and worship to Go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now and forever. Amen.

Witness 7

Joint South–North (North–South) Prayer for Peace &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ev. Dr. Park Jong–Hwa
Kukmin Culture Foundation

Whether at home or abroad, the form of joint prayer has been lifted up as a necessary process in every worship and prayer service gathering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is particular Joint Prayer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officially adopted and used in the public worship services, has a remarkable meaning in the process of peace and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The driving force for the peace and reunification movement of the Korean church was the Tozanso Process with the theme, “Ecumenical Contribution to the Struggle for Peace and Justice in North–East Asia,” convened by the Commission of the Churches on International Affairs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CCIA–WCC) from 19 October to 2 November 1984 in Japan. The Tozanso Consultation was the first attempt by the WCC to bring Christians from a wide spectrum of member churches worldwide along with Christians from Korea. Even the terms “peace” or “reunification,”

at that time, were prohibited from using in the church. It was the first step that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CK) attempted this ecumenical peace process in cooperation with the WCC, and the joint prayer of Christia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a necessary procedure. Then, the WCC convened the Glion Consultation on 2-5 September 1986 in Switzerland. It was the gathering of Christians from both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by joining in prayer and celebration of the Eucharist. It was a powerful experience of Christian unity in the midst of division.

As such, the first public expression of the joint prayer and solidarity between inter-Korean churches and churches around the world was expressed in the historical statement issued by the NCCCK, "Declaration of the Churches of Korea on National Reunification and Peace ("88 Declaration") on 29 February 1988.

This 88 Declaration was soon accepted at the World Christian Peace Council on the Korean Peninsula convened by the WCC in Songdo, Incheon, 25-29 April 1988. The 88 Declaration was meant that the WCC supports the joint prayer issued by the South and North Korean churches until the realization of the inter-Korean exchanges. In other words, it was decided to promote the ecumenical effort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 is something to keep in mind here. It was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the joint prayer," "the prayer week for peace and reunification," and "the jubilee for the reunification" are to be linked together.

The WCC Central Committee, Hanover, Germany, 10-20 August 1988 claimed to observe a Sunday of Prayer for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decided to propose a comprehensive resolution at the next central committee which combines the ecumenical efforts of the “Year of Jubilee for Reunification in 1995” and the “Reunification Movement of the Christian Women Association for the next 10 Years” proposed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Women on 28 April 1988.

In the second Glion Conference, 23-25 November 1988, the churches of the North and South declared the year of 1995 as the jubilee of reunification and decided to observe the prayer Sunda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Sunday before 15 August every year, prepar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South) and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North).

In response to the series of request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Korean churches, the WCC Central Committee, Moscow, July 1989 adopted a historical statement, “Central Committee Policy Statement on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The churches around the world recognized that participating in the ecumenical efforts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milestone in the ecumenical movement.

The 88 Declaration by the NCKK and the Central Committee Policy Statement on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 by the WCC are the most significant documents which present the issue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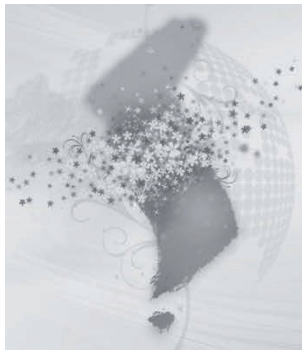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Christian point of view (See, NCCCK's Documents of Peace and Reunification, [NCCCK, 2000], pp 102-110; pp. 159-163).

The WCC Central Committee in Moscow made the following resolution regarding the joint prayer and other related events:
By reaffirming the "Glion Declaration on Peace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CC supports the decision of churches in both North and South Korea to observe 1995 as the "Year of Jubilee for Unification" and recommends that all WCC member churches and associate ecumenical councils and conferences join in prayer with the Korean churches by observing the Common Day of Prayer (WCC Central Committee, Central Committee Policy Statement on Peace and the Reunification of Korea, Moscow, USSR, July 1989).

A similar resolution was also made by the World Reformed Church Federation General Assembly (WARC, 1989.08.26., References, pp.163-164), gathered in the same year. As a result, the joint prayer has become the ecumenical joint prayer of the churches of the North and South and the members of the WCC around the world, and the prayers are usually adopted each year by the churches of the North and South in advance.

The joint prayer is an ecumenical effort of the churches in the North and South and churches around the world. The strong desire and determina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are condensed in the prayers.

This joint prayer was lifted up at the first ecumenical prayer Sunday service on peace and reunification, Aug 14 1988 at Jung Dong Methodist Church in Seoul. Churche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will continue to pray until the day of true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rayer for Peace – Final

2020 August 15th Joint South–North (North–South) Prayer for Peace &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God of mercy!

As this year 2020 marks the 75th anniversary of Korea's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we give you thanks for your marvelous gift of liberation. But the joy of liberation could not be fully celebrated for Christians in the North and South due to the Cold War relic of longstanding division and confrontation. Lord, have mercy on us!

God of justice!

The joy of liberation ended up being only half fulfilled as the years of division, confrontation, and hatred have torn us apart as if we were two hostile nations from the beginning. The foreign powers, who established two separate Korean nations demarcated by a border at the 38th parallel, the line of latitude that crosses the peninsula, still dominate the fate of our nation. Japan, which has continued to refuse to apologize, is the intruder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Lord, we humbly ask for the justice of your kingdom which is opposite to the injustice of the human empire!

God of hope!

We also give you thanks for making us your messengers of peace and justice. June 15 this year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held the first summit of inter-Korean leaders since the Korean War in the early 1950s. The North and South have agreed to resolve the question of reunification independently and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who are the masters of the country. Lord, help us not to lose our hope!

God of peace!

Trees of peace, rooted in this land, are still growing. Even in times of external pressure from the foreign powers, we pray that the fruits of peace would be harvested throughout the length and breadth of the land all over the country. Help us to stop the military exercises and producing all weapons in the name of security! Lord, may the North and South walk in the path of peace and coexistence by declaring an official end to the Korean War and signing a peace treaty!

God of salvation!

We are frustrated and feel so helpless as we have faced the COVID-19 pandemic. Just as Koreans wish a full joy of liberation, may we overcome the COVID-19 and enjoy the gifts of life. May the North and South lead to mutual cooperation as one nation! Lord, may we boldly proclaim a new covenant of national reconciliation, peace, and prosperit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15 August 2020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This '2020 August 15th Joint South–North (North–South) Prayer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draft proposal propos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CCCK) to the Korean Christian Federation (KCF).

부록

Appendix

한국전쟁 70주년 에큐메니칼 평화 메시지

2020년 6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미국그리스도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호주기독교교회협의회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Australia)
영국/아일랜드 교회협의회 (Churches Together in Britain and Ireland)
태국 그리스도교 교회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캐나다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anada)
필리핀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이디오피아 정교회 테와헤도 교회 & 이디오피아 메케인 복음교회
(Ethiopian Orthodox Tewahedo Church & Ethiopian Evangelical Church Mekane Yesus)
남아프리카기독교교회협의회 (South African Council of Churches)
러시아 정교회 모스크바 대주교청 (Moscow Patriarchate-Russian Orthodox Church)
(이상 참전국 NCC)

70년 전 시작된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그 중 대다수는 민간인이었으며, 한반도의 거의 모든 주요 도시가 파괴되었다. 많은 가족들이 흩어졌고, 같은 언어와 전통과 역사를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 비통함과 공포, 분열이 남았다.

이 비극적 전쟁은 2차 세계대전 후 미합중국과 소비에트 연맹에 의한

한반도 분할에서 비롯되었다. 불행히도 한반도는 36년 간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거의 즉시 분할 점령 당했다. 남북 분단은 냉전 시대를 거치며 고착화되었고,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전쟁의 불씨를 당겼으며, 이 전쟁으로 한반도 사람들은 극심한 피해자가 되었다.

3년 간의 끔찍한 파괴적 전쟁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서명되면서 휴전이 이루어지고 북과 남을 나누는 비무장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평화조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날까지 남북은 전쟁 상태에 남아있다.

한국전쟁 70주년이라는 이 어두운 때를 맞아, 한반도 분단과 갈등에 일조한 국가의 교회와 교회협의회로서 우리는 함께 촉구한다.

- 한국전쟁 종식을 즉시 공식 선언하라.
-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체제 실현을 위한 진전의 출발점으로서 1953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 채택을 신속히 이행하라.

이 전쟁이 시작된 후 70년이 지났고, 이제 전쟁은 오래 전에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그 동안 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여러 도전이 있어왔지만, 70년 된 전쟁을 그대로 둔 채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전쟁의 종식을 인정함으로써 한반도 현실에 대한 실용적 대화와 협상 조건들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역사적 현실을 인정하고 이를 문서화한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 지역의 긴장과 적개심을 줄이고 판문점과 싱가포르 회담 후 교착된 상황을 재개할 상황을 회복하는 데 중추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남북 상황 회복을 위해 우리는 촉구한다.

- 이 지역에서의 군사 훈련을 유예하고 취소하라.
- 남북간, 북미간 대화를 재개하고 한국전쟁에 관여한 국가들은 이 대화를 지지하고 지원하라.
- 북미간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라.

우리는 한반도 평화 진전을 향한 큰 희망을 준 모든 합의, 특히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과 2018년 9월 평양 공동 선언, 2018년 6월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문구와 정신을 이행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고 전 세계가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한다.

한국전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전쟁의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 무력과 강압적 수단으로는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통일은 오직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 가능하다.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오랫동안 분단된 한반도 사람들이 분열과 갈등의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며 미래를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에 평화를 위한 지도력과 영성이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세계교회협의회 (World Council of Churches)
 정교회 총대주교청 (Ecumenical Patriarchate)
 세계개혁신교회교무니온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orld Methodist Council (세계감리교회협의회)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대한예수교장로회)
 Korean Methodist Church (기독교대한감리회)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기독교장로회)

Korean Anglican Church (대한성공회)
 United Methodist Church (USA) (미국 연합감리교회)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 장로교회)
 United Church of Christ (US) (미국연합교회)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미국/캐나다 그리스도교-제자교회)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미국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Mennonite Central Committee Canada (캐나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World Alliance of YMCAs (세계YMCA연맹)
 Protestant Church in Hesse and Nassau (Evangelische Kirche in
 Hessen und Nassau, 독일 헤센-나사우 주교회의)
 The Rt Revd Stephen Cottrell, Bishop of Chelmsford (영국성공회
 챔스포드교구)
 Anglican Church of Canada (캐나다 성공회)
 Canadian Association of Baptist Freedoms (캐나다침례교회연합)
 Canadian Baptists of Ontario and Quebec (캐나다 온타리오 퀘벡
 침례교회)
 Canadian Yearly Meeting of 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캐나다
 퀘이커 중앙위원회)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
 그리스도교개혁교회)
 Ethiopian Orthodox Tewahedo Church in Canada (캐나다 테와헤도
 이디오피아 정교회)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Canada (캐나다 루터교회)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캐나다 장로교회)
 Salvation Army Canada and Bermuda Territory (캐나다-버뮤다 구세군)
 Ukrainian Catholic Church in Canada (캐나다 우크라이나 천주교회)
 (이상 WCC 회원교단과 에큐메니칼 기구)

**Joint Ecumenical Peace Message
on the occas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start of the Korean War**

22 June 2020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Australia
Churches Together in Britain and Ireland
Church of Christ in Thailand
United Church of Canada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the Philippines
Presbyterian Church of Aotearoa New Zealand
Ethiopian Orthodox Tewahedo Church & Ethiopian Evangelical Church
Mekane Yesus
South African Council of Churches
Moscow Patriarchate–Russian Orthodox Church

Seventy years ago, a conflict began that was to cost the lives of approximately three million people - the majority of them civilians, result in the destruction of virtually all of the major c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separate many families, and leave a lasting legacy of bitterness, fear and division among people who share the same language, traditional culture and ancient history.

The foundations for this catastrophic conflict were laid by the

post-World War II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Soviet Union, which – in a bitterly cruel turn of events – followed almost immediately the liberation of Korean people from 36 years of Japanese imperial domination. The division into North and South became entrenched during the ensuing Cold War, which provided the context and impulses for the war that began on 25 June 1950, and of which the Korean people were overwhelmingly the victims.

After three years of appallingly destructive conflict, a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on 27 July 1953, establishing a ceasefire and creating a Demilitarized Zone separating North and South Korea. However, no peace treaty was ever concluded, and so the parties remain, technically, at war up to the present date.

On this sombre 70th anniversary occasion, we, as churches and councils of churches from countries that played a role in the division and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join in calling for:

- An immediate formal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nd
- Swift steps towards the adoption of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1953 Armistice Agreement, as a starting point for further progress towards the realization of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Seven decades after this war began, it is time to acknowledge that it ended long ago. New challenges to peace and stability in the region have arisen in the meantime, but we do not believe that the

resolution of those challenges will be facilitated by keeping that 70-year-old conflict open. On the contrary, we believe that the conditions for pragmatic dialogue and negotiation on current realities on the Peninsula could be greatly enhanced by recognizing the end of the war.

We expect that this long overdue recognition of historical reality, and a peace treaty to document it, would be a pivotal contribution to reducing tensions and hostility in the region, and to restoring a conducive environment for resumption of the stalled process of the Panmunjom and Singapore summit outcomes. To further restore that environment, we also call for:

- Suspension and cancellation of any further military exercises in the region;
- Resumption of dialogu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DPRK, and between the USA and the DPRK, with the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other states who were involved in the Korean War; and
-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DPRK and the USA.

We appeal for the fulfilment of the letter and spirit of all the agreements that had given so much hope of progress toward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in particular the Panmunjom Declaration of April 2018, the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and the Singapore Joint Statement of June 2018. We pray for the realization of the 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a nuclear-free zone, and a world completely free from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The history of the Korean War has taught us that the reunification of Korea cannot be pursued by armed force and coercive means, given the tragic consequences of that conflict. It can only be achieved by peaceful means,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We pray that through dialogue and cooperation the long-divided Korean people may heal the wounds of division and conflict, find again their common identity and shared future, and provide leadership and inspiration for peac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roughout the world.

World Council of Churches
Ecumenical Patriarchate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
World Methodist Council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Korean Methodist Church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Anglican Church of Korea
United Methodist Church (USA)
Presbyterian Church (USA)
United Church of Christ (US)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ennonite Central Committee U.S.
Mennonite Central Committee Canada
Asia and Pacific Alliance of YMCAs
World Alliance of YMCAs

Protestant Church in Hesse and Nassau (Evangelische Kirche in Hessen und Nassau)

The Rt Revd Stephen Cottrell, Bishop of Chelmsford

Anglican Church of Canada

Canadian Association of Baptist Freedoms

Canadian Baptists of Ontario and Quebec

Canadian Yearly Meeting of the Religious Society of Friends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Ethiopian Orthodox Tewahedo Church in Canada

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Canada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Salvation Army Canada and Bermuda Territory

Ukrainian Catholic Church in Canada